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김경혜 장동열

The 2015 Seoul Welfare Survey: An In-depth Analysis Report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연구책임

김경혜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장동열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서울복지실태조사 자료활용도 높으려면 서울시 단위 복지데이터 체계 구축 필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자료 이용해 정책적 관심집단 심층분석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제2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동시에 복지정책의 집행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01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어 기초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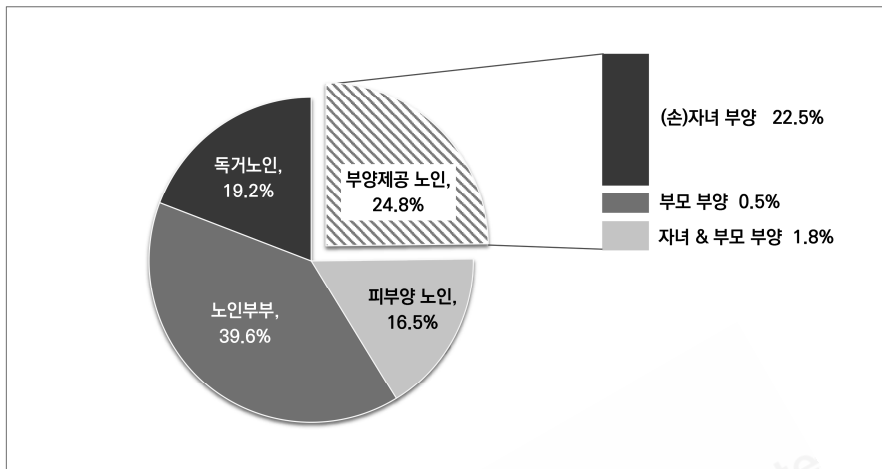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특성, 가구원특성, 주거특성과 같은 기초사항에서부터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등 개별 복지정책 영역별 실태와 욕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지정책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별, 하위집단별 서울시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하위집단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서울 노인 중 58.8%는 독립적 생활, 24.8%는 다른 가족원 부양

65세 이상 서울노인 중 피부양자로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은 16.5%로 조사되었다. 반면 58.8%는 독거 또는 노인부부가구 형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4.8%는 가구주로서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부양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많은 노인들이 가구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오히려 부양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34.3%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 모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구유형이다.



[그림 1] 서울노인의 가구형태와 부양체계

베이비부머, 현 노인보다 경제적 안정...부모부양·자녀양육 '이중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세대 노인에 비해 학력이 높고 소득과 자산 모두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양호하다. 노후준비 정도도 높으며 적극적인 노후여가생활을 선호한다.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74.5%로 현재 노인층의 44.7%보다 높아 노후생활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기부나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가능한 집단이다.

그러나 여전히 7.8%의 베이비부머는 어떤 형태의 노후 경제생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자녀를 부양하는 낡은 세대가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69.4%가 2세대 가구로 여전히 자녀와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중산층은 보편적 복지 선호·무상복지 비선호 ‘복지의식이 보수적’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가구 중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에 속하는 중산층은 73.7%이다. 이들은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 가구 경제 수준 등 모든 면에서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과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의 중간적 특성을 보인다.

중산층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지만, 무상복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중산층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고, 고세금/고복지보다는 저세금/저복지 선호도가 다소 높아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5%~125%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중산층은 가구소득이 평균 4,090만 원이고, 가구주는 주로 남성, 평균 연령은 46세이다.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다. 중위소득의 50%~75% 미만의 하위중산층은 빈곤층보다는 양호한 상태이지만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중산층임이 확인되었다.

[표 1] 중산층의 복지의식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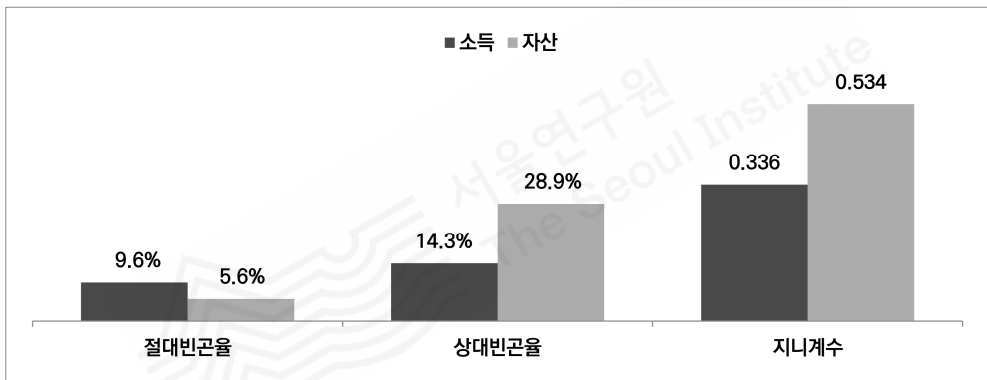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chi^2(p)$
복지대상	빈곤층	27.0	33.6	24.7	16.857 (.002)**
	중립	33.2	27.4	31.4	
	모든 국민	39.8	39.1	43.9	
비용부담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	47.1	40.8	39.3	8.512 (.075)
	중립	26.6	35.1	35.2	
	무상제공	26.3	24.1	25.5	
복지수준	저세금/저복지	33.0	26.8	17.4	30.413 (.000)***
	중립	49.5	49.7	52.1	
	고세금/고복지	17.6	23.4	30.5	

* $p < 0.05$, ** $p < 0.01$, *** $p < 0.001$

서울 빈곤율·불평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

서울시 가구 중 약 9.6%가 절대소득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를 가구원 수로 환산하면 인구 빈곤율은 8%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6.96이고, 소득 지니계수는 0.336으로 산출되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빈곤통계연보와 비교해 서울은 대부분의 빈곤율과 불평등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한편, 순자산액이 최저생계비 6개월 치 미만인 절대자산빈곤율은 5.6%로 소득빈곤율보다 낮다. 그러나 중위 순자산액의 50% 미만인 상대자산빈곤가구는 28.9%이고,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34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하다.



[그림 2] 빈곤율과 불평등도

빈곤가구 유형 중 비수급 빈곤가구·근로빈곤가구가 복지사각지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가구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수급 빈곤가구는 단독가구, 고령가구주가 많다는 점에서 수급가구와 유사하지만, 수급가구보다 근로소득과 자가 소유율이 높다. 근로소득과 자가 소유가 비수급 빈곤가구가 기초보장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가구 중 6.3%는 가구원이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총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근로빈곤가구로 확인되었다. 근로빈곤 가구는 가구원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주로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상용직인 경우에도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총소득은 높지 않다. 더구나 아직 자녀교육비도 지출해야 하는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비수급 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는 기초생활영역에서 물질적 결핍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조사한 6가지 기초생활 항목에서 비수급 빈곤가구는 공과금 연체와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많았고, 근로빈곤 가구는 공과금 연체와 난방중단 경험이 높았다. 비수급 빈곤가구는 고령자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표 2] 가구유형별 결핍경험률

(단위: %)

구분	난방 중단	집세 연체	공과금 연체	공교육비 미납	결식 감식	의료서비스 미이용
전 가구	9.2	5.8	9.7	1.0	1.7	2.4
비빈곤가구	8.0	5.1	9.0	0.8	1.5	1.5
빈곤가구						
수급가구	30.4	31.9	38.8	0.0	26.8	13.1
비수급 빈곤가구	19.0	12.8	22.9	1.7	2.9	22.1
차상위가구	19.6	10.0	10.7	5.6	0.0	7.2
근로빈곤가구	20.0	14.6	25.0	4.8	5.6	16.0
비근로 빈곤가구	20.6	13.6	10.7	3.4	2.2	3.9

주1. 비해당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가구 빚 평균 2,107만 원...저소득가구, 부채액 비해 이자부담 더 커

서울시 가구 중 63.9%가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17.8%가 5천만 원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전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107만 원이고, 부채가 없는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5,871만 원이다.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 남성이 구주 가구에서 부채도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가계 경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가계가 어려운 가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는 주택구입이나 전월세보증금 등 주택 관련 용도가 가장 많다. 소득수준이 높고 자가 거주 가구일수록 주택구입 용도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자가 거주가구가 하우스푸어(house poor)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가구주가 60대 이상, 여성가구주인 가구,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고 월세거주 가구는 생활비 또는 의료비 용도로 빚을 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가구들은 부채 총액은 적지만 이자 지불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액이 많아 매달 지출하는 이자 금액은 많지만, 소득대비 이자액 비율로 보면 저소득 가구에서 이자지출 부담이 더 크다. 이자지출액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전체 평균 9.1%인 데 반해 소득 하위 1분위 가구 중에서는 21.6%로 매우 높다.

[표 3] 부채가구의 이자부담

(단위: 만 원, %)

		월평균 이자액	소득대비 이자지출 비중(%)					평균
			2.5% 미만	2.5~5%	5~7.5%	7.5~10%	10% 이상	
부채가구 전체		17.54	40.0	27.4	16.6	7.0	9.1	4.6
소득 계층	소득 1분위	7.92	41.1	20.0	10.6	6.8	21.6	6.7
	소득 2분위	9.95	51.0	19.0	17.8	4.5	7.7	3.9
	소득 3분위	17.86	32.9	26.9	21.5	8.9	9.8	5.2
	소득 4분위	18.85	38.3	28.5	17.8	8.4	7.0	4.3
	소득 5분위	26.71	37.2	38.1	12.4	6.1	6.3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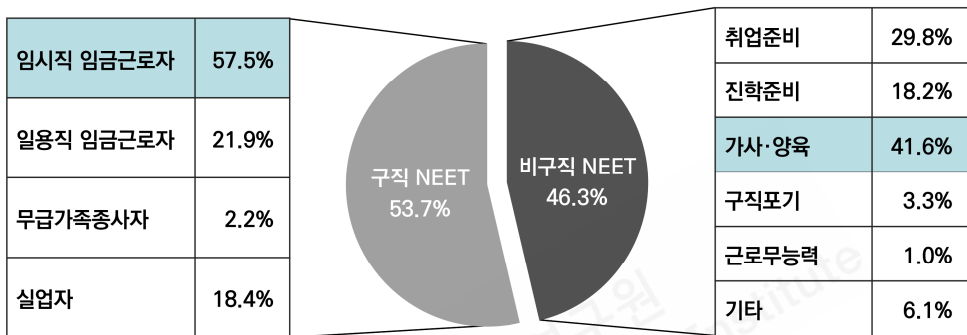
주1.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15~29세 청년 가구원 중 11.8%가 ‘청년 NEET족’... 대부분이 여성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15~29세 청년 가구원 중 11.8%가 청년 NEET로 확인되었다. 구직 NEET 중 현재 전혀 일하지 않는 실업자는 18.4%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 형태가 임시직 57.5%, 일용직 21.9%로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임금의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비구직 NEET는 취업 또는 진학준비를 하는 등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지만, 41.6%가 가사나 양육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결혼한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NEET 내에서도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현재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가정경제 상태가 양호하고 학력이 높은 집단은 당장 열악한 직종에 취업하기보다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통해 더 나은 일거리를 찾는 사례가 많은 반면 저소득, 저학력 청년 NEET는 열악한 고용조건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의 여건상 당장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청년 NEET의 활동상태

취업난, 결혼·육아 부담, 가치관 변화로 켑거루족, 골드미스족 등장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의 하나로 켑거루족이나 골드미스족이 나타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나 켑거루족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독거 미혼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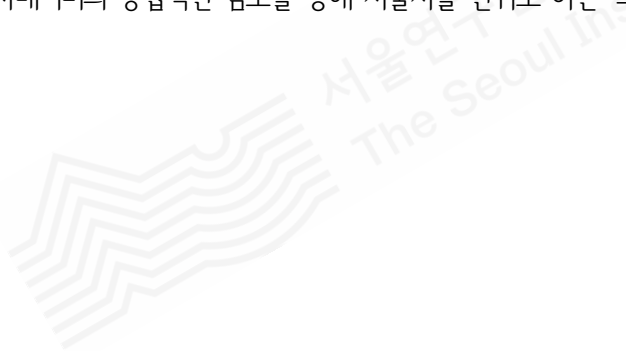
켑거루족과 골드미스족은 결혼을 미루고 독신생활을 즐기는 것도 두 집단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이들 중 자발적인 만혼도 있겠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결혼과 양육의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 복지 관련 데이터체계 점검해 ‘활용도 높은 체계’ 구축해야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정책 대상 집단의 가구주와 가구 특성, 그리고 가구 경제상태 등 기본적인 가구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심층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복지 관련 조사통계 데이터는 매우 빈약하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서울복지실태조사와 4년마다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가 있고 노인, 아동 등 인구집단별 조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다. 더구나 개별 조사 간의 위계도 설정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조사내용은 중복되는 점도 있다.

복지 관련 조사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조사데이터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서울시를 단위로 하는 복지데이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방법	3
02 서울복지실태조사 개요	8
1_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추진 경과	8
2_2015년 조사 개요	9
3_데이터 검토	12
03 서울의 인구와 가구	20
1_서울가구의 구성형태	20
2_노인가구와 부양체계	29
3_베이비부머	39
4_여성가구주 가구	52
04 소득과 빈곤	64
1_빈곤과 불평등 실태	64
2_빈곤가구의 유형과 특성	72
3_부채부담가구	86
4_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99

05 경제활동과 생활행태	118
1_근로빈곤층	118
2_청년 NEET의 경제활동	131
3_청년 캥거루족과 골드미스족	141
06 결론 및 제언	154
1_종합 및 시사점	154
2_분석의 한계와 향후 과제	157
참고문헌	161
Abstract	163



표

[표 2-1]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조사설계	10
[표 2-2] 5대 권역별 조사 완료 현황	10
[표 2-3] 조사내용	11
[표 2-4] 표본가구의 가구구성	12
[표 2-5] 표본가구의 가구주 특성	13
[표 2-6]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14
[표 2-7] 가계동향조사와 서울복지실태조사 비교	16
[표 2-8] 5개 권역별 표본배분 방안: 표본조사구 수	17
[표 2-9] 새로운 표본설계의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예상)	17
[표 3-1] 동거 가구원 구성 형태	21
[표 3-2] 서울시 세대구성: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2
[표 3-3]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	23
[표 3-4] 연령집단별 1인 가구 개인특성	25
[표 3-5] 세대구성별 가구주 특성	27
[표 3-6] 세대구성별 가구 경제상태	28
[표 3-7] 노인가구 vs 비노인가구 동거가구원 구성	30
[표 3-8] 노인 성별·연령별 동거형태	31
[표 3-9] 노인 가구원 가구 내 위치	32
[표 3-10] 가구주와의 관계별 고령자의 가구구성 형태	33
[표 3-11] 동거형태와 가구 내 위상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 구분	34
[표 3-12] 노인가구 유형별 노인 특성	35

[표 3-13] 노인가구 유형별 경제활동	36
[표 3-14] 노인가구 유형별 경제적 특성	37
[표 3-15] 주요 국가별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비교	40
[표 3-16] 베이비붐 세대와 개인특성	41
[표 3-17]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특성	42
[표 3-18] 베이비부머 가구의 가구소득	43
[표 3-19] 베이비부머 가구주 가구의 자산과 부채	44
[표 3-20] 베이비부머 가구의 사회적 지원체계	46
[표 3-2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실태	47
[표 3-2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도	48
[표 3-23] 연령별 노후준비 현황(복수응답)	49
[표 3-24]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의식	50
[표 3-25] 여성가구주의 개인 특성	53
[표 3-26]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상태	54
[표 3-27]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55
[표 3-28] 가구 유형별 여성가구주 개인특성	56
[표 3-29]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57
[표 3-30]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별 경제상태	58
[표 3-31]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별 근심거리	59
[표 3-32]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별 사회적 지원체계	60
[표 3-33]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62
[표 4-1] 소득 유형별 가구소득	64
[표 4-2] 서울시 빈곤율	67
[표 4-3] 빈곤의 심도	67
[표 4-4] 불균등 정도	67

[표 4-5] 빈곤 및 불평등 지표 비교	68
[표 4-6] 자산빈곤의 정의 및 측정	69
[표 4-7] 자산빈곤 및 자산불평등	70
[표 4-8] 빈곤선에 따른 가구유형 구분	73
[표 4-9] 빈곤 상태별 가구구성 형태	74
[표 4-10] 빈곤가구 가구주 특성	75
[표 4-11] 빈곤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76
[표 4-12] 빈곤가구의 소득과 지출	77
[표 4-13] 빈곤가구의 자산과 부채	77
[표 4-14] 빈곤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79
[표 4-15] 빈곤가구의 부채 용도	80
[표 4-16] 빈곤가구의 기초생활 결핍경험	81
[표 4-17] 기초생활항목 지출	82
[표 4-18] 기초복지 희망률	83
[표 4-19] 빈곤가구의 사회적 지원체계	84
[표 4-20]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부채 비율	88
[표 4-21] 가구특성별 부채 용도	90
[표 4-22] 부채가구의 이자부담	92
[표 4-23] 주관적 부채부담 측정 관련 선행연구	92
[표 4-24] 부채부담 과다여부 측정 기준	93
[표 4-25] 기준별 부채부담가구의 규모	94
[표 4-26]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부채부담가구 비율	95
[표 4-27] 빈곤가구 중 부채부담가구 비율	96
[표 4-28] 부채부담가구의 이자부담	97
[표 4-29] 중산층의 객관적 측정범위	100

[표 4-30] 중산층 규모	101
[표 4-31] 중위소득 50~150% 미만 가구 비율	102
[표 4-32] 중산층 가구 특성	102
[표 4-33] 중산층 가구주의 경제활동 특성	104
[표 4-34] 중산층 가구의 자산과 주거특성	105
[표 4-35] 중산층의 사회참여	106
[표 4-36] 중산층의 생활만족도	107
[표 4-37] 중산층의 복지인식	108
[표 4-38] 중산층 내 하위집단별 구성	110
[표 4-39] 중산층 하위집단별 가구 특성	110
[표 4-40] 중산층 하위집단별 가구주의 특성	111
[표 4-41] 중산층 하위집단별 경제적 특성	112
[표 4-42] 중산층 하위집단별 사회참여활동	113
[표 4-43] 중산층 하위집단별 가치관의 차이	114
[표 5-1] 근로빈곤층의 범위	119
[표 5-2] 근로빈곤층 규모	120
[표 5-3] 근로빈곤층 개인 및 가구특성	121
[표 5-4] 근로빈곤가구의 최근 근심 및 갈등 초래 1순위	123
[표 5-5]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124
[표 5-6] 근로빈곤가구의 근로 특성	124
[표 5-7] 고용지원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	126
[표 5-8] 근로빈곤가구의 소득 구성	127
[표 5-9] 근로빈곤가구와 비근로 빈곤가구의 소득 및 지출 비교	127
[표 5-10]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실태	128
[표 5-11] 근로빈곤가구의 자산과 부채	128

[표 5-12] 근로빈곤층의 결핍경험률	129
[표 5-13] 청년 NEET 정의와 규모 추정	133
[표 5-14] 청년 NEET의 개인 및 가구특성	134
[표 5-15] 청년 NEET 유형별 개인 및 가구특성	135
[표 5-16] 개인특성별 현재 활동 상태	138
[표 5-17] 청년 NEET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와 경제활동 여부	139
[표 5-18] 청년 NEET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	140
[표 5-19] 켄거루족의 규모	142
[표 5-20] 켄거루족의 개인 특성	143
[표 5-21] 켄거루족의 경제활동 특성	144
[표 5-22] 켄거루족의 가구특성	145
[표 5-23] 1인 미혼여성 가구 현황	146
[표 5-24] 1인 미혼여성 가구의 개인특성	147
[표 5-25] 1인 미혼여성 주거실태	148
[표 5-26] 1인 미혼여성 가구경제 특성	149
[표 5-27] 1인 미혼여성 가구의 여가활동	150

그림

[그림 2-1] 소득과 지출 분포	16
[그림 3-1] 1인 가구의 연령집단별 특징	26
[그림 3-2] 서울노인의 가구형태와 부양체계	38
[그림 3-3] 베이비부머 가구의 가정 내 근심거리	45
[그림 3-4]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	54
[그림 4-1] 가구당 평균 자산규모	65
[그림 4-2]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	78
[그림 4-3] 빈곤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	83
[그림 4-4] 부채규모 분포	87
[그림 4-5] 부채 용도	89
[그림 4-6] 부채 대출 출처	91
[그림 4-7] 부채부담가구의 부채용도	97
[그림 4-8] 소득계층별 기피시설에 대한 태도	109
[그림 5-1] 근로빈곤가구의 가족생활 만족도	122
[그림 5-2] 청년 NEET층의 빈곤율	136
[그림 5-3] 청년 NEET의 활동상태	136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1)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였음.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기초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2013년부터 격년제로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제2차 조사가 완료되었음.

2) 서울복지실태조사는 복지영역별 실태와 욕구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

-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복지정책 설계 및 성과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 가구원 특성, 주거특성과 같은 기초사항에서부터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등 개별 복지정책 영역별 실태와 욕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자료임.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기초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이는 문항별 기초적인 조사결과를 소개하는 수준이어서 정책개발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에서 각 주제별, 하위집단별 서울시민의 특성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서울복지실태조사는 다양한 생활영역을 담고 있지만, 이 조사 분석의 주요 활용부서는 복지본부와 여성가족정책실이 될 것으로 예상함.

2_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 연구목적에 따라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주제와 하위집단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심층 분석하였음.
 - 심층분석 대상은 ① 서울의 인구와 가구, ② 소득과 빈곤, ③ 고용과 생활 안정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됨.
- 첫째, ‘서울의 인구와 가구’ 부문에서는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인구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 먼저 서울시의 가구구성 형태에 대하여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노인가구, 베이비부머, 여성가구주 가구 등 주요 복지대상 집단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분석함.
 - 분석 내용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둘째, ‘소득과 빈곤’ 부문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소득, 자산, 부채 등 물질적 자원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빈곤과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빈곤가구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봄.

- 빈곤가구 유형은 절대빈곤가구와 상대빈곤가구로 구분하였고, 절대빈곤가구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가구소득으로는 절대빈곤상태이지만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로 구성됨.
- 마지막으로 중산층 문제를 다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이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가운데 중산층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였음.
- 마지막으로 '경제활동과 생활안정' 부문에서는 고용빈곤층 문제와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을 살펴보았음.
 - 먼저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심층 분석함. 근로빈곤이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임. 근로빈곤층의 생활실태 분석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최근의 경제 상황 악화로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그러나 청년실업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과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년 NEET, 캥거루족, 그리고 골드미스적 성격을 보이는 1인 미혼여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았음.

2) 연구방법

- 이 연구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함.
 - 분석에 앞서 서울복지실태조사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그 결과 일부 이상치를 보이는 데이터를 조정하여 사용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세히 소개하였음.
 - 데이터는 SPSS 21.0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와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값 또는 χ^2 값을 함께 제시하였음.
 -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 표준화 가중치, 즉 전체 표본크기에 맞춰 표준화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 데이터 분석결과와 관련 행정자료 또는 기존 조사결과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서울시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였음.
 - 비교 검토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조사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도 함께 인용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분석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음.



02

서울복지실태조사 개요

- 1_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추진 경과
- 2_2015년 조사 개요
- 3_데이터 검토

02 | 서울복지실태조사 개요

1_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추진 경과

- 서울시는 민선 1기인 1996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 조사는 서울시 사회복지 대상인구의 총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全數) 조사와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등 다섯 가지 대상 집단별 복지실태 및 욕구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7년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이후 전수조사는 계속되지 못했지만,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각 대상 집단별 조사가 진행되었음.
 - 노인대상 조사는 2002년 일반노인과 요보호노인 부양가족 각각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기초수요조사가 실시되었음(서울시서울시장개발연구원, 2003)
 - 이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민의 연령집단별 노년준비 실태 및 노인복지욕구조사」(2008),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노인욕구조사」(2010),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2012) 등을 실시하였고, 201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년 주기로 노인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2004년에는 재가 등록장애인 2,000명을 표본으로 장애인 복지욕구조사가 진행되었고(서울시서울시장개발연구원, 2004), 저소득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실태조사도 진행되었음(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장개발연구원, 2005).
 - 한편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체가 되어 서울복지패널조사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0년 2차 조사를 끝으로 종료된 상태임.

- 서울시가 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증적 통계데이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서울시민의 복지수준을 파악하고 복지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임.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복지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1차 조사에 이어 2015년 2차 조사를 완료하였음.
-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복지정책 설계 및 성과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2_2015년 조사 개요

1) 조사설계¹⁾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조사 시점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시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 표본배분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5개 자치구별 가구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시의 5개 권역 및 25개 자치구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사대상 표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300개의 표본조사구를 다단계층화비례배분 방식으로 추출한 후, 각 조사구당 10가구를 계통추출방식으로 선정하였음.
- 표본조사구는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는 제외하고 서울지역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만을 대상으로 추출함.

1)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2015),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원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2-1]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조사설계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2015년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가구
목표 표본	3,000가구
표본추출틀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
표본배분방식	다단계층화비례배분
표본추출방법	계통추출법
표준오차	95% 수준에서 $\pm 1.8\%$
조사방법	컴퓨터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음.
- 조사대상 가구 내에서의 응답자는 가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으로 하였음.
- 조사 기간은 2015년 8월 14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2개월이며, 최종적으로 3,019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

[표 2-2] 5대 권역별 조사 완료 현황

(단위: 가구, %)

권역	표본가구수	구성비	해당 자치구
서울 전체	3,019	100.0	
도심권	380	12.59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	770	25.51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	482	15.97	서대문, 마포, 은평
서남권	762	25.24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남권	625	20.70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크게 생활실태 조사항목과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그리고 복지의식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3] 조사내용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국적 등
	주거실태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주택가격과 월세, 난방비
경제활동	근로실태	근로능력, 경제활동현황, 직종, 근로형태, 근로시간
	지출	생활비, 세금 및 공과금, 사회보장부담금, 돌봄비용, 박탈경험
	소득	가구소득, 기초보장수급, 사회경제적 지위, 노후준비
	자산과 부채	자산액, 부채액, 부채이유, 이자지출 부담
건강과 의료이용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일상생활도움정도, 치매
	장애상태	장애여부, 장애종류, 장애등급, 장애원인
	의료이용	건강보험가입, 의료비,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돌봄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 자살충동, 자살시도, 극복방법
가족생활	가족관계	가족생활 만족도, 부부/부모교육, 격정거리, 도움제공자
	출산	희망자녀수, 출산중단사유, 출산후 취업중단, 일가정 양립정책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내용, 여가활동 동반자
	사회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 기부경험과 의사, 자원봉사 경험과 의사
복지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	주요사업 평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용·금융서비스	주요사업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주요사업 평가, 보육실태,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어르신복지	주요사업 평가, 공적연금 수급실태, 노인복지사업 우선순위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평가, 연금/수당 수급실태, 추가비용, 정책우선순위
	복지전달체계	복지정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의견
복지의식	삶의질	생활만족도, 전년대비 삶의질 개선, 행복지수
	정책방향	정책지원수준 평가, 정책방향 선호, 정책우선순위
	노후생활	노인연령, 노후활동 중요도, 희망거주형태, 장사문화 의식

3_데이터 검토

1) 표본가구 일반특성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가구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음.
 -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대구성은 2세대 가구가 49.7%, 1인 가구가 26.4%임. 가구원의 구성형태는 가구주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48.1%로 가장 많음.
 - 평균 가구원 수는 2.66명으로 2015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평균 가구원 수 2.4명보다 다소 많은 편임.

[표 2-4] 표본가구의 가구구성

(단위: %)

구분		un-weighted	weighted
가구 전체		100.0	100.0
1인 가구		26.4	24.5
1세대 가구	소계	21.4	17.6
	부부가구	20.5	16.5
	기타	0.9	1.1
2세대 가구	소계	49.7	54.3
	가구주 세대 + 자녀	48.1	52.6
	가구주 세대 + 부모	1.4	1.5
	기타	0.1	0.1
3세대 가구	소계	2.4	3.3
	가구주 세대 + 부모 + 자녀	1.4	2.2
	가구주 세대 + 자녀 + 손자녀	0.5	0.6
	가구주 세대 + 손자녀(또는 조부모)	0.5	0.5
4세대 가구		0.1	0.3

- 가구주는 남성, 50대, 고등학교 학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남성이 72.5%

이고, 50대가 30.9%로 가장 많으며 고등학교 학력이 43%로 대다수임.

- 전체 표본 크기로 표준화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30~40대 가구주 비중이 증가하고, 교육수준별 구성에서는 고등학교 학력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대학 이상 학력의 가구주 비중은 다소 증가함.

[표 2-5] 표본가구의 가구주 특성

(단위: %)

구분		un-weighted	weighted
계		100.0	100.0
성별	남자	72.5	74.4
	여자	27.5	25.6
연령	20대 이하	4.6	6.9
	30대	15.5	23.7
	40대	19.2	24.1
	50대	30.9	22.3
	60대	21.1	16.5
	70대 이상	8.7	6.4
학력	초등학교 이하	5.1	3.6
	중학교	7.6	5.7
	고등학교	43.0	38.7
	전문대	10.8	12.2
	대학	30.3	35.8
	대학원	3.2	3.9

- 조사 응답자는 가구 상황을 잘 아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52.1%는 가구주, 44.8%는 배우자로 구성됨.
- 그러나 가구 방문 조사의 특성상 낮 시간대에 접촉이 가능한 여성 가구원이 응답한 사례가 많은 것은 본 데이터의 한계임.
- 가구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 응답 문항에서는 응답자가 여성 집단에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성별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6]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un-weighted	weighted
계		100.0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2.1	50.3
	배우자	44.8	46.6
	기타 가구원	3.0	3.1
성별	남자	26.3	26.6
	여자	70.8	70.5
연령	20대 이하	6.9	9.3
	30대	17.6	17.6
	40대	20.5	20.5
	50대	28.8	28.8
	60대	19.0	19.0
	70대 이상	7.2	5.5

2) 소득과 지출 데이터의 이상치(outlier) 문제

(1) 소득과 지출의 이상치 유형

- 어떤 조사이건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과 지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소득과 지출 데이터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음.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소득과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이상치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처리하였음.
- 첫째,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소득이 0원으로 기록된 가구가 발견됨.
 - 이는 조사 시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임. 소득은 매달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임.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소득은 지난 1년간, 즉 2014년 1년간의 소득을 조사하였음.
 - 반면,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는 조사시점 현재의 상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2015년 조사주간에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14년에는 근로소득이 없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위의 사례는 원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 둘째, 소득이나 지출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 기입 오류로 추측되는 사례가 발견됨. 제시된 수치로 보아 천 원 단위를 만 원 단위로 착각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로 추측되는 사례임.
 - 현재 시점에서는 원 단위 착오로 추측되는 사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함. 따라서 모든 사례를 삭제하지는 않되, 통계분석 과정에서 극단치가 나타날 경우는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음.
- 셋째, 가구 총소득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과다한 가구가 발견됨.
 - 가구소득과 지출 모두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상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소득대비 지출비율을 기준으로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음.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소득대비 지출비율 이상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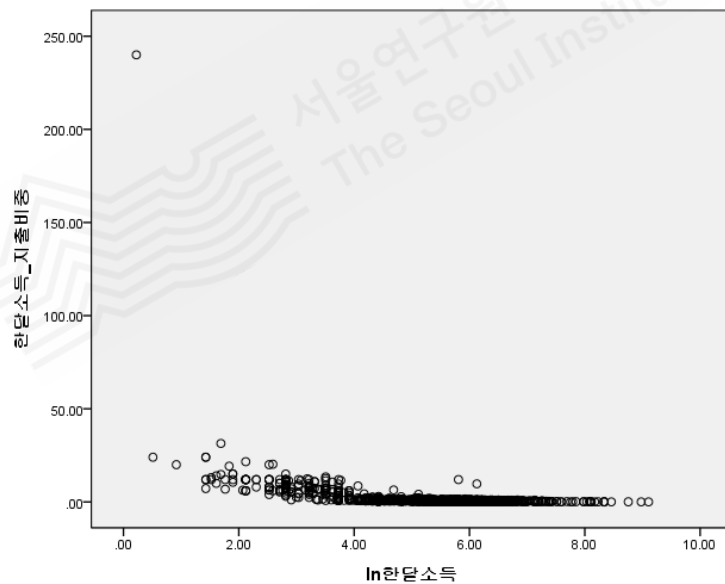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는 약 17.5%를 차지하고 소득대비 지출비율은 평균 약 75.7%임.
 - 반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는 적자가구가 22.1%, 소득대비 지출비율은 평균 112.4%로 나타남. 즉, 소득을 과소 보고하였거나 지출을 과대 보고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소득과 지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정하기 위해 이상치(outlier)에 있는 값들을 제외한 후 분석하였음.
-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소득대비 지출비율이 상·하위 5% 범주 내에 있는 가구들(294가구)의 소득 및 지출 변수들을 결측 처리하였음.
 - 소득대비 지출비율이 상·하위 5% 범위에 속한 사례를 제외할 경우 저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임.
 - 상·하위 5%씩을 제외한 후 소득대비 지출의 절단평균(trimmed mean)이 70.2%로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즉, 상·하위 이상치를 제거한 후의 분석결과는 전국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7] 가계동향조사와 서울복지실태조사 비교

(단위: %)

지표별	가계동향조사 (2015년 4/4분기)		2015 서울복지실태조사	
	도시	도시근로자	원자료	상하 5% 절삭 후
적자가구 비율	20.9	17.5	22.1	16.5
소득대비 지출비중	77.0	75.7	112.4	70.2

- 한편, 소득과 지출 정보가 명확히 부정확한 1개 사례도 무응답으로 처리하였음.
- [그림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지출액이 지나치게 큰 1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와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득정보 또한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측 처리하였음.



[그림 2-1] 소득과 지출 분포

3) 분석의 단위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 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임.
- 표본의 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의 한계가 1.8%p 내외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 3,000가구로 하고 5개 권역별로 표본크기를 결정하였음.
-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서울시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를 생활권역별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와 5개 권역별 통계의 안정적인 산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설계를 진행하였음.

[표 2-8] 5개 권역별 표본배분 방안: 표본조사구 수

구분	모집단		표본배분		
	가구 수	비중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도심권	189,933	5.4%	16	32	38
동북권	1,109,658	31.7%	95	79	77
서북권	409,026	11.7%	35	48	48
서남권	1,078,819	30.8%	92	78	76
동남권	716,861	20.5%	62	63	61
전체	3,504,297	100.0%	300	300	300

[표 2-9] 새로운 표본설계의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예상)

구분	가구 수	상대표준오차(예상)		
		가처분소득	주택전용면적	가구 생활비
도심권	380	4.39%	2.49%	4.91%
동북권	770	3.39%	1.75%	2.70%
서북권	480	3.95%	2.06%	3.45%
서남권	760	3.10%	1.95%	2.90%
동남권	610	3.87%	2.11%	3.08%
전체	3,000	1.77%	0.97%	1.50%

- 통계분석의 지역적 단위는 5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5개 자치구별로도 표본을 배분하였지만 자치구별 표본 크기가 80~170개 사이로 크지 않아 자치구별 분석은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임.

03

서울의 인구와 가구

- 1_서울가구의 구성형태
- 2_노인가구와 부양체계
- 3_베이비부머
- 4_여성가구주 가구

03 | 서울의 인구와 가구²⁾

1_서울가구의 구성형태

1) 가구원 구성

(1)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2세대 가구가 절반 이상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서울 거주 가구의 구성은 2세대 가구가 54.3%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1인 가구가 24.5%로 많음.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형태를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의 구성형태(living arrangement)로 세분해보면 서울은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가 가장 보편적임.
 - 가구주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부모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 그리고 가구주와 그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다른 동거가족 없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만으로 구성된 형태가 54%에 달해 전체 가구의 절반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 그다음으로 많은 가구형태는 1인 가구로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이고, 이어서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16.5%로 많음.
-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는 조부모+부모+자녀 세대 형태가 대부분임.
 - 전체 가구의 0.52%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3세대 가구임.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로서 손자녀를 부양하는 조손가구는 전체의 0.1%로 확인됨.

²⁾ 3장부터 제시되는 모든 분석의 결과 값은 표준화 가중치(전체 표본크기로 표준화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3-1] 동거 가구원 구성 형태

(단위: %)

가구원 구성 형태		구성비
1세대 가구	가家主 부부	16.50
	가家主(단독) + 형제자매	0.76
	가家主(부부) + 형제자매	0.03
	가家主(단독) + 기타 친인척	0.28
	소계	17.57
2세대 가구	가家主(부부) + 자녀	52.60
	가家主(부부)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0.16
	가家主(단독 or 부부) + 자녀 + 기타 친인척	0.04
	가家主(단독 or 부부) + 부모	1.23
	가家主(단독 or 부부) + 부모 + 형제자매	0.23
	가家主(단독 or 부부) + 부모 + 기타 친인척	0.08
	소계	54.34
3세대 가구	가家主(단독 or 부부) + 부모 + 자녀	2.02
	가家主(단독 or 부부)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0.14
	가家主(단독 or 부부) + 자녀 + 손자녀	0.63
	가家主(단독 or 부부) + 조부모	0.02
	가家主(단독 or 부부) + 손자녀	0.52
	소계	3.32
4세대 가구	가家主(단독 or 부부) + 조부모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0.06
	가家主(단독 or 부부) + 부모 + 자녀 + 손자녀	0.16
	가家主(단독 or 부부) + 조부모 + 자녀	0.04
	가家主(단독 or 부부) + 부모 + 손자녀	0.02
	소계	0.28
1인 가구	가家主 1인	24.49
합계		100.00

(2) 1인 가구는 증가하고 2세대, 3세대 가구는 감소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3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서울의 세대별 가구구성을 보면 2세대 가구가 48.2%로 가장 많고, 이어서 1인 가구가 29.5%로 많음.
 - 이와 비교하면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가구 구성에서 1인 가구는 다소 과소 표집, 2세대 가구는 과대표집된 것으로 나타남.
- 2세대 가구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이지만,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1995년 66.5%이던 2세대 가구 비중은 2015년 48.2%로 감소한 반면,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1세대 가구도 증가 추세를 보임.
 -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율은 더 급속하게 나타남. 지난 20년간 서울시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약 27% 감소한 것에 비해 3세대 가구는 약 42% 감소하였음.

[표 3-2] 서울시 세대구성: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

	1995	2005	2015	변화율 (1995~2015)
1세대 가구	10.5	14.3	16.1	53.5
2세대 가구	66.5	57.5	48.2	-27.5
3세대 가구	8.6	6.4	5.0	-41.9
4세대 이상 가구	0.13	0.07	0.04	-69.2
1인 가구	12.9	20.4	29.5	128.7
비혈연 가구	1.4	1.4	1.2	-14.3
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 1인 가구 특성

(1) 서울의 1인 가구는 20, 3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 고령자가 중심

-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구성을 보면 여성(61.3%)이 남성(38.7%)보다 1.6배 많고, 20~30대 젊은 연령층이 절반에 달함.
 - 좀 더 세분해보면 30대 여성(13.5%), 30대 남성(12.3%), 20대 여성(12.0%) 순으로 많음. 그다음으로 60대 여성이 11.4%로 많은데, 여기에 70대 이상까지 합하면 60대 이상 여성노인이 1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결국,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20~30대 젊은 여성, 30대 남성, 60대 이상 여성노인이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1인 가구에서 여성가구가 더 많은 것은 조사시점이 낮 시간이기 때문에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3]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

(단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자	8.4	12.3	4.6	4.9	6.6	2.0	38.7
여자	12.0	13.5	9.1	9.1	11.4	6.2	61.3
전체	20.4	25.8	13.6	13.9	18.0	8.2	100.0

주: 전체 단독가구 740사례 대비 구성비임.

(2)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개인 특성에 차이

- 서울에서 혼자 사는 20~30대 청년은 대체로 학력이 높은 미혼 남녀로 사무직 상용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청년이 많으나, 전문직 비중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음.
 -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에 재학 중으로 학업 때문에 서울로 이주하거나 학교 가까이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청년들임. 남성 청년의 22.7%, 여성 청년의 23.2%가 현재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임. 학생은 대부분 20대 연령층에 속함.
- 40~50대 중년층 독립생활자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미혼도 30% 선을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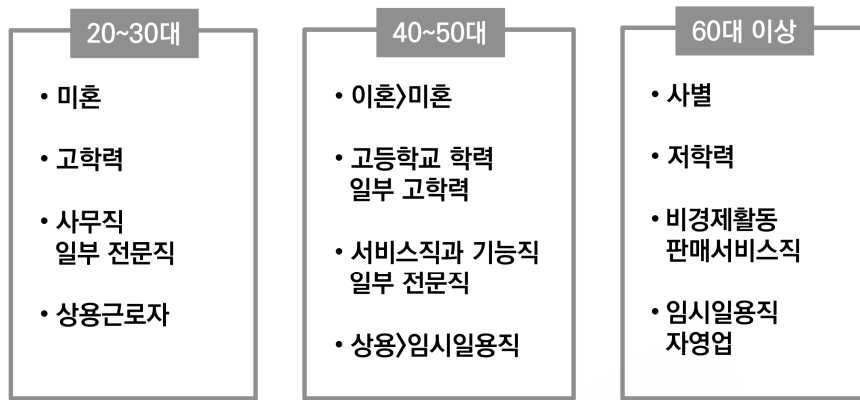
- 이들은 남녀 모두 고등학교 학력이 가장 많으며 청년층에 비해 사무직 종사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직 종사자 비중이 많은 것이 특징임.
 - 근로형태도 상용직이 절반을 넘지만 임시일용직도 30%를 넘어 청년층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집단임.
 - 그러나 이들 중 22.9%(남성)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로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개인생활을 즐기는 고소득 전문직 독신자들임.
-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독거노인 집단에서는 사별로 인한 독립생활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70대 이상 여성은 93.5%가 사별 후 홀로 사는 노인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60대 이상 여성 독거노인의 58.3%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70대 이상으로 좁혀보면 이 비율은 91.3%로 증가함.
 - 이 집단 내에서 60대 연령층은 70~80대 노인들에 비해서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은 편임. 다만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임.
 - 다른 연령층에 비해 60대 이후 독거노인 집단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도 나타남.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서 사별 후 혼자 사는 경우가 더 많고 학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임시일용직이 더 많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집단임.

[표 3-4] 연령집단별 1인 가구 개인특성

(단위: %)

		남자				여자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70대 이상				70대 이상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3.3	2.9	3.1	6.7	4.8	3.7	5.3	2.2
	사별	-	7.4	60.9	73.3	-	14.2	77.1	93.5
	이혼	13.3	50.0	23.4	13.3	2.6	44.0	15.3	2.2
	별거	0.7	-	6.3	6.7	-	2.2	0.8	-
	미혼	82.7	39.7	6.3	-	92.6	35.8	1.5	2.2
학력	무학	-	-	4.5	12.5	-	-	4.5	13.0
	초등학교	-	-	15.2	43.8	-	0.7	24.3	41.3
	중학교	-	7.1	25.8	12.5	-	3.0	29.5	37.0
	고등학교	14.7	67.1	43.9	18.8	16.4	67.4	34.1	8.7
	전문대 재학휴학	2.7	-	-	-	1.6	-	-	-
	전문대 중퇴	0.7	-	-	-	-	-	0.8	-
	전문대 졸업	-	-	-	-	14.3	10.4	-	-
	대학 재학휴학	18.0	2.9	9.1	12.5	15.8	-	-	-
	대학 졸업	55.3	18.6	1.5	0.0	45.0	17.8	5.3	-
	대학원 재학	2.0	-	-	-	5.8	-	0.8	-
	대학원 졸업	6.0	4.3	-	-	1.1	0.7	0.8	-
경제 활동 참여 형태	상용 임금근로	74.5	52.9	23.8	0.0	71.8	43.7	8.9	2.1
	임사일용직	8.1	35.3	22.2	21.4	8.0	37.0	22.2	6.3
	공공일자리	-	-	-	-	-	-	3.7	8.3
	고용주	-	-	9.5	7.1	0.5	2.2	3.0	2.1
	자영업자	2.0	10.3	11.1	14.3	3.7	13.3	15.6	-
	실업자	1.3	-	-	-	-	0.7	1.5	2.1
	비경제활동	14.1	1.5	33.3	57.1	16.0	3.0	45.2	79.2
직종	관리직	1.6	2.9	2.4	-	2.5	1.6	2.9	-
	전문직	6.4	5.8	-	-	3.8	3.1	-	-
	사무직	60.0	10.1	7.1	-	57.9	13.2	-	-
	서비스직	13.6	26.1	21.4	33.3	27.0	37.2	26.5	28.6
	판매직	8.0	11.6	16.7	-	8.8	33.3	35.3	14.3
	기능직	7.2	21.7	16.7	-	-	2.3	7.4	-
	장차기계조작	-	5.8	9.5	16.7	-	-	-	-
	단순노무직	3.2	15.9	26.2	50.0	-	9.3	26.5	57.1
	농림어업	-	-	-	-	-	-	1.5	-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1인 가구 유형은 다음 세 개의 집단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이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3-1]과 같음.



[그림 3-1] 1인 가구의 연령집단별 특징

3) 3세대 이상 가구 특성

(1) 3세대 이상 가구는 여성노인 가구주가 많은 편

- 가장 보편적인 가구유형인 2세대 가구와 비교하여 3세대 이상 가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음.
 -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유형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지난 20년간 서울시의 2세대 가구도 약 27%로 감소하였지만, 3세대 이상 가구는 8.73%에서 5.04%로 약 42% 감소하였음.
- 먼저 가구주의 특성을 보면 2세대 가구에 비해 3세대 이상 가구의 가구주는 65세 이상 고령의 여성노인이 많음.
 - 즉, 할머니를 가구주로 하여 자녀와 손자녀 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임. 3세대 이상 가구의 여성노인 가구주는 학력이 더 낮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더 많음. 따라서 이들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족의 위계상 어른인 할머니를 가구주로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됨.

[표 3-5] 세대구성별 가구주 특성

(단위: %)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전체		100.0	100.0
연령	20대 이하	1.6	2.8
	30-40대	54.2	45.4
	50-60대	41.9	34.3
	70대 이상	2.4	17.6
성별	남자	85.1	64.2
	여자	14.9	35.8
학력	중학교 이하	4.4	19.3
	고등학교	39.7	31.2
	대학교 이상	55.9	49.5
경제활동상태	유급 경제활동	91.8	73.4
	무급가족종사자	0.2	0.9
	실업자	0.4	0.0
	비경제활동인구	7.4	25.7

(2)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제 상태는 양극화 양상

- 가구소득 및 주거점유 형태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 가구의 연간 소득수준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의 중간층 비중이 2세대 가구는 65.5%인데, 3세대 이상 가구는 49.0%로 적음. 반면 3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은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더 높아 양극화 상태임을 보여줌.
 - 자가 점유율은 2세대 가구(49.2%)보다 높은 58.7%이지만, 동시에 월세가 구 비율도 16.5%로 2세대 가구의 두 배에 달함.
- 종합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유형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가족의 부양을 받는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70대 이상 여성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형인 것으로 추측됨. 이러한 가구는 가구주인 여성노인도 일정한

수입이 없지만, 동시에 함께 사는 자녀와 손자녀 등의 소득활동도 열악한 것으로 보임.

[표 3-6] 세대구성별 가구 경제상태

(단위: %)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주택점유형태	자가	49.2	58.7
	전세	41.0	20.2
	월세	8.1	16.5
	무상	1.7	24.0
가구소득	3천만 원 미만	11.8	24.0
	3~5천만 원 미만	36.9	22.1
	5~7천만 원 미만	28.6	26.9
	7천만 원 이상	22.7	26.9
가계 재정상태	어려움	19.5	21.3
	보통	72.2	72.2
	넉넉한 편	8.3	6.5

주1. 주택점유형태: 기타 결측 처리한 비율임.

주2. 소득은 총소득 기준.

4) 요약 및 시사점

- 2세대, 3세대 가구는 감소하고 1인 가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여전히 2세대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이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이는 2세대 가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라기보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비중이 감소한 결과임
- 1인 가구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선 고령인구의 증가가 1인 가구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큼. 자녀가 은퇴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져 2세대, 3세대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사별 후 혼자 사는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청년층 미혼 1인 가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청년실업 문제로 결혼

과 출산을 연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감소하고, 1인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1세대 가구는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1인 가구 증가의 문제를 넘어서 인구감소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임. 인구 및 가구의 변화는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영역에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2_노인가구와 부양체계

1) 가구원 구성 형태(Living Arrangement)

(1) 노인가구는 주로 노인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노인가구는 전체 표본의 15%를 차지함.
 - 이들 노인가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없는 비(非)노인가구와 비교 분석함.
- 노인가구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가장 많은 반면, 노인이 없는 비(非)노인가구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가장 보편적임.
 - 노인가구는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후 부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비노인가구는 아직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2세대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 1인 가구의 비중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25% 전후로 비슷함.
- 그러나 노인가구 중에서도 24.2%가 여전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를 유지하고 있음.
 - 여기에는 노인가구원이 가구주로서 자녀를 부양하는 형태와 가구주 자녀의 피부양 가구원으로 생활하는 형태가 함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노인가구의 17%가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노인가구원이 피부양자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임.

[표 3-7] 노인가구 vs 비노인가구 동거가구원 구성

(단위: %)

가구형태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전체
1세대	부부가구	33.3	13.6	16.5
	가구주 + 형제자매	-	0.9	0.8
	가구주 + 기타 친인척	-	0.3	0.3
	소계	33.3	14.8	17.6
2세대	가구주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16.5	59.1	52.8
	가구주 + 자녀 + 기타 친인척	-	0.04	0.03
	가구주 + 부모	6.4	0.3	1.2
	가구주 + 부모 + (가구주의) 형제자매	0.7	0.2	0.2
	가구주 + 부모 + 기타 친인척	0.7	-	0.1
	소계	24.2	59.6	54.3
3세대	가구주 + 부모 + 자녀	9.7	0.6	2.0
	가구주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0.2	0.1	0.1
	가구주 + 자녀 + 손자녀	3.7	0.1	0.6
	가구주 + 조부모	0.2	-	0.03
	가구주 + 손자녀	1.1	0.4	0.5
	소계	15.0	1.2	3.3
4세대	가구주 + 조부모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0.4	-	0.1
	가구주 + 부모 + 자녀 + 손자녀	1.1	-	0.2
	가구주 + 조부모 + 자녀	0.2	-	0.03
	가구주 + 부모 + 손자녀	0.2	-	0.03
	소계	2.0	-	0.3
1인 가구		25.6	24.3	24.5
전체		100.0	100.0	100.0

(2) 연령이 증가하고 여성노인일수록 의존적 가구형태 증가

- 남성노인은 부부가구, 여성노인은 단독 또는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가 많음.
- 남성노인은 노인부부 형태(50.3%)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노인은 29.4%가 노인부부, 24.3%가 단독가구로 남성노인에 비해 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많

은 것이 특징임. 이는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임.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도 많음. 여성노인의 25.9%가 2세대 가구, 20.3%가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생활함. 여성노인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해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남성노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추측됨.
-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독이나 노인부부 등 독립생활 형태는 감소하는 반면 가족과 동거하는 형태는 증가함.
- 그러나 독거 비율은 70대, 80대에서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데, 연령이 높아 질수록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부부 가구는 감소하지만 독거노인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3-8] 노인 성별·연령별 동거형태

(단위: %)

가구구성 형태		성별		연령		
		남자	여자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1세대	가구주 단독	13.6	24.3	20.1	18.5	18.4
	가구주 부부	50.3	29.4	46.4	39.4	17.1
2세대	가구주+자녀	20.1	15.0	19.0	19.3	6.6
	가구주+부모	1.4	8.9	2.9	5.5	11.8
	가구주+부모+형제자매	-	1.0	-	-	3.9
	가구주+부모+기타 친인척	-	1.0	-	1.2	-
3세대	가구주+부모+자녀	9.2	10.5	7.3	11.4	13.2
	가구주+부모+자녀+형제자매	0.3	-	0.4	-	-
	가구주+자녀+손자녀	2.7	5.1	1.8	2.8	15.8
	가구주+조부모	-	0.3	-	0.4	-
	가구주+손자녀	0.7	1.6	0.4	1.2	2.6
4세대	가구주+조부모+부모+자녀+형제자매	-	0.6	-	-	2.6
	가구주+부모+자녀+손자녀	1.7	1.6	1.8	-	6.6
	가구주+조부모+자녀	-	0.3	-	-	1.3
	가구주+부모+손자녀	-	0.3	-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 상당수 노인은 여전히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부양 주체

- 노인 가구원의 61.7%가 가구주이고 여기에 가구주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83.8%에 달함. 반면,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로서 피부양 상태인 노인은 16.2%임.

[표 3-9] 노인 가구원 가구 내 위치

(단위: %)

구분		구성비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61.7
	배우자	22.1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	15.6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0.6

- 가구 형태별로 보면 [표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58.8%의 노인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 이 중 19.2%는 단독가구 형태로, 그리고 39.6%는 노인부부가구 형태로 노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구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노인이 가구주(또는 그 배우자)로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이 피부양자로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임.
 - 24.8%의 노인은 가구주(또는 그 배우자)로서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이 중 자녀, 손자녀 등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경우가 22.5%이고,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사례는 2.3%로 많지 않음.
 - 반면, 피부양자로 다른 가족과 살고 있는 노인은 16.5%인데, 이들은 대체로 가구주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분임.
- 종합하면, 전체 노인의 83.6%는 가구주(또는 그 배우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부양을 받고 있는 의존적 노인은 16.5%에 불과함. 이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노인부양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결과임.

[표 3-10] 가구주와의 관계별 고령자의 가구구성 형태

(단위: %)

가구구성 형태		가구주 or 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
독립 생활	가구주 단독	19.2	-	-	
	가구주 부부	39.6	-	-	
	소계	58.8			58.8
부양	가구주 + 자녀	17.5	-	-	
	가구주 + 자녀 + 손자녀	3.8	-	-	
	가구주 + 손자녀	1.2	-	-	
	가구주 + 부모	0.5		-	
	가구주 + 부모 + 자녀	1.0		-	
	가구주 + 부모 + 자녀 + 손자녀	0.8		-	
	소계	24.8			24.8
피부양	가구주 + 부모	-	4.8	-	
	가구주 + 부모 + 자녀	-	8.8	-	
	가구주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0.2	-	
	가구주 + 부모 + 자녀 + 손자녀	-	0.8	-	
	가구주 + 부모 + 손자녀	-	0.2	-	
	가구주 + 부모 + 기타 친인척	-	1.0	-	
	가구주 + 조부모	-	-	0.2	
	가구주 + 조부모 + 자녀	-	-	0.2	
	가구주 + 조부모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	0.3	
	소계				16.5
계		83.6	15.7	0.7	100.0

주1. 65세 이상 가구원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임.

2) 노인가구 유형별 특성

(1) 노인가구를 동거형태와 가구 내 위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네 가지 유형은 노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다른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구주 역할을 하는 가족부양 노인가구, 그리고 가구원으로 부양을 받는 피부양 노인가구로 구분함.
- 이 중 노인부부가구가 33.3%로 가장 많으며, 노인독거가구 25.6%, 가족부양 노인가구 24.1% 순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노인이 피부양 가구원으로 다른 가족과 사는 경우가 17.0%로 가장 적음.

[표 3-11] 동거형태와 가구 내 위상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 구분

(단위: 가구, %)

유형	기준	사례수	구성비
노인독거가구	가구원 연령이 65세 이상인 1인 가구	116	25.6
노인부부가구	가구원 수가 2인인 부부가구 & 가구원 중 적어도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	15	33.3
가족부양 노인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와 동거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노인부부가구는 제외)	109	24.1
피부양 노인가구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원으로 함께 사는 가구	77	17.0
계		452	100.0

(2) 노인가구 유형별로 노인 개인특성에 차이

- 노인이 가구주 역할을 하는 세 가지 가구유형 중 노인부부가구의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은 남성노인이라는 특성을 보임.
 - 독거노인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령의 저학력 여성노인이 많아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피부양 상태의 노인은 고령의 여성노인이 많다는 점에서 독거노인과 유사하나, 독거노인보다 연령대가 더 높고 학력은 더 낮음.
 - 피부양 상태인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많고,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고령이면서 낮은 학력을 갖고 있음. 이러한 개인특성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피부양 노인은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앞 절에서 분석한 3세대 이상 가구의 특성과 유사함.
- 특이한 것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는 노인가구주의 경우임. 이들은 노인부부가구 가구주와 독거 또는 피부양 노인의 중간적 특성을 보임.
 - 여성노인의 비율이 독거노인이나 피부양 노인의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30.3% 정도가 여성임. 연령이나 학력도 독거노인이나 피부양 노인만큼은 아니지만 80대 이상이 15.6%이고 중학교 이하 학력도 50%에 달함.

[표 3-12] 노인가구 유형별 노인 특성

(단위: %)

		노인독거 가구주	노인부부 가구주	가족부양 노인가구주	피부양 가구원
성별	남자	34.5	96.7	69.7	33.7
	여자	65.5	3.3	30.3	66.3
연령	60대	47.4	50.0	45.9	24.4
	70대	40.5	42.7	38.5	54.7
	80대 이상	12.1	7.3	15.6	20.9
	(평균 연령)	(72세)	(70세)	(71세)	(74세)
학력	중학교 이하	69.8	41.1	50.0	81.4
	고등학교	24.1	42.4	45.4	18.6
	대학교 이상	6.0	16.6	4.6	-
계		100.0	100.0	100.0	100.0

(3) 가구 내 위치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도에 차이

- 경제활동참가율은 노인부부가구 가구주가 55%로 가장 높고, 독거노인 37.4%, 가족부양 노인가구주 34.3% 순으로 높음.
 - 피부양 노인은 연령이 높고 여성노인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집단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전국 65~79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8.2%인 것과 비교하면 노인부부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노인부부가구 가구주의 약 30%,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가구주의 약 26%가 임금 근로자(상용직과 임시일용직 포함)로 활동하고 있어 은퇴 이후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고용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부부가구 중 자영업 비율이 16.8%로 특히 높은데, 이는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됨.
 - 독거노인도 임금근로자가 23%에 달하지만 15.7%가 임시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노인부부가구 가구주나 가족부양 노인가구주에 비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함.

[표 3-13] 노인가구 유형별 경제활동

(단위: %)

		노인독거 가구주	노인부부 가구주	가족부양 노인가구주	피부양 가구원
경제활동참가율		37.4	55.0	34.3	2.3
경제 활동 형태	상용 임금근로자	7.0	12.8	13.9	-
	임시/일용 임금근로	15.7	17.4	12.0	2.3
	고용주	6.1	5.4	1.9	-
	자영업자	4.3	16.8	5.6	-
	공공일자리	3.5	0.7	-	-
	무급가족종사자	-	0.7	0.9	-

(4) 가구경제 상태는 독거노인가구가 가장 열악

- 가구소득은 피부양 상태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가구가 가장 양호하고 독거노인가구가 가장 열악함.
 - 노인독거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1,406만 원으로 90.9%가 소득 하위 1분위에 속함. 노인독거가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노인이 많아 수입의 28.5%를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 독거노인보다는 양호하지만 노인부부가구도 약 60%가 소득 하위 1분위에 속하며 연간 총소득은 2,294만 원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가구와 비교해 절반 수준임.
-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부양 노인가구는 가구소득은 피부양 노인가구보다 다소 적지만, 자산은 모든 가구 형태 중 가장 많음.
 - 가족부양 노인가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형태로 추측됨.
- 마지막으로 노인이 피부양자로서 생활하는 가구는 소득수준은 가장 높지만 자산이나 자가소유율은 낮은 편임.
 -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자가 점유율이 높아 자산규모가 큰 편이지만, 이 가구는 노인가구원의 자녀세대인 40대가 가구주이기 때문에

아직 자산을 쌓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가장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표 3-14] 노인가구 유형별 경제적 특성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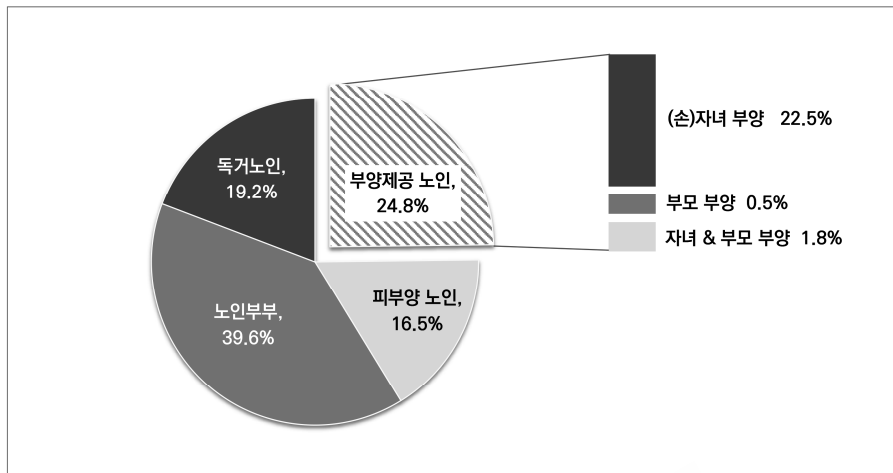
		노인독거 가구	노인부부 가구	가족부양 노인가구	피부양 노인가구	$X^2(p)$ or $F(p)$
총소득(만 원/연)		1,406	2,294	4,409	5,032	49.952(.000)***
순자산(만 원)		26,755	36,559	39,144	28,892	3.701(.012)*
소득 분위	소득1분위	90.9	59.7	18.9	22.0	149.056(.000)***
	소득2분위	4.5	21.0	20.0	8.5	
	소득3분위	2.3	8.1	24.2	16.9	
	소득4분위	2.3	5.6	14.7	20.3	
	소득5분위	-	5.6	22.1	32.2	
주거 점유 형태	자가	50.4	70.9	74.3	52.6	24.430(.002)***
	전세	27.0	17.9	14.7	22.4	
	월세	20.9	10.6	11.0	22.4	
	무상	1.7	0.7	-	2.6	

주1.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 $p < 0.05$, ** $p < 0.01$, *** $p < 0.001$

3) 요약 및 시사점

-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부양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많은 노인들이 가구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오히려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됨.
 - 65세 이상 서울노인 중 피부양자로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은 16.5%에 불과하고, 58.8%는 독거 또는 노인부부가구 형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4.8%는 가구주로서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음.
 - 노인복지정책에서 노인을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임.



[그림 3-2] 서울노인의 가구형태와 부양체계

- 노인세대가 자녀세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들이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들과 달리 가구주로 생활하는 노인 중 상당수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노인부부가구 가구주의 55%, 1인가구 노인의 37.4%,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가구주의 34.3%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음.
 - 자발적 선택으로 일을 하는 노인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일을 하는 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임. 이는 노인독거가구의 90.9%, 노인부부가구의 59.7%가 소득하위 1분위에 속하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음.
 -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는 자녀로부터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만큼 공공의 지원이 더 필요한 집단이라고 판단됨.
- 한편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3%로 노인부부가구 가구주에 비해 낮음.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성, 고령, 저학력 노인이 많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특징을 보임.
 - 이런 유형의 노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임. 앞에서 구분한 네 가지 노인가구 유형

중 가구소득은 피부양노인 가구가 가장 높지만 자산은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음.

- 부양의 교환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구 내 연장자로서 정신적 책임자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_베이비부머

1) 베이비부머의 정의와 규모

(1)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자가 베이비붐 세대

- 베이비붐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과 행태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이들이 노년층의 핵심집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
 - 베이비부머의 독특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은데, 낀 세대로서 베이비부머의 특징, 현재 노년층과의 차이를 보는 연구들이 많음. 또한 주요 정책대상자로서 이들의 은퇴와 퇴직문제,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음.
- 베이비붐 세대를 규정하는 기준 및 규모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함.
 - 국내에서는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함(임성은·김용하, 2011). 이에 따라 한국전쟁 후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난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출생자를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함.

(2) 전체 표본 가구원 중 13.9%가 베이비부머

-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 포함된 개인(가구원) 표본 8,024명 중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집단은 1,112명으로 13.9%를 차지함.

- 그러나 합계출산율 3.0 이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엄밀히 말해 1955년~1963년생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표 3-15] 주요 국가별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명칭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	단카이 세대
출생 연도	1955-1963	1946-1964	1945-1963	1946-1948
주된 경험 (역사적 이슈)	4·19혁명 5·16군사정변 유신체제 민주화운동	베트남 전쟁 흑인 등 소수자 인권운동	비틀즈 코드 출산율 저하 1970년대 오일쇼크	패전(태평양전쟁) 반정부 시위
인구 분포	약 712만 명 (인구 14.6%)	7,700만 명 (인구 30%)	1,490만 명 (인구 24%)	680만 명 (인구 5%)
관련 개념어	한강의 기적, 산업화, 민주화	사회운동과 혁명(자유와 정의)		회사형 인간

2) 인구 및 가구특성

(1) 베이비부머는 현세대 노인에 비해 고학력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연령은 55.8세이고, 여성 비율이 약간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베이비부머는 근대화 이후 세대로 현세대 노인에 비해 현대적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음.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이 현세대 노인과 확연히 차이가 남.
 -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가 경제생활, 사회생활,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2) 은퇴기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

-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근대화 시기의 핵심 인력으로 일했지만 이제 은퇴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 이상이 유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37%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전체 표본 가구원 중 상용직 비율이 41.3%인 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음.

- 오히려 관리직이나 전문직 비율이 13.3%로 전체 평균보다 1.6배 많음. 여전히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 경제활동 직종은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이는 경제활동상태 중 자영업자가 16.9%로 높은 것과 관계가 있음. 물론 젊은 시절부터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됨.
 -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자영업 생존율이 16.9%에 불과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

[표 3-16] 베이비붐 세대와 개인특성

(단위: %)

		전체	집단 비교		
			베이비부머	현 노인	$\chi^2(p)$
성별	남자	47.2	46.9	48.5	.382(.536)
	여자	52.8	53.1	51.5	
학력	중학교 이하	22.3	6.1	60.0	612.964(.000)***
	고등학교	33.1	65.9	32.9	
	대학교 이상	44.6	28.0	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1.3	37.0	7.0	394.909(.000)***
	임시직/일용직	10.3	14.5	11.0	
	공공일자리	0.2	0.3	1.0	
	고용주	2.1	3.9	3.0	
	자영업자	6.7	16.9	6.5	
	무급가족종사자	1.2	3.4	1.2	
	실업자	0.7	0.6	0.7	
	비경제활동인구	37.5	23.4	69.8	
	비경제활동인구	37.5	23.4	69.8	
직종	관리직, 전문직	8.4	13.3	6.2	135.990(.000)***
	사무직	38.9	15.1	2.8	
	서비스직	21.5	24.4	11.9	
	판매직	18.2	27.5	32.2	
	기능직	8.3	13.9	15.2	
	단순노무직	4.6	5.8	30.5	
	농림어업	0.1	-	1.1	

주1.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 $p < 0.05$, ** $p < 0.01$, *** $p < 0.001$

(3) 자녀와 동거하며 아직도 자녀세대를 부양 중

- 베이비부머의 가구형태는 2세대 가구가 6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인세대에 비해 가구원 수도 더 많음.
- 노인세대는 1인 가구가 19%에 달하고 3인 이상 가구가 약 35%인 반면, 베이비부머는 3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70% 가까이 됨. 베이비부머는 아직도 미혼자녀를 부양하면서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은 것을 보여줌.
- 경제 환경의 변화로 50대에 조기은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50~60대 베이비부머 가장은 가족부양 부담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7]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특성

(단위: %)

		전체	집단 비교		
			베이비부머	현 노인	$X^2(p)$
가구구성	1인 가구	9.2	10.0	19.1	423.697(.000)***
	1세대 가구	13.3	16.0	39.6	
	2세대 가구	71.3	69.4	23.8	
	3세대 이상	5.7	4.2	15.6	
가구원 수	(평균)	(3.28명)	(3.10명)	(2.55명)	7.905(.000)***
	1인	9.2	10.0	19.3	
	2인	17.0	21.0	45.8	
	3인	25.1	26.6	17.1	
	4인 이상	48.7	42.5	17.8	

* $p < 0.05$, ** $p < 0.01$, *** $p < 0.001$

(4) 소득수준은 높은 편이나 격차가 큰 편

- 베이비부머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5,386만 원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 4,542만 원보다 다소 높고, 현재 노인세대 소득과 비교하면 2.07배 많은 것임.
- 그러나 베이비부머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나타남. 약 21%가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반면, 약 23%는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으로

양극화되어 있음.

- 중위소득의 50~150% 집단을 중산층으로 정의할 때, 베이비부머가 가구주인 가구 중 중산층이 74.3%로 서울시 평균과 유사함. 그러나 전체 평균보다 빈곤층은 적고, 상류층은 더 많아 베이비부머 가구는 경제적으로 양호한 집단으로 판단됨.

[표 3-18] 베이비부머 가구의 가구소득

(단위: 만 원, %)

		전체	집단 비교		
			베이비부머	현 노인	$X^2(p)$
총소득 (만 원/연)	평균(만 원)	4,542	5,386	2,607	217.649(.000)***
	1천만 원 미만	8.3	4.5	25.7	
	1~3천만 원 미만	21.3	16.5	38.8	
	3~5천만 원 미만	34.6	29.1	20.5	
	5~7천만 원 미만	20.3	26.4	9.8	
	7~1억 원 미만	11.7	17.7	3.6	
	1억 원 이상	3.8	5.8	1.6	
소득계층	빈곤층	10.4	4.8	38.8	175.764(.000)***
	중산층	73.7	74.3	53.9	
	상류층	15.9	20.9	7.2	

주1.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주2.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미만,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

* $p < 0.05$, ** $p < 0.01$, *** $p < 0.001$

○ 베이비부머 가구는 자산액도 서울시 평균보다 많음.

- 자산의 형태는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자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임. 같은 이유에서 현세대 노인도 베이비부머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 가구의 부채액은 평균 2,494만 원으로 서울시 가구 평균보다 약간 많고 현재 노인세대보다 약 2.8배 많음.

- 부채의 용도는 미래노인인 베이비부머와 현세대 노인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현재 노인세대는 의료비와 자녀결혼 비용 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교육비, 생활비 용도가 많음.
- 이는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자녀를 부양하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세대이기 때문임.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생활비조차 부채로 해결하는 베이비부머도 있는 것으로 보임.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는 여전히 가족 부양부담이 큰 세대임.

[표 3-19] 베이비부머 가구주 가구의 자산과 부채

(단위: 만 원, %)

		전체	집단 비교		
			베이비부머	현 노인	$X^2(p)$
순자산(만 원)		27,854	35,016	34,240	.343(.732)
자산유형	부동산	85.3	85.5	89.0	
	금융자산	9.7	9.5	8.0	
	기타	5.0	5.0	3.0	
주거점유 형태	자가	40.1	58.4	65.5	13,439(.009)**
	전세	41.3	30.0	19.9	
	월세	17.3	11.3	13.7	
	무상	1.3	.3	.8	
부채(만 원)		2,107	2,494	885	6,670(.000)***
부채용도	주택 구입비용(거주용)	33.2	44.7	34.3	
	주택 전월세 보증금	23.6	13.1	10.3	
	교육비	10.5	13.0	0.9	
	의료비	1.8	1.4	9.0	
	생활비	14.6	10.7	8.8	
	자녀결혼 또는 분가비용	2.5	2.4	14.7	
	이자지출/부채상환	4.6	6.3	4.6	
	투자 및 사업자금	8.8	8.1	14.8	

주1. 가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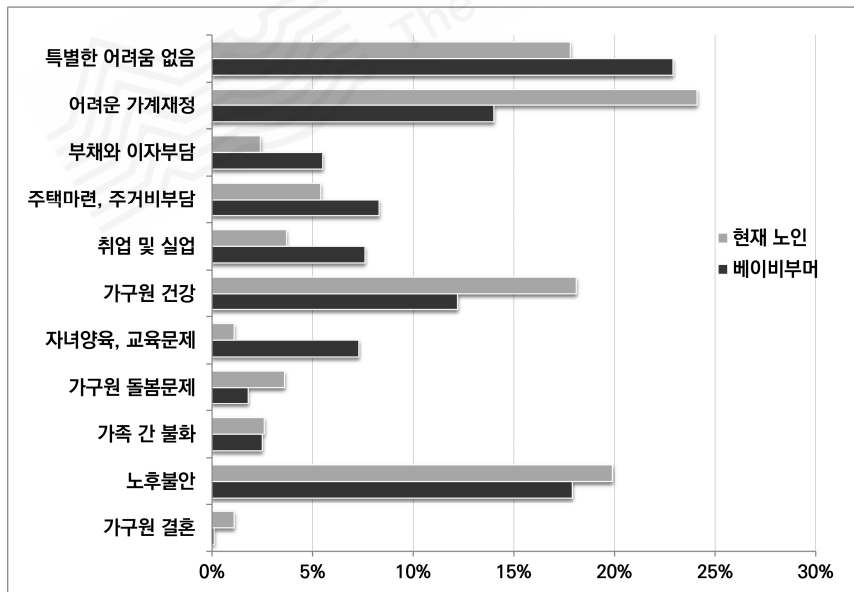
주2. 부채용도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값임.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가족 및 사회활동

(1) 노후불안과 건강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 가구주가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22.9%가 가정 내 특별한 근심거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걱정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노후불안, 가계재정의 어려움, 건강문제 순으로 지적함.
- 베이비붐 세대가 50~60대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노후불안과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임. 이는 현세대 노인들의 걱정거리와 유사함.
- 현재 노인세대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걱정거리로 지적된 비율이 높은 항목은 부채, 주택마련, 자녀양육 문제임.
- 이미 은퇴한 노인세대에 비해 이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이므로 부채와 주택구입이 주요 관심사이고,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자녀들을 부양하는 세대로서 자녀양육이 주요 관심사로 지적된 것임.



주1. 근심거리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값임.

[그림 3-3] 베이비부머 가구의 가정 내 근심거리

(2) 사회적 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열악

- 가정 내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만한 지원체계가 없는 베이비부머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됨.
 - 걱정거리가 있을 때,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로 사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전체 표본가구 평균에 비해 낮음.
 - 걱정거리를 상의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현재 노인 세대보다 적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높아 사회적 지원체계가 약한 집단임.
- 결국 베이비부머는 자녀를 부양하지만 다른 가족으로부터 도움은 받지 못하는 “낯 세대”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베이비부머의 부모 세대는 이미 초고령층이고 자녀세대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줄 만한 여력이 없음.

[표 3-20] 베이비부머 가구의 사회적 지원체계

(단위: %)

		전체	집단비교		
			베이비부머	현 노인	$\chi^2(p)$
동거가족 이외에 걱정거리 상의 대상	따로 사는 부모	17.2	7.2	0.5	244.567 (.000)***
	따로 사는 자녀	7.5	4.3	38.2	
	기타 친인척	8.0	9.4	6.5	
	친구, 동료	45.5	50.4	22.3	
	이웃	2.8	4.6	5.1	
	전문 상담가	1.0	0.9	0.8	
	종교인	3.6	8.1	5.6	
	상의할 곳 없음	13.9	15.1	20.2	
동거가족 이외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따로 사는 부모	28.3	13.1	0.5	258.644 (.000)***
	따로 사는 자녀	7.8	5.3	39.9	
	기타 친인척	9.1	14.1	8.6	
	친구, 동료	27.4	35.9	12.9	
	이웃	2.1	3.0	3.5	
	회사	0.4	0.3	-	
	정부	1.0	2.0	2.2	
	도움받을 곳 없음	23.6	26.0	31.8	

주1. 가구주 연령이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가구를 베이비부머 가구로 간주함.

* $p < 0.05$, ** $p < 0.01$, *** $p < 0.001$

(3) 현세대 노인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 베이비부머는 현재 노인세대보다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고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도 더 많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베이비부머와 현재 노인세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부 참여율과 기부금액, 자원봉사활동 참여에서 노인세대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보이고 있음.
-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표 3-2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실태

(단위: 만 원, 회, %)

		전체	집단 비교		
			베이비부머	현 노인	$\chi^2(p)$ or $t(p)$
사회활동 참여율	각종 회의	14.5	21.8	20.8	.111(.739)
	지역봉사활동	3.8	2.7	2.2	.231(.631)
	마을공동체사업	2.4	4.7	3.1	1.381(.240)
	단체활동	2.2	2.7	1.6	1.221(.269)
	선거투표	80.7	85.7	83.9	.540(.462)
향후 사회활동 참여의사율	각종 회의	10.8	14.0	14.9	.141(.707)
	지역봉사활동	6.0	4.7	3.4	.872(.350)
	마을공동체사업	5.8	5.7	5.0	.236(.627)
	단체 활동	5.1	4.2	4.3	.009(.925)
	선거투표	70.1	75.3	76.4	.127(.721)
기부	최근 1년간 경험	17.1	17.4	9.7	9.900(.002)**
	연간기부금액(만 원)	52.1	59.5	33.2	2.361(.021)*
	향후 기부 의사	33.9	28.8	14.6	23.317(.000)***
자원봉사활동	최근 1년간 경험	9.1	10.8	3.7	13.680(.000)***
	연간참여횟수(회)	7.3	5.4	8.9	-.746(.458)
	향후 참여 의사	29.9	24.6	10.9	24.867(.000)***

주1. 응답자 개인연령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를 구분

* $p < 0.05$, ** $p < 0.01$, *** $p < 0.001$

4) 노후생활 의식

(1) 노후준비 정도는 현세대 노인보다 양호

- 베이비부머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노후준비 정도가 비교적 양호함.
- 베이비부머 중 92.2%는 노후를 대비하여 한 가지 이상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금융자산, 공적연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순으로 많음.
- 노후생활 준비도는 현세대 노인(84.5%)에 비해 높은 편이고, 현세대 노인이 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교하여 공적연금이나 금융자산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 부동산은 현금 유동성이 낮아 노후소득 안정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어 연금 또는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함. 베이비부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가입률과 금융자산 보유로 현세대 노인보다는 노후생활이 안정적인 것으로 추측됨.

[표 3-2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도

(단위: %)

		전체	집단 비교		
			베이비부머	현 노인	$X^2(p)$
노후준비 여부	준비했음	91.3	92.2	84.5	13.419(.000)***
노후준비 내용	공적연금	74.7	74.5	44.7	80.562(.000)***
	개인연금	46.3	47.9	19.3	72.780(.000)***
	퇴직금, 퇴직연금	41.2	32.1	12.1	44.352(.000)***
	금융자산 마련	70.9	76.4	51.6	58.830(.000)***
	주식, 채권	9.0	11.0	5.9	6.410(.011)*
	현재 살고 있는 집	61.8	70.3	69.6	.057(.812)
	기타 부동산	5.5	8.1	6.5	.740(.390)

주1. 응답자 개인연령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를 구분.

주2. 노후준비 내용은 각 항목별 준비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임.

* $p < 0.05$, ** $p < 0.01$, *** $p < 0.001$

- 그러나 베이비부머 중 노후준비가 안된 집단도 있음.
 - 노후에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연금형태의 수입원이 필요한데, 베이비부머의 약 1/4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
 - 또한 여전히 7.8%의 베이비부머는 어떤 형태의 노후 경제생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2015년 사회통계조사에서 50대의 노후준비율이 76.1%, 65세 이상의 노후준비율이 46.9%인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결과임.

[표 3-23] 연령별 노후준비 현황(복수응답)

(단위: %)

	노후 준비율	준비형태						
		국민 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40~49세	78.2	70.0	8.8	30.4	13.1	42.3	7.8	1.9
50~59세	76.1	68.8	9.1	23.9	10.1	43.9	11.2	1.9
60세 이상	52.9	43.0	13.0	15.4	7.5	54.7	21.2	2.9
65세 이상	46.9	36.8	15.3	13.2	7.2	55.0	24.0	3.1

자료: 통계청, 2015년 사회통계조사

(2) 노후에도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

- 노후 여가활동으로 친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경제활동 참여, 그리고 취마나 스포츠 활동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 특히 사회단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0.4%로 현세대 노인의 46.3%보다 크게 높아 베이비부머는 앞으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노후여가활동으로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자기계발 등 생산적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8%로 높음.
 -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의식 변화는 향후 노인복지사업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능과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에도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부끼리만 살겠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아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함.
 - 이러한 경향은 베이비부머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64.9%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부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5.8%임(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이번 조사결과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이 30.8%, 실버타운 입주희망이 22.5%로 높다는 점임.
 - 이러한 거주형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변화는 현세대 노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노인공동생활 가정이나 실버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4]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의식

(단위: %)

		전체	집단 비교		
			베이비부머	현 노인	$X^2(p)$
노후 여가활동 중요도	취미, 스포츠활동	75.3	73.4	64.5	7.839(.005)**
	친목활동	79.2	80.4	74.5	4.290(.038)*
	경제활동 참여	76.8	77.4	72.3	2.970(.085)
	사회단체 활동	60.6	60.4	46.3	16.787(.000)***
	자기계발	66.4	65.8	56.8	7.118(.008)**
	가족여가시간	75.1	72.8	68.9	1.561(.211)
	비노동 휴식	54.3	51.9	46.3	2.602(.107)
노년기 희망하는 거주형태	부부만 독립적으로 생활	32.7	32.5	35.4	14.253(.014)*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도움받음	14.7	11.2	17.1	
	자녀와 동거	2.5	2.9	5.0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생활	30.2	30.8	25.8	
	실버타운 입주	19.8	22.5	16.8	

주1. 응답자 개인연령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를 구분.

* $p < 0.05$, ** $p < 0.01$, *** $p < 0.001$

5) 요약 및 시사점

- 베이비부머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연령 집단으로 경제적으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안정적임. 그러나 자녀는 부양하지만 부모 세대의 도움은 받지 못하는 낀 세대 특징을 보임.
 - 상당수 베이비부머 부모들이 분가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있음. 이들의 교육비도 여전히 부담이 되어 교육비 용도로 부채를 사용하는 비율도 많음.
 - 그러나 이들의 부모세대는 이미 초고령층으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는 주로 친구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 베이비부머는 현재 노인세대보다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고 보다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선호함.
 - 노후에도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있음.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의식과 욕구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의 변화가 필요함.
 - 베이비부머는 기부나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도 현재 노인세대보다 많이 참여함.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는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현재 노인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베이비부머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집단도 함께 존재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가구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가구비율이 21%에 달하고, 노후를 대비하여 어떠한 경제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도 7.8%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베이비부머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만 자영업자가 16.9%로 높은 것이 특징임.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생존율이 16.9%에 불과하여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최근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임(헤럴드경제, 2015.11.9.).

4_여성가구주 가구

1) 인구 및 가구 현황

(1) 여성가구주 가구는 20대 젊은 층과 70대 고령층이 다수

- 여성이 있는 가구 중 주요 복지대상 집단으로 간주되는 것이 여성가구주 가구임.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 중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774가구, 25.6%임.
- 여성가구주는 20대 젊은 층과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 집단은 혼자 사는 청년 여성 또는 여성 독거노인일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미혼 또는 사별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대는 미혼 여성 1인 가구, 70대 이상은 사별한 여성노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2) 고학력자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편

- 여성가구주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지만, 여전히 여성가구주의 40.5%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임.
 - 중학교 이하 학력자 비율(16.9%)이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지만, 이는 앞에서 설명한 70대 여성 독거노인 집단 때문임. 이들 여성 독거노인을 제외하면 대학 학력도 적지 않아 높은 학력을 보여주고 있음. 여성가구주 중 40.5%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높은 편임.
- 가구주인 만큼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음. 약 7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41%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 남성가구의 65%가 상용직 임금근로자, 9.5%가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인 반면, 여성가구는 임시/일용직이 19.4%로 높아 남성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표 3-25] 여성가구의 개인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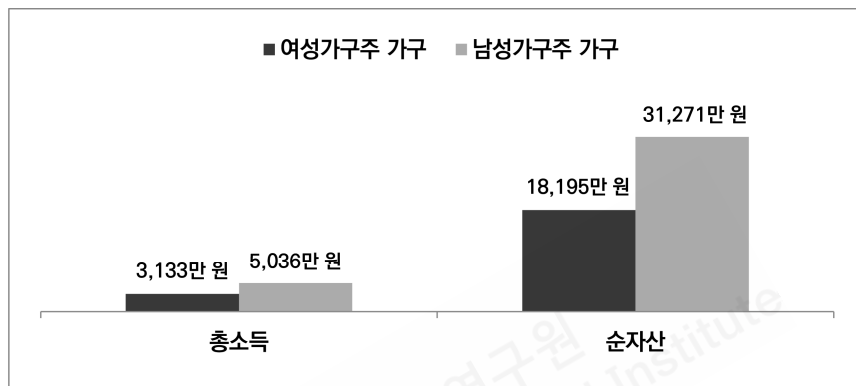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X^2(p)$
연령	20대 이하	12.9	4.9	76.859(.000)***
	30-40대	39.3	50.7	
	50-60대	39.1	38.7	
	70대 이상	8.7	5.7	
	(평균 연령)	(48.6세)	(48.2세)	
학력	중학교 이하	16.9	6.6	96.436(.000)***
	고등학교	42.6	37.4	
	대학 이상	40.5	56.0	
혼인상태	유배우	12.5	84.1	1360.319(.000)***
	사별	32.8	3.0	
	이혼/별거	21.9	4.1	
	미혼	32.8	8.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1.0	65.0	237.593(.000)***
	임시직/일용직	19.4	9.5	
	공공일자리	0.9	0.1	
	고용주	3.1	4.0	
	자영업자	10.7	12.0	
	무급가족종사자	0.4	0.2	
	실업자	0.4	0.7	
	비경제활동인구	24.1	8.5	

* $p < 0.05$, ** $p < 0.01$, *** $p < 0.001$

(3)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수준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열악

- 여성가구주 가구의 총소득은 3,133만 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62% 수준이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도 18,195만 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58%임.
- 여성가구주 가구 중 소득 하위 1분위에 속한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달함.

- 주거상태도 여성가구주 가구가 더 열악함.
 - 자가거주율은 남성가구주보다 낮은 반면 월세거주 가구는 30.5%로 2배 이상 많음.
 - 지하나 옥탑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도 11.1%임. 2015년 서울 복지실태조사 대상 전 가구의 비정상 거처 거주율은 6.2%임.



[그림 3-4]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

[표 3-26]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상태

(단위: %)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X^2(p)$
소득분위	소득1분위	39.9	13.0	316.613(.000)***
	소득2분위	28.2	19.9	
	소득3분위	11.7	19.8	
	소득4분위	13.7	24.0	
	소득5분위	6.5	23.3	
주거점유 형태	자가	27.5	44.4	148.847(.000)***
	전세	41.1	41.3	
	월세	30.5	12.7	
	무상	0.9	1.4	
주택위치	지상	88.9	95.5	43.941(.000)***
	지하	0.9	0.3	
	반지하	9.7	4.1	
	옥탑	0.5	0.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가구 유형별 특성

(1) 가구구성 형태에 따라 다양한 여성가구주 가구

- 가구구성에 따라 1인 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구분됨.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 여성가구주 중 57.5%가 1인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모자가구 4.6%, 맞벌이 가구 5.3%임.
 -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성이 가구주 역할을 하는 가구임.

[표 3-27]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단위: 가구, %)

	전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계	1인 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기타
사례수	3,019	774	432	35	40	267
전 가구 대비 %	100.0	25.6	14.3	1.2	1.3	8.8
여성가구주 중 %		100.0	57.5	4.6	5.3	34.5

(2) 가구 유형별로 여성가구주의 개인 특성에 차이

- 1인 가구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음.
 - 일반적으로 1인 여성가구는 노년층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20대 젊은 층도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모자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여성가구주는 혼인상태의 차이를 제외하고 30~40대의 젊은 층이고 학력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1인 가구의 학력이 가장 낮고 모자가구와 맞벌이가구 여성가구주는 유사한 수준을 보임.
 - 1인 여성가구주 가구 중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18.1%로 높은 것은 이 집단에 혼자 사는 여성노인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나 가구유형별 학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8] 가구 유형별 여성가구주 개인특성

(단위: %)

		여성가구주 가구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X^2(p)$
			1인 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연령	20대 이하	12.9	19.4	-	2.5	46.725 (.000)***
	30-40대	39.3	37.2	82.4	72.5	
	50-60대	39.1	33.0	17.6	25.0	
	70대 이상	8.7	10.4	-	-	
학력	중학교 이하	16.9	18.1	5.9	7.5	5.919 (.211)
	고등학교	42.6	35.6	41.2	40.0	
	대학교 이상	40.5	46.3	52.9	52.5	
혼인상태	유배우	12.5	-	2.9	92.3	508.374 (.000)***
	사별	32.8	27.6	45.7	-	
	이혼/별거	21.9	20.2	51.4	7.7	
	미혼	32.8	52.2	-	-	

주1.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 $p < 0.05$, ** $p < 0.01$, *** $p < 0.001$

- 전체 여성가구주의 75.2%가 유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가구유형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맞벌이가구 100%, 모자가구 97.1%로 매우 높음.
- 고용상태는 맞벌이가구 여성가구주가 가장 양호함.
 - 맞벌이가구 여성가구주 중 상용직이 64.1%로 높은 편이고 근로직종은 사무직과 서비스직에 집중됨. 1인 가구 여성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는 상용직이 많은 편이고, 서비스, 사무, 판매직에 집중됨.
 - 전체 여성가구주 중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가 4.8%인 것과 비교해 맞벌이가구는 10%, 1인 가구는 5.1%로 관리직, 전문직 비율이 높음.
- 반면 모자가구는 고용주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직장에 취업하기보다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고용주나 자영업자로서 판매나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함. 모자가구는

이혼이나 사별 이후 경제활동에 재진입한 경우가 많아 취업보다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3-29]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여성가구주 가구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1인 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가구	$\chi^2(p)$
유급경제활동 참여율		75.2	78.0	97.1	100.0	17.865(.0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1.0	45.7	44.1	64.1	108.65(.000)***
	임시직/일용직	19.4	20.5	5.9	25.7	
	공공일자리	0.9	1.2	5.9	-	
	고용주	3.1	1.4	29.4	2.6	
	자영업자	10.7	9.0	11.8	7.7	
	실업자	0.4	0.5	-	-	
	비경제활동인구	24.1	21.7	2.9	-	
직종	관리직, 전문직	4.8	5.1	-	10.0	37.970(.008)**
	사무직	27.6	31.2	21.2	45.0	
	서비스직	33.0	30.3	48.5	30.0	
	판매직	22.9	22.3	18.2	2.5	
	기능직	2.7	2.4	6.0	5.0	
	단순노무직	8.7%	8.6	6.1	7.5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가계 경제상태는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1인 가구가 열악

-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계 경제 상태는 맞벌이가구가 가장 양호하고, 이어서 모자가구, 1인 가구 순임.
- 모자가구도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그 중 21.9%는 소득 하위 1분위에, 25%는 하위 2분위에 속해 집단 내에서의 편차가 큼.
- 가장 열악한 집단은 1인 가구임. 이들은 50대 이상이 43%에 달해 비경제

활동인구가 많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임시직/일용직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가계 경제도 더 열악한 것으로 추측됨.

- 1인 가구는 자가 보유율이 18.1%로 낮은 반면 월세거주가 39.1%로 높고, 다른 집단에 비해 지하, 반지하, 옥탑 등 비정상적인 거주에서 거주하는 비율도 높음.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896천 원이고, 순자산액은 6,597만 원으로 조사됨.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의 모자가구 표본과 비교하면, 서울의 모자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전국의 한부모가족보다 높은 편임.

[표 3-30]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별 경제상태

(단위: 만 원, %)

		여성가구주 가구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1인 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X^2(p)$ or $F(p)$
총소득(만 원/연)		3,133	2,306	4,041	5,332	44.582(.000)***
순자산(만 원)		18,195	14,301	24,455	27,026	7.941(.000)***
부채(만 원)		1,346	692	2,168	3,720	14.796(.000)***
소득 분위	소득 1분위	39.9	54.2	21.9	-	147.719(.000)***
	소득 2분위	28.2	33.4	25.0	13.2	
	소득 3분위	11.7	6.3	9.4	26.3	
	소득 4분위	13.7	4.4	34.4	42.1	
	소득 5분위	6.5	1.6	9.4	18.4	
주거 점유 형태	자가	27.5	18.1	25.7	32.5	19.144(.010)*
	전세	41.1	41.4	62.9	47.5	
	월세	30.5	39.1	11.4	20.0	
주택 위치	지상	88.9	85.5	97.1	97.4	10.827(.125)
	지하	0.9	0.9	2.9	-	
	반지하	9.7	12.7	-	2.6	
	옥탑	0.5	0.9	-	-	

* $p < 0.05$, ** $p < 0.01$, *** $p < 0.001$

(4) 가장 큰 근심거리는 자녀양육과 부채에 대한 부담

- 최근 집안의 근심거리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여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 쏠림을 가장 많이 지적함. 이는 다른 표본가구와 동일한 결과임.
- 가구 유형별로 문제영역이 다른 만큼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1인 가구에서 근심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근심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의 어려움 다음으로 노후불안 문제를 지적함. 이는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장노년층이기 때문임.
 - 여성가구주 가구 중 모자가구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집단과 달리 현재 생활이 쏠리는 것보다 노후불안을 더 많이 지적하였음. 그 외에 자녀양육과 교육, 취업 및 실업, 부채 문제를 많이 지적함.
 - 맞벌이가구도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나 가구원의 건강과 자녀교육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음. 모자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여성은 30~40대가 대부분으로 자녀양육이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임.

[표 3-31]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별 근심거리

(단위: %)

		여성가구주 가구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1인 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가구	$\chi^2(p)$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0.7	26.9	6.3	19.7	175.065 (.000)***
어려움이 있는 경우 ¹	생활이 쏠림	27.8	30.5	20.3	28.6	
	부채, 이자부담	6.7	4.1	10.2	8.2	
	주택, 주거비부담	14.3	16.8	1.7	12.2	
	취업 및 실업	7.7	6.2	13.6	8.2	
	가구원의 건강	10.2	7.7	8.5	14.3	
	자녀양육, 교육	4.9	0.9	15.3	18.4	
	가족의 돌봄 문제	2.8	3.7	1.7	-	
	가족 간 불화	3.2	3.7	3.4	2.0	
	노후불안	21.6	26.0	25.4	8.2	
	가구원 결혼	0.7	0.2	-	-	

주1. 다중응답 문항임.

주2.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응답자를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 $p < 0.05$, ** $p < 0.01$, *** $p < 0.001$

(5) 여성가구주 가구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빈약

- 여성가구주 가구는 가정 내 걱정거리가 있을 경우 주로 친구/동료와 상의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따로 사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상의할 데가 없다는 응답이 17.2%,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27.8%임. 서울복지실태조사 전 가구 평균은 각각 13.9%와 23.6%인 것과 비교해 여성가구주 가구는 지원체계도 열악함.
- 지원체계가 가장 열악한 유형은 맞벌이가구 여성임.
 - 7.7%만이 따로 사는 가족과 상의한다고 응답해 가족 지원체계가 열악하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69.2%로 매우 높음.
 - 앞의 분석에서 여성 맞벌이가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태를 보였지만,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표 3-32]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별 사회적 지원체계

(단위: %)

		여성가구주 가구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chi^2(p)$
			1인 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동거가족 이외에 걱정거리 상의 대상	따로 사는 부모/자녀	25.3	30.4	22.9	7.7	48.936 (.000)***
	기타 친인척	7.9	4.2	17.1	17.9	
	친구, 동료	41.8	42.2	51.4	35.9	
	이웃	2.9	3.7	2.9	-	
	전문 상담가	1.1	1.4	-	5.1	
	종교인	3.5	3.7	-	-	
	상의할 곳 없음	17.2	14.4	5.7	33.3	
동거가족 이외에 경제지원 받을 대상	따로 사는 부모/자녀	33.9	44.9	20.0	7.7	75.502 (.000)***
	기타 친인척	9.3	4.6	17.1	15.4	
	친구, 동료	25.9	25.7	42.9	7.7	
	이웃	2.2	2.1	2.9	-	
	정부	0.8	0.9	-	-	
	도움받을 곳 없음	27.8	21.5	17.1	69.2	

* $p < 0.05$, ** $p < 0.01$, *** $p < 0.001$

3) 요약 및 시사점

- 여성가구주 가구는 모든 면에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열악함.
 -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조건도 열악하며, 결과적으로 가구소득, 자가거주율 모두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낮음.
 -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여성가구는 혼자 사는 여성노인임. 이들은 고령의 저학력, 저소득 가구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집단임.
- 여성가구주 가구는 가구 유형별로 문제영역이 달라 맞춤형으로 접근이 필요함.
 - 이들 중 맞벌이 여성가구는 경제상태는 가장 양호하지만, 지원체계는 가장 열악함. 여성이 가구주인 맞벌이가구는 걱정거리가 있어도 상의할 대상이 없다는 비율이 33.3%(전체 평균 14.2%)이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은 69.2%에 달함(전체 평균 23.7%).
 - 한편, 모자가구는 가정내 근심거리가 가장 많은 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자녀양육과 부채 부담이 큰 가구임.
- 자녀양육 문제는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가구주의 공통적인 관심사임.
 - 경제적 어려움이나 걱정거리를 상의할 사회적 네트워크도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은 중요한 정책과제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연령층이 많은 모자가구와 맞벌이가구 여성가구주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임.
 - 여성가구주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육비/교육비 지원(20.8%)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 강화(20.1%)를 가장 많이 희망함. 보육시설 공급과 시간제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임.
 - 반대로 직장문화의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지 않음. 즉 사회 전반이 변화하기 전이라도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임.
 - 그러나 가구유형에 따라 욕구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 보육료나 보육시설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은 맞벌이가구의 여성인 반면, 모자가구와 1인 미혼여성들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높음.

[표 3-33]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필요 지원	여성가구주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유형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1인 미혼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시행 강화	20.1	18.5	24.6	18.7
보육비, 교육비 지원	20.8	19.6	25.6	20.2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 등 보육환경 개선	18.4	18.7	22.9	19.1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제공	17.2	16.8	16.7	14.9
유연근무제 확대	12.5	15.4	2.0	15.8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6.0	7.4	0.7	5.4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4.9	3.6	7.6	6.0
계	100.0	100.0	100.0	100.0

주1.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값임.



04

소득과 빈곤

- 1_빈곤과 불평등 실태
- 2_빈곤가구의 유형과 특성
- 3_부채부담가구
- 4_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04 소득과 빈곤

1_빈곤과 불평등 실태

1) 소득 및 자산 분포

(1) 서울시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4,542만 원

- 가구소득은 2014년 동안 소속 가구원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 가구소득은 시기별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간소득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2014년 1년간의 총소득을 조사하였음.
-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7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구당 근로소득 금액은 연평균 3,606만 원임.
- 근로소득에 이어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순으로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이 큼. 사적이전소득(1.1%)과 공적이전소득(1.0%) 등 이전소득 비중은 전체의 2.1%를 차지함.

[표 4-1] 소득 유형별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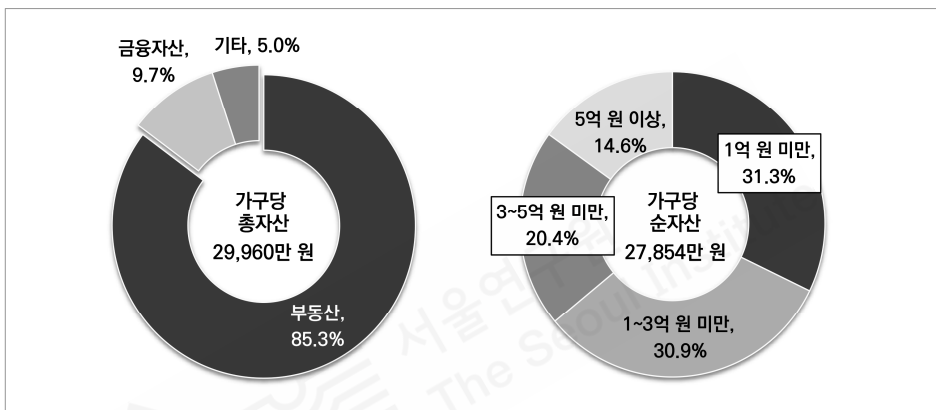
(단위: 만 원,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 수입	전체
평균액	3,606	583	61	195	52	47	33	4,542
구성비	79.4	12.8	1.3	4.3	1.1	1.0	0.7	100.0

(2) 서울시 가구당 평균 자산액은 약 2억 9,960만 원

- 서울시 가구당 평균 자산액은 약 2억 9,960만 원이고, 그 중 85.3%가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됨.

- 부동산 자산은 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가액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차지하고 있음. 그 외 금융자산이 9.7%, 기타 자산이 5%임.
- 가구당 부채액은 평균 2천1백만 원이고 이를 제외하면 순자산액은 평균 2억 7,854만 원임.
-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액은 1억 원 미만이 31.3%로 서울 가구의 1/3 정도는 1억 원도 안 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음. 반면 5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가구도 14.6%에 달함.



[그림 4-1] 가구당 평균 자산규모

2) 소득빈곤과 불평등

(1) 빈곤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물질적 결핍을 빈곤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 물질적 결핍을 빈곤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두 가지 개념이 있음.
- 물질적 결핍 수준이 절대적 빈곤 기준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 하고, 그 사회구성원의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결핍한 상태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함.
- 절대적 빈곤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정의함. 정책

적 활용도 목적으로는 주로 절대 빈곤방식을 사용함.

- 상대적 빈곤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소득이 그 사회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상대빈곤으로 보는 방법임. 상대빈곤 개념은 한 사회의 빈곤수준을 상대 비교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많이 사용함.
- 그러나 소득이나 자원 등 물질적인 수준을 빈곤의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는 개념도 존재함.
 - 물질적 결핍을 넘어 ‘능력(capability) 박탈’을 중시하는 역량접근방식,³⁾ 소득 및 능력박탈을 넘어 다양한 삶의 기회(삶의 질)의 측면에서 결여된 상태를 측정하는 ‘사회적 배제’ 등도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의 하나임(김윤태·서재욱, 2015).
 - 또한 소득이나 자원 등 물질적인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빈곤을 판단하는 주관적 빈곤 개념도 있음.

(2) 서울시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9.6%, 상대빈곤율은 14.3%

- 가구규모에 따라 균등화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가구 중 약 9.6%가 절대 빈곤상태에 있음.⁴⁾
 - 빈곤가구 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인구 빈곤율은 8%임. 개인 특성별 빈곤율은 노인이 24.6%, 아동이 4.8%, 그리고 여성은 8.2%로 나타남. 노인빈곤율은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함.
- 서울시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 빈곤율 14.3%, 인구 빈곤율 10.8%로 절대빈곤율보다 높음. 개별 인구집단별로는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7.0%로 가장 높고, 아동을 8.0%, 여성은 11.4%가 빈곤한 상태임.
 - 상대빈곤율을 결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을 어떤 집단의 중위소득으로 할 것

3) 역량접근방식(능력박탈)을 측정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상이한데, 국제연합(UN)은 교육지표, 건강지표, 생활수준 지표로 구성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빈곤지표로 빈곤을 측정함.

4) 2015년 조사에서 소득자료는 2014년 1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하였음.

인가에 따라 빈곤율이 다를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음.

[표 4-2] 서울시 빈곤율

(단위: %)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가구빈곤율			9.6	14.3
인구빈곤율	전체		8.0	10.8
	대상별	노인	24.6	37.0
		아동	4.8	8.0
		여성	8.2	11.4

주1. 유효퍼센트 기준

주2. 빈곤율 산출에 활용된 소득은 경상소득임.

주3. 절대빈곤율은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계측

주4. 상대빈곤율은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계측

(3) 지니계수는 0.336으로 전국 평균보다 불평등도가 높은 편

-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만, 빈곤의 심도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도 분석이 필요함.
- 빈곤인구 소득과 절대 빈곤선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갭 비율은 22.4%, 빈곤갭 비율은 2.2%로 확인됨. 소득 지니계수는 0.336으로 산출되었음.
- 한편,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6.96임. 즉,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6.96배에 달함.

[표 4-3] 빈곤의 심도

(단위: 만 원, %)

	절대빈곤	상대빈곤
소득갭(만 원)	61.8	57.1
소득갭 비율	22.4	14.0
빈곤갭 비율	2.2	2.0

[표 4-4] 불균등 정도

	지수값
소득 5분위 배율	6.96
지니계수	0.33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빈곤통계연보와 비교하면 서울은 대부분의 빈곤율과 불평등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함.
- 절대 및 상대빈곤율 모두에서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보다 높으며, 불평등 지표인 소득점유 배율과 지니계수도 서울이 더 높음.
- 다만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는 소득갭과 빈곤갭 비율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수준의 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 4-5] 빈곤 및 불평등 지표 비교

빈곤 및 불평등 지표			2015 빈곤통계연보		2015 서울복지실태 조사
			전 가구	도시 근로자가구	
빈곤율(%)	가구 빈곤율	절대빈곤율	12.3	3.6	9.6
		상대빈곤율	18.9	10.6	14.3
	인구별 상대빈곤율	아동	7.0	6.0	8.0
		노인	49.5	36.1	37.0
빈곤정도(%)	소득갭 비율	최저생계비 기준	36.9	25.0	22.4
		중위 50% 기준	37.9	24.6	14.0
	빈곤갭 비율	최저생계비 기준	2.8	0.6	2.2
		중위 50% 기준	5.2	2.0	2.0
불평등지표	소득점유 배율		5.3	4.0	6.96
	지니계수		0.302	0.271	0.336

주1. 소득기준은 경상소득으로 비교함.

주2. 전 가구는 농어가 가구를 제외하여 산출

주3. 빈곤통계연보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1인 가구를 포함한 2014년 수치임.

3) 자산빈곤과 불평등

(1) 자산빈곤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개념이 존재

- 자산은 소득과 다른 속성의 경제적 자원으로, 자산빈곤 및 불평등은 소득 못지않게 그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
- 특히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득불평등보다 자

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신진옥, 2013), 이로 인해 자산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 자산빈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첫째, 기준이 되는 자산의 유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임.
- 기준이 되는 자산의 유형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대표적으로 사용됨. 그러나 쉽게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만을 기준으로 보거나, 혹은 순자산에서 필수재산인 주거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산빈곤 여부를 측정하기도 함.

[표 4-6] 자산빈곤의 정의 및 측정

출처	자산빈곤 정의 및 측정
Oliver & Shapiro(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가 소유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0' 또는 음(negative)일 경우
Haveman & Wolff(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가구의 자산유형의 자원(wealth-type resources)에 대한 접근이 일정기간 동안의 기초욕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일정기간: 소득빈곤선의 3개월분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유형: 순자산, 순자산-주거자산, 유동자산 자산유형의 자원이 5,000달러 이하: "절대자산빈곤"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자산 < (예비적 저축률 × 소득빈곤선)
이태진·신영석·김미곤·노대명(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자산: 순자산 (부동산 + 동산 + 금융자산 - 부채) 자산빈곤선을 기준자산에 대한 중위자산의 50%로 설정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한 뒤, OECD기준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
남상호·권순현(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자산빈곤: 중위자산의 50% 이하
남상호(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대자산빈곤: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 상대자산빈곤: 상대소득빈곤의 소득을 순자산으로 대체하여 순자산 중위값의 40~60%에 미달하는 가구
이상은·이은혜·정찬미(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순자산 사용 자산빈곤선: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에 해당되는 자산액
김명규·임병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순자산 사용 자산빈곤선: 최저생계비의 6개월분에 해당되는 자산액

자료: 이상은·이은혜·정찬미(2011)와 김명규·임병인(2014)을 토대로 재구성.

- 두 번째 문제는 빈곤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자산도 소득빈곤 측정과 마찬가지로 '절대자산빈곤'과 '상대자산빈곤'의 개념으로 측정 가능함.

- 절대자산빈곤은 그 가구의 자산 총액이 일정기간 동안의 기초육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상태를 의미함(Haveman & Wolff, 2001). 국내에서는 ‘자산액이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또는 6개월분 미만인 가구’를 자산빈곤가구로 정의함(남상호, 2009; 이상은·이은혜·정찬미, 2011).
- 한편, 상대자산빈곤은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보통 ‘가구의 자산액이 전체 중위값의 50% 미만인 가구’로 정의함.

(2) 서울시 가구의 약 5~6%가 절대적 자산빈곤 상태

- 이 연구에서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절대자산빈곤과 상대자산빈곤을 모두 검토하였음.
 - 절대자산빈곤가구는 ‘가구의 순자산이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미만인 가구’와 ‘가구의 순자산이 최저생계비의 6개월분 미만인 가구’로 각각 살펴보았음.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 절대자산빈곤율은 각각 4.8%와 5.6%임.
 - 한편, 중위 순자산액의 50% 미만인 상대자산빈곤율은 28.9%임. 이는 앞에서 분석한 상대적인 소득빈곤가구 비율(14.3%)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임.
-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총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09,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34로, 서울시민의 소득 지니계수 0.336보다 높음.
 - 절대빈곤율은 자산보다 소득이 높지만,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는 자산에서 더 높음.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표 4-7] 자산빈곤 및 자산불평등

	기준		자산	소득
자산빈곤율(%)	절대빈곤(1)	순자산<최저생계비 3개월치	4.8	9.6
	절대빈곤(2)	순자산<최저생계비 6개월치	5.6	
	상대빈곤	중위 순자산액의 50% 미만	28.9	14.3
자산 불평등도	지니계수(1)	총자산 기준	0.509	0.336
	지니계수(2)	순자산 기준	0.534	

주1. 소득빈곤과 불평등도는 경상소득 기준

4) 요약 및 시사점

- 서울의 소득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
 - 빈곤통계연보와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절대 및 상대빈곤율은 가구단위와 인구단위 모두에서 더 높으며, 불평등 지표인 소득점유 배율과 지니계수도 서울이 더 높았음.
 - 특히 노인의 24.6%가 절대빈곤층에 해당되고, 37%는 상대빈곤층임. 빈곤통계연보에서 전국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49.5%인 것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빈곤 수준임.
 -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도 광범위함. 소득보장은 중앙정부의 임무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노인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서구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번 분석을 통해 서울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됨.
 - 총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09,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34로, 서울시민의 소득 지니계수 0.336보다 높음. 또한 절대빈곤율은 자산보다 소득이 높지만,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는 자산 불평등도가 더 높음.
 - 사회가 발전할수록 절대빈곤문제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이런 점에서 절대적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
 - 서울시 가구의 자산에서 부동산, 특히 살고 있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 해소는 단순히 경제나 복지정책의 문제를 넘어섬.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역개발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공간정책 측면에서도 접근할 문제가 많음.

2_빈곤가구의 유형과 특성

1) 빈곤가구의 유형 구분

(1) 빈곤선에 따라 가구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

- 서울시민들의 빈곤 및 불평등 상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가구를 구분하고 유형별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 가구유형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대 빈곤가구, 상대빈곤가구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가구, 그리고 빈곤하지 않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음.
- 절대빈곤가구는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가구로 구분됨.
 - 비수급 빈곤가구는 가구 균등화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미만으로 절대 빈곤상태이지만 법정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집단임.
- 상대적 빈곤층은 가구 균등화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함.
 -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을 차상위, 120~150% 미만을 차차상위라고 하지만, 표본가구 중 최저생계비 100~120% 미만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적어 최저생계비 100~150% 미만을 묶어 차상위가구로 통칭하였음.
 -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로 정의되지만, 2015년 서울복지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최저생계비 150% 수준과 중위소득 50% 수준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상대적 빈곤가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3인 가구를 기준으로 2014년 차상위 기준선인 최저생계비 150% 금액이 월 199만 원이고,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중위소득 50%는 월 188만 원 (2014년 소득)으로 확인되었음.

- 빈곤선에 따른 가구 유형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음. 전체 표본가구 중 3.9%가 절대 빈곤가구, 5.5%가 상대빈곤가구로 분류됨.

[표 4-8] 빈곤선에 따른 가구유형 구분

(단위: 가구, %)

가구유형	소득기준	사례수	구성비
(1) 기초수급가구 } (절대빈곤가구)	최저생계비 100% 미만	35	1.3
(2) 비수급 빈곤가구 }		67	2.6
(3) 차상위가구 } (상대빈곤가구)	최저생계비 100~150% 미만	143	5.5
(4) 일반가구 } (비빈곤가구)	최저생계비 150% 이상	2,365	90.6
합계		2,611	100.0

주1. 소득기준은 가구균등화 총소득

(2) 소득데이터와 국민기초보장 수급정보를 토대로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

- 전체 표본가구는 3,019가구이지만,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정하기 위해 이상치(outlier) 값을 보인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본인이 기초보장수급자라고 응답한 가구 중 일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는 조사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소득은 2014년 소득을 조사한 반면 기초수급대상자 여부는 현재 상태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구 유형별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인 가구만을 수급가구로 정의하고 분석에 포함하였음. 결과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최종 사례수는 2,611가구임.
- 분석에 사용된 기초수급가구 표본은 35가구로 전체의 1.3%를 차지함.
 - 기초수급가구 사례수가 작아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기초보장 수급률이 1.9%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1.3%의 표본을 기초수급가구로 분석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2) 가구 및 가구주 특성

(1) 빈곤가구 유형에 따라 가구형태와 가구주 특성에 차이

- 소득계층별로 가구구성 형태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빈곤가구 유형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가구는 단독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2세대 이상 가구 비중이 높음.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도 일반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향을 보임.

[표 4-9] 빈곤 상태별 가구구성 형태

(단위: %)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chi^2(p)$
가구구성	단독가구	35.3	32.8	38.2	22.0	87.005 (.000)***
	1세대 가구	23.5	28.4	25.7	16.9	
	2세대 가구	38.2	23.9	31.3	57.9	
	3세대 이상	2.9	14.9	4.9	3.3	
가구원 수	1인	35.3	32.8	38.2	22.0	65.668 (.000)***
	2인	26.5	34.3	32.6	21.4	
	3인	5.9	13.4	12.5	24.0	
	4인 이상	32.4	19.4	16.7	32.6	
	(평균)	(2.5명)	(2.5명)	(2.1명)	(2.7명)	
계		100.0	100.0	100.0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 가구주 특성에서도 빈곤가구와 일반가구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절대빈곤가구 내에서도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빈곤가구의 가구주는 여성, 고령, 저학력 비중이 높은 편임. 그러나 빈곤가구 중에서도 수급가구보다 비수급 빈곤가구와 차상위 가구에서 여성의 고령가구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비수급 빈곤가구 중 7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이 높은 것은 시사점이 있음. 고령자는 소득으로는 절대빈곤 상태이지만 기초보장제도의 자산기준과

부양가족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가구의 빈곤여부는 가구주 학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간에 가장 큰 차이는 가구주 학력임. 비빈곤가구 가구주의 56.1%가 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빈곤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음.
 -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질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이것이 가구의 경제상태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4-10] 빈곤가구 가구주 특성

(단위: %)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X^2(p)$
성별	남자	65.7	59.7	59.4	76.4	31.030 (.000)***
	여자	34.3	40.3	40.6	23.6	
연령	20대 이하	5.9	10.4	16.7	5.5	385.202 (.000)***
	30-40대	41.2	23.9	16.0	52.4	
	50-60대	20.6	31.3	38.2	39.0	
	70대 이상	32.4	34.3	29.2	3.1	
학력	중학교 이하	44.4	31.3	44.1	5.5	421.513 (.000)***
	고등학교	30.6	43.3	32.9	38.4	
	대학 이상	25.0	25.4	23.1	56.1	
계		100.0	100.0	100.0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2)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이 가구경제 수준 차이를 초래

-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차이는 가구주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침.
 - 빈곤가구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아 근로능력 자체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 그나마 차상위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4%로 빈곤가구 중 가장 높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용여건이 좋지 않음. 일반가구 가구주의 64.5%가 상용직인 반면, 빈곤가구 가구주의 상용직 비율은 20% 미만임.

- 일을 하고 싶지만 일거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 비율도 수급가구에서 5.7%로 높은 편임.

[표 4-11] 빈곤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단위: %)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 가구	일반가구	$\chi^2(p)$
근로 능력	근로가능	41.2	58.2	73.4	94.9	396.284 (.000)***
	근로능력 미약	20.6	29.8	15.4	3.3	
	근로능력 없음	38.2	11.9	11.2	1.8	
경제 활동 상태	경제활동참여	37.2	54.4	60.4	92.4	599.287 (.000)***
	상용 임금근로	14.3	16.2	18.1	6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5.7	29.4	35.4	11.5	
	고용주	-	1.5	2.1	4.0	
	자영업	5.7	5.9	4.2	11.9	
	공공근로	11.4	1.5	0.7	0.2	
	실업	5.7	1.5	-	0.5	
비경제활동		57.1	44.1	39.6	7.1	
계		100.0	100.0	100.0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 이러한 가구주의 경제활동 특성이 가구소득에 그대로 반영되어 빈곤가구와 비빈곤 가구 간 소득격차가 발생함.
 - 서울시 전체 가구의 연간 총소득 평균은 4천4백만 원임. 이에 비해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847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19.2%에 불과하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소득도 1,008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2.8%임.
 - 차상위가구의 소득은 1,582만 원으로 수급가구보다는 약 1.9배 많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 대비 35.8% 수준임.
-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생활을 하고 있음.
 - 비빈곤가구는 전체 소득 중 62%를 생활비로 지출하는 반면, 절대빈곤가구는 모든 유형에서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고 있음.

[표 4-12] 빈곤가구의 소득과 지출

(단위: 만 원, %)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전체
연간 총소득		847	1,008	1,582	4,746	4,424
소득 배율	전체 평균 대비	19.2	22.8	35.8	107.3	100.0
	일반가구 대비	17.9	21.2	33.3	100.0	-
생활비 지출/소득 비중		115.5	114.3	88.6	62.0	62.9

(3)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과 부채도 함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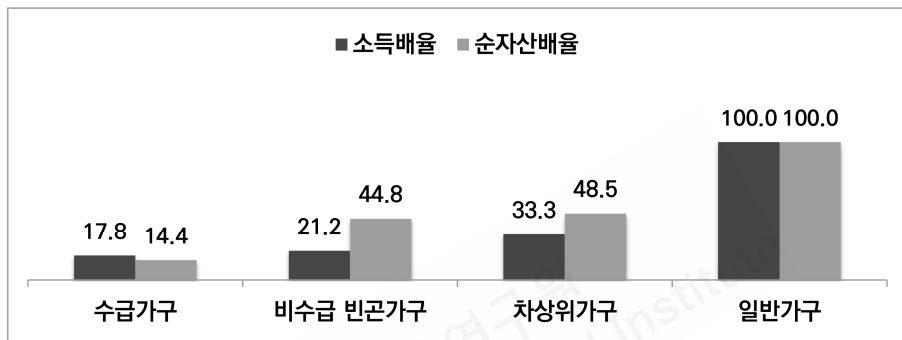
- 가구당 평균 자산 보유액은 약 3억 원인데, 수급가구는 전체 평균의 14.8% 수준인 4천4백만 원에 불과함.
 - 비수급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는 모두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보장수급가구보다는 3배 이상 많음.
-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를 가진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부채액도 함께 증가함.
 - 일반가구는 38.7%가 부채를 갖고 있는 반면에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각각 14.3%와 18.9%만이 부채를 가지고 있음.
 -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액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많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액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증가함.

[표 4-13] 빈곤가구의 자산과 부채

(단위: 만 원, %)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전체
총자산	없는 비율	11.1	13.4	4.2	1.1	2.3
	평균액	4,444	14,302	15,303	31,592	29,960
	자산 없음 제외	4,938	16,477	15,954	31,932	30,656
부채	없는 비율	85.7	74.6	81.1	61.3	64.1
	평균액	234	1,178	1,094	2,319	2,107
	부채 없음 제외	1,774	4,549	5,798	5,988	5,871
순자산 평균액		4,210	13,125	14,209	29,271	27,854

- 일반가구의 소득과 순자산액을 100으로 볼 때, 빈곤가구 유형별 소득과 자산의 수준은 아래 그림과 같음.
 - 수급가구의 소득은 일반가구의 17.8%이고 자산은 14.4%임. 소득보다 자산에서 불평등 정도가 더 심각함을 보여줌.
 - 그러나 비수급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일반가구와 비교하면 자산보다 소득에서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그림 4-2]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

-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특히 살고 있는 주택임. 따라서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자산에 차이가 나타남.
 - 비수급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소득은 적지만 자가점유율은 높은 편임. 이들이 기초보장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때문으로 추측됨. 특히 보유한 자가의 평균가격이 비수급 빈곤가구는 3억 4천여만 원으로 일반가구 자가 평균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비수급 빈곤가구 가구주의 34.3%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임([표 4-10] 참조). 이들은 고령이기 때문에 현금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 기초보장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임.

[표 4-14] 빈곤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단위: 만 원, %)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X^2(p)$ or $F(p)$
주택 점유형태	자가	2.9	29.9	35.0	39.8	175.809(.000)***
	전세	22.9	22.4	28.7	44.0	
	월세	74.3	40.3	35.7	15.1	
	무상/기타	0.0	7.5	0.7	1.0	
자가주택 평균가격		21,937	34,581	30,092	42,466	4,378(.005)***

* $p < 0.05$, ** $p < 0.01$, *** $p < 0.001$

(4) 빈곤가구는 기초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채를 사용

- 절대빈곤가구는 생활비 지출액이 소득을 초과하지만 빚을 지는 가구는 많지 않음.
 - 그러나 부채의 용도를 살펴보면 적자 생활을 하고 있는 빈곤가구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부채의 용도는 대체로 주택관련 비용을 위해 빚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가구 유형별로 차이를 보임.
 - 수급가구는 전월세 보증금 다음으로 의료비로 쓰기 위해 빚을 지고 있고, 비수급 빈곤가구는 32.5%가 생활비로 쓰기 위해 빚을 지고 있음.
 - 고령자가 많은 절대빈곤가구들 가운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 비율은 많지 않지만, 그 용도가 생활비나 의료비라는 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됨. 즉, 이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소득만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생활비와 같은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차상위가구도 주택관련 비용 다음으로 생활비 용도가 많고, 부채상환이나 사업자금 용도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차상위가구는 수급가구나 비수급 빈곤가구에 비해 연령이 낮아 여전히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됨.
 - 일반가구는 모든 집단 중 교육비 용도로 빚을 진 경우가 가장 많은 집단임.

일반가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30~40대로 다른 가구에 비해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세대이기 때문이다.

[표 4-15] 빈곤가구의 부채 용도

(단위: %)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chi^2(p)$
주택 구입비용(거주용)	-	12.2	29.3	33.1	116.906 (.000)***
주택 전월세 보증금	82.2	20.5	12.6	24.8	
교육비	-	7.6	2.3	11.3	
의료비	6.7	-	4.7	1.6	
생활비	-	32.5	17.5	14.1	
결혼 또는 분가 비용	-	7.1	8.5	2.3	
이자지불/부채상환	-	3.3	11.4	4.2	
투자/사업자금	-	16.7	11.5	8.3	
계	100.0	100.0	100.0	100.0	

주1. 부채사유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다중응답 값임.

* $p < 0.05$, ** $p < 0.01$, *** $p < 0.001$

3) 물질적 결핍과 복지욕구

(1) 비수급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도 물질적 결핍을 많이 경험

-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6가지 기초생활 항목에서 지난 1년간 결핍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수급가구에서 가장 높은 결핍률을 보임.
 - 수급가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결핍경험이 높은 편이지만, 비수급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도 일부 항목에서 높은 결핍률을 보임.
 -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22.1%가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의료접근성에서 가장 취약하며, 공과금 연체도 22.9%가 경험하여 높은 결핍률을 보임.
- 차상위가구는 절대빈곤가구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공교육비 미납경험이 5.6%로 가장 높음.

- 절대빈곤가구와 달리 차상위가구는 2세대 가구형태로 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일차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맞춤형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교육급여 수급대상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선까지 높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추측됨.

[표 4-16] 빈곤가구의 기초생활 결핍경험

(단위: %)

구분	전 가구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난방 중단	9.2	30.4	19.0	19.6	8.1
집세 연체	5.8	31.9	12.8	10	5.1
공과금 연체	9.7	38.8	22.9	10.7	9.1
공교육비 미납	1.0	0.0	1.7	5.6	0.8
결식 또는 감식	1.7	26.8	2.9	0.0	1.5
의료서비스 미이용	2.4	13.1	22.1	7.2	1.4

주1. 유효퍼센트 기준임.

(2) 기초생활비 지출 부담도 빈곤가구에서 높은 편

- 기초생활 항목의 결핍경험과 관련된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가구의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앞의 결핍경험 항목 가운데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초생활 항목의 지출액은 난방비, 집세, 의료비 등임.
 - 서울시 전 가구의 월평균 난방비 지출액은 15만 원인 데 비해 빈곤가구들은 모두 이보다 적은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대비 난방비 지출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이유에서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난방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됨.
- 전 가구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월 6만 원 정도인 데 비해 빈곤가구는 평균보다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고,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비중도 매우 높음. 이는 빈곤 가구가 주로 고령자 가구이기 때문임.

- 수급가구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13.86%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액이 10%를 넘으면 의료비 과다 부담가구로 간주함.
- 비수급 빈곤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비중도 평균 7.2%로 높은 편임. 앞에서 비수급 빈곤가구는 의료접근성에서 가장 높은 결핍률을 보였음.
- 월세 부담은 비수급 빈곤가구에서 가장 높음. 서울시 월세 거주가구의 소득대비 월세 부담비율은 평균 18.42%인데, 비수급 빈곤가구는 42%에 달함.
- 일반적으로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과다 부담가구로 간주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가구 모두 30%를 넘음.
- 수급가구는 임대주택 등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거상황이 비수급 빈곤가구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임.

[표 4-17] 기초생활향목 지출

(단위: 만 원, %)

구분		전 가구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 가구	일반가구
난방비	월평균 지출액	15.36	8.56	13.10	13.74	15.68
	소득대비 평균비중	5.34	13.23	17.33	11.19	4.51
의료비	월평균 지출액	5.95	10.03	7.83	7.26	5.70
	소득대비 평균비중	2.03	13.86	7.20	4.58	1.52
월세	월평균 지출액	33.04	21.82	28.34	25.10	35.50
	소득대비 평균비중	18.42	30.88	42.08	23.29	14.87

-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이용희망이 가장 많음. 비수급 빈곤가구의 74.6%, 차상위가구의 67.1%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희망하고 있음.

- 국가의 긴급복지사업에 부가하여 서울시가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희망률도 높은 편임.

[표 4-18] 기초복지 희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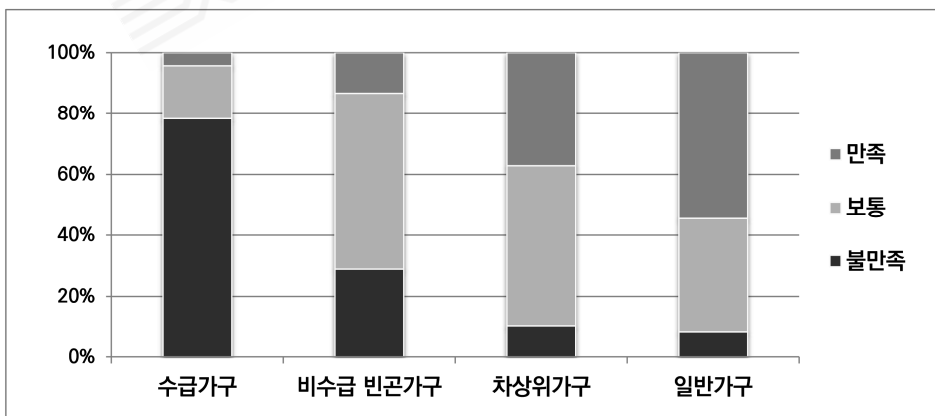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chi^2(p)$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82.9	74.6	67.1	42.0	81.125 (.000)***
긴급복지사업	65.7	68.7	62.2	44.6	
희망플러스통장	68.6	58.2	50.0	45.9	

* $p < 0.05$, ** $p < 0.01$, *** $p < 0.001$

4) 생활실태

(1) 물질적 결핍은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

-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수급가구는 78.3%가 현재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8.1%만 불만족함.
- 즉, 열악한 경제사정은 가족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됨.



[그림 4-3] 빈곤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

(2) 빈곤가구는 사회적 지원체계도 빈약

- 빈곤가구들은 걱정거리를 상의할 사회적, 정서적 지원체계보다 경제적 지원체계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걱정거리가 있을 때 상의할 대상이 없다는 비율이 일반가구에서 12.6%인 데 비해 수급가구는 36.1%, 비수급 빈곤가구는 31.8%, 차상위가구도 26.9%가 상의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함.
 -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일반가구에서 23.3%인 반면, 수급가구는 42.9%, 비수급 빈곤가구는 36.4%, 차상위가구도 32.9%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표 4-19] 빈곤가구의 사회적 지원체계

(단위: %)

		수급가구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 가구	일반가구	$\chi^2(p)$
동거가족 이외에 걱정거리 상의 대상	따로 사는 부모	5.6	7.6	7.6	17.3	206.967 (.000)***
	따로 사는 자녀	11.1	18.2	24.1	5.8	
	기타 친인척	2.8	4.5	4.8	8.9	
	친구, 동료	33.3	25.8	27.6	48.1	
	이웃	8.3	4.5	2.8	2.5	
	전문 상담가	0.0	0.0	0.7	1.1	
	종교인	2.8	4.5	5.5	3.6	
	상의할 곳 없음	36.1	31.8	26.9	12.6	
동거가족 이외에 경제적 도움 받을 대상	따로 사는 부모	5.7	7.6	12.6	30.5	210.102 (.000)***
	따로 사는 자녀	11.4	21.2	26.6	5.6	
	기타 친인척	5.7	12.1	3.5	9.8	
	친구, 동료	17.1	16.7	20.3	27.6	
	이웃	11.4	3.0	1.4	1.7	
	회사	0.0	0.0	0.0	0.4	
	정부	5.7	0.0	2.8	0.8	
	도움받을 곳 없음	42.9	36.4	32.9	23.3	

* $p < 0.05$, ** $p < 0.01$, *** $p < 0.001$

5) 요약 및 시사점

- 비수급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수급가구만큼 열악한 상태이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가구는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임. 더구나 비수급 빈곤가구는 단독가구, 고령가구주가 많다는 점에서 수급가구와 유사함에도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상대빈곤가구(차상위가구)는 절대빈곤가구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도는 높으나 임시·일용직이 많아 근로소득이 높지 않음. 결과적으로 절대빈곤가구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 항목에서 높은 결핍경험을 하고 있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
 - 비수급 빈곤가구는 공과금 연체와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많았음. 비수급 빈곤가구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여전히 자녀 교육부담을 갖고 있는 차상위가구는 공교육비 미납 경험률이 높았고, 교육비로 쓰기 위해 부채를 지게 된 가구도 많음.
- 비수급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자가 보유가 기초보장 수급대상으로 선정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비수급 빈곤가구는 소득수준은 절대빈곤 상태이지만 자가점유율이 29.9%로 높은 편이고 자가 주택의 평균가격도 3억 원을 넘어 일반가구의 자가액과 큰 차이가 없음. 비수급 빈곤가구 가구주의 34.3%가 7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에서 자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차상위 가구의 교육급여 수급은 여전히 제한적임.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차상위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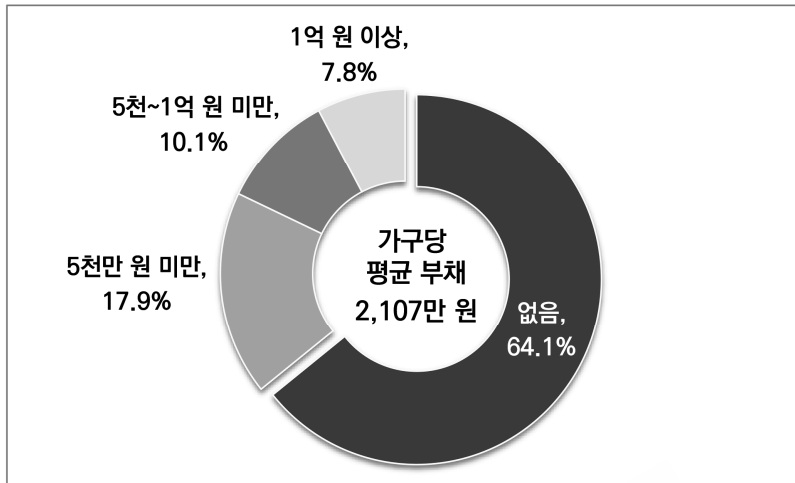
- 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적지만, 그 용도가 의료비와 생활비 등 기초생활 항목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의료비와 생활비와 같은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은 공공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특히 절대빈곤가구의 상당수는 고령자라는 점에서 의료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빈곤한 고령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태임.
- 빈곤가구는 가구주의 특성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가족관계, 정신건강 등 비경제적 문제를 동반함.
 -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가구주가 고령, 여성, 저학력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 빈곤가구는 가구원 수가 적어 소득원이 적은 것도 특징임.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구소득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 열악한 경제상태는 가족관계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고, 우울 경험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됨.
 - 빈곤가구는 다양한 분야의 위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대책도 경제, 사회적으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3_부채부담가구

1) 부채 현황

(1) 서울시 가구의 36%가 부채가 있고, 평균 부채액은 2,107만 원

- 서울시 가구 중 64.1%가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17.9%가 5천만 원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 서울시 전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107만 원이고, 부채가 없는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5,871만 원임. 그러나 부채가 1억 원이 넘는 가구도 7.8%임.



[그림 4-4] 부채규모 분포

(2)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부채도 더 많은 경향

- 가구특성에 따라 부채율과 부채금액에 차이가 있음.
 - 가구주가 남성이고 40~50대인 가구에서 부채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고 평균 부채금액도 높음.
 - 가구특성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 부채율과 부채금액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임. 그러나 부채율은 소득 4분위 집단, 그리고 전 세거주 가구에서 가장 높음.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부채보유가구들은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 남성가구주 가구들이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부채도 더 많은 경향을 보임.
 - 부채를 생활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용에 충당하려는 빈곤가정도 있지만, 주택구입이나 사업자금 등 투자 목적으로 부채를 가지는 경우도 있음.
 - 40~50대 남성가구주 가구, 그리고 소득 4-5분위 고소득 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가계경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다시 말해서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가계가 어려운 가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표 4-20]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부채 비율

(단위: %, 만 원)

		부채율	평균 부채액
전 가구		35.9	5,871
가구주 성별	남자	38.3	6,190
	여자	28.9	4,651
가구주 연령	20-30대	36.2	4,786
	40-50대	42.2	6,559
	60대 이상	22.9	5,596
가구소득	소득 1분위	19.5	3,655
	소득 2분위	35.8	3,246
	소득 3분위	41.0	5,686
	소득 4분위	45.2	6,473
	소득 5분위	43.6	8,912
주택소유형태	자가	38.0	7,762
	전세	40.4	4,757
	월세	20.3	3,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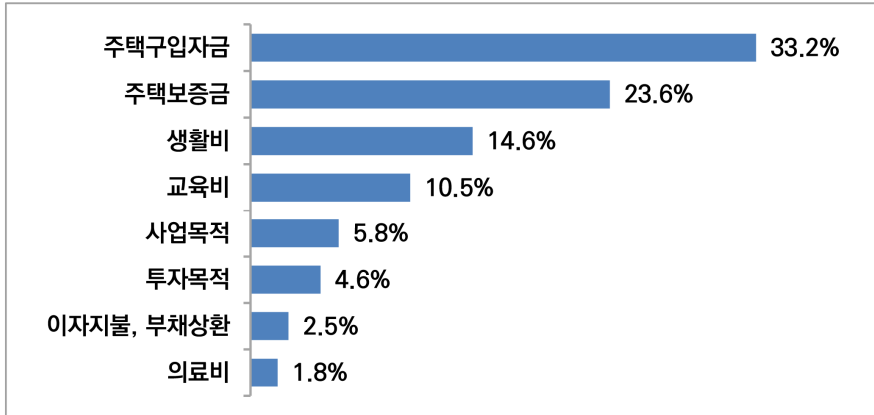
주1. 결측값을 제외한 비율임.

주2. 평균부채액은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임.

2) 부채의 용도와 출처

(1) 부채는 주거관련 용도에 가장 많이 사용

- 부채의 용도는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어서 생활비, 교육비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집단에서 주거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가장 많으나, 그 외의 부채 용도는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그림 4-5] 부채 용도

(2) 소득수준에 따라 부채의 이용목적에 차이

-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투자적 용도로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소득 가구는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빚을 지는 경향을 보임.
 - 앞에서 40~50대 남성가구주 가구의 부채율과 부채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가 거주 가구일수록 주택구입 용도로 부채를 사용함. 이는 상당수 자가 거주 가구가 부채가 있는 하우스푸어(house poor)일 가능성을 보여줌.
 - 주거관련 항목 다음으로 교육비 용도로 빚을 지는 사례가 많음. 이들의 연령대가 자녀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는 것과 일치함. 교육비가 필수적인 지출항목이지만 생활비나 의료비보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성격의 지출로 볼 수 있음.
 - 반면, 60대 이상,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는 생활비 목적으로 빚을 지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음. 소득수준이 낮고 월세 거주 가구에서도 생활비 용도가 많음. 이들은 의료비로 쓰기 위해 빚을 진 경우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상당수 가구가 투자나 사업자금 목적으로 부채를 갖고 있음. 전체 부채가구 중 10.4%가 이러한 목적으로 부채를 갖고 있음.

- 투자나 사업목적으로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는 주로 소득 4~5분위 고소득 가구, 그리고 자가 거주 가구임. 가구주 특성에서는 남성, 60대 가구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복지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투자목적으로 빚을 갖는 가구보다 생활비, 의료비 등 생활필수 경비에 쓰기 위해 빚을 진 가구가 우선적인 관심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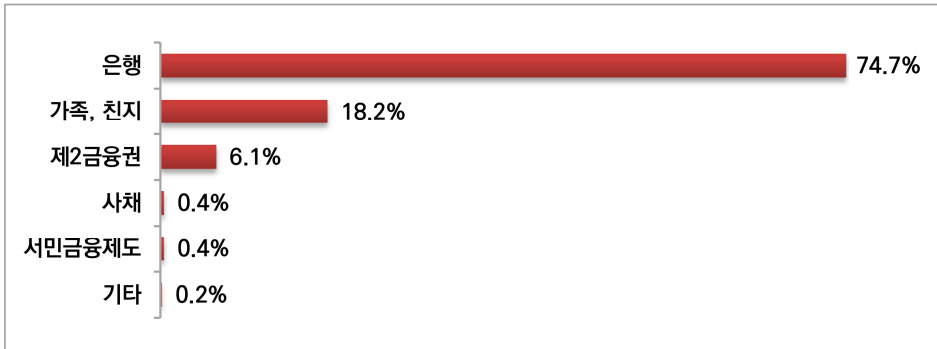
[표 4-21] 가구특성별 부채 용도

(단위: %)

		주택 구입 비용	주택 전월세 보증금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이자, 부채 상환	투자 사업 자금	자녀 결혼 비용	$\chi^2(p)$
가구주 성별	남자	34.9	22.0	11.7	1.8	13.5	4.5	9.0	2.6	42.433 (.000)***
	여자	25.9	30.0	7.3	2.1	19.7	5.4	7.7	2.0	
가구주 연령	20-30대	24.6	41.1	3.9	1.5	15.7	5.3	5.8	2.0	376.197 (.000)***
	40-50대	36.6	16.8	16.5	1.1	13.6	4.7	9.9	0.9	
	60대 이상	36.5	14.8	1.9	5.7	17.0	3.3	10.7	10.0	
가구소득	소득 1분위	20.9	26.4	6.8	2.9	25.6	8.6	4.9	3.9	245.174 (.000)***
	소득 2분위	22.5	32.1	3.8	3.9	22.9	5.0	6.7	3.1	
	소득 3분위	31.1	30.2	12.3	1.3	10.6	4.8	7.2	2.4	
	소득 4분위	41.9	18.0	15.4	1.1	11.3	2.8	8.7	0.9	
	소득 5분위	36.5	20.4	13.8	0.7	9.0	4.3	11.9	3.3	
주택소유 형태	자가	54.2	3.3	11.8	1.3	10.2	4.0	11.4	3.7	813.375 (.000)***
	전세	18.1	40.8	10.8	1.8	15.9	4.1	6.9	1.6	
	월세	17.4	31.7	7.8	3.0	23.4	9.0	6.1	1.7	

(3) 부채의 출처는 은행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74.7%로 대부분

-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6.1%, 0.4%임.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0.4%에 불과함.



[그림 4-6] 부채 대출 출처

3) 이자지출 부담 정도

(1) 이자 지출액은 월평균 17만 5천 원 정도이고, 소득대비 평균 4.6% 수준

-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가 지불하는 이자는 월평균 17만 5천 원임.
 -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액도 높음.
 -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이자액은 26만 7천 원으로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이자액 7만 9천 원보다 약 3.4배 많음.

(2) 저소득 가구는 이자액은 적으나 소득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소득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가 6.7%로 가장 높음. 저소득가구는 부채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구소득이 적어 이자부담 비율은 높은 것임.
 - 전체 가구 중 이자지출액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9.1%인데, 소득하위 1분위 가구 중 이자부담이 10%를 넘는 가구는 21.6%로 매우 높음.

[표 4-22] 부채가구의 이자부담

(단위: 만 원, %)

		월평균 이자액 (만 원)	소득대비 이자지출 비중(%)					평균
			2.5% 미만	2.5~5%	5~7.5%	7.5~10%	10% 이상	
부채가구 전체		17.54	40.0	27.4	16.6	7.0	9.1	4.6
소득 계층	소득 1분위	7.92	41.1	20.0	10.6	6.8	21.6	6.7
	소득 2분위	9.95	51.0	19.0	17.8	4.5	7.7	3.9
	소득 3분위	17.86	32.9	26.9	21.5	8.9	9.8	5.2
	소득 4분위	18.85	38.3	28.5	17.8	8.4	7.0	4.3
	소득 5분위	26.71	37.2	38.1	12.4	6.1	6.3	4.1

주1. 소득은 소득대비 지출비중 상·하위 5%를 제외함.

주2.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4) 부채부담가구

(1) 부채부담가구는 자산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가구

- 보유한 자산에 비해 부채액이 과다하여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가구가 부채부담가구임.
- 부채부담 과다 정도의 주관적 측정방법은 주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된 주관적인 부채부담 인지 정도임. 주관적 부채부담을 측정한 선행연구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23] 주관적 부채부담 측정 관련 선행연구

출처	측정방법
손상희(1995)	단일문항으로 주관적 부채부담 측정
성영애(2006)	부채상환이 가계의 부담스러운 지출항목 1순위인지 여부를 질문
오만숙·현승미(2009)	부채부담 정도를 '부채가 없음', '있으나 큰 걱정 없음', '약간 걱정 있음', '걱정이 많음' 등 네 가지 범주로 측정
곽민주 외(201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

- 객관적 부채부담 과다가구 측정방법은 다양한데, 주로 가계의 총부채액 정도를 보거나 월평균 부채상환액 부담정도로 측정함.
- 총자산 또는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액의 비중을 기준으로 부채부담 여부를 판단하거나 가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채부담 과다가구로 판단하기도 함.

[표 4-24] 부채부담 과다여부 측정 기준

구분	측정방법	준거기준
총부채	총부채 / 금융자산	측정값 > 1.0
	총부채 / 총자산	측정값 > 0.8
부채상환액	월평균 부채상환액 / 월평균 가계소득	측정값 > 0.25
	월평균 지급이자 및 상환액 / 월평균 경상소득	측정값 > 0.25

출처: 최현자 외(2003); 각민주 외(2012)에서 재구성

(2) 서울시 가구 중 부채부담이 과다한 가구는 28.8%

- 부채부담가구를 주관적 측정방법과 객관적 측정방법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주관적 부채부담가구는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매달 지출하는 이자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문항에서 ‘약간 부담된다’ 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를 주관적 부채부담가구로 간주하였음.
- 객관적 부채부담가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그 하나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가구(객관적 기준 ①)’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자산(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객관적 기준 ②)’임.
- 분석 결과, 서울시 전 가구 중 최소 2.7%(객관적 기준 ① 적용)에서 최대 28.8%(객관적 기준 ② 적용)가 부채부담 과다가구로 추정됨.
-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 중 부채부담가구 비율은 객관적 기준 ① 적용 시

7.5%, 객관적 기준 ② 적용 시 80.5%에 달함.

-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은 총자산보다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임.
- 한편 주관적 부채부담가구 비율은 21.2%임. 주관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동시에 객관적(기준 ②)으로도 부채부담이 과다한 가구는 서울시 전 가구 중 17.8%, 부채가 있는 가구 중 49.8%에 해당함.

[표 4-25] 기준별 부채부담가구의 규모

(단위: 가구, %)

		객관적 기준 ①	객관적 기준 ②	주관적 기준	객관 ②×주관적
사례수		80	860	639	532
구성비	전체 표본가구 중	2.7	28.8	21.2	17.8
	부채 있는 가구 중	7.5	80.5	58.2	49.8

주1. 객관적 기준 ①: 총부채/총자산 > 0.8

주2. 객관적 기준 ②: 총부채/금융자산 > 1.0

주3. 주관적 기준: 매달 지출하는 이자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약간 부담 + 매우 부담)

(3) 40~50대 남성가구주, 고소득 가구에서 부채부담가구가 많은 편

- 현금자산인 금융자산 대비 부채액을 보는 객관적 기준 ②를 적용한 부채부담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26]과 같음.
 - [표 4-20]에서 서울시 가구 중 40~50대 남성가구주, 그리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서 부채를 가지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과 유사하게 이러한 유형의 가구에서 부채부담가구 비율도 더 높음.
 - 이들 집단은 부채율뿐만 아니라 부채액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채부담이 과다한 가구로 분류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임.

[표 4-26]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부채부담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집단 내 부채부담가구 비율	부채가구 중 부채부담가구 비율
전체		28.8	80.5
가구주 성별	남자	31.0	81.4
	여자	22.3	77.1
가구주 연령	20-30대	29.0	80.5
	40-50대	33.8	80.2
	60대 이상	18.6	81.5
주거점유형태	자가	31.6	83.3
	전세	31.0	77.3
	월세	17.0	84.0
가구소득	소득 1분위	17.2	88.2
	소득 2분위	28.4	79.3
	소득 3분위	33.7	82.6
	소득 4분위	36.5	80.8
	소득 5분위	32.4	74.3

주1. 결측값을 제외한 비율임.

(4) 부채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90% 이상이 부채부담가구

- 그러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만 분석하면 다른 양상을 보임.
 -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 집단, 월세, 소득 하위 1분위 집단에서 부채부담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대체로 저소득 가구로 금융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채액이 적어도 금융자산 총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큼. 실제로 자가가구의 금융자산액은 평균 3,693만 원인 반면, 월세가구의 금융자산액은 1,082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즉, 저소득 가구는 부채를 지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전체 가구 중 부채부담 가구 비율은 낮지만, 일단 부채를 갖게 되면 자산대비 부채부담이 과다하여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함.

- 마찬가지로 주요 빈곤가구 유형들의 부채부담 정도를 보면, 부채를 가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단 부채를 갖게 되면 부채부담이 과다한 경우가 많음.
- 모든 유형의 빈곤가구에서 부채부담가구의 비율은 전체 평균(28.8%)보다 낮음. 이는 이들 중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가 많기 때문임.
- 그러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 중 부채부담이 과다한 가구의 비율은 매우 높음.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부채가 있는 모든 가구가 부채부담 과다가구이고, 비수급 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도 부채부담 과다가구가 90%를 넘음.

[표 4-27] 빈곤가구 중 부채부담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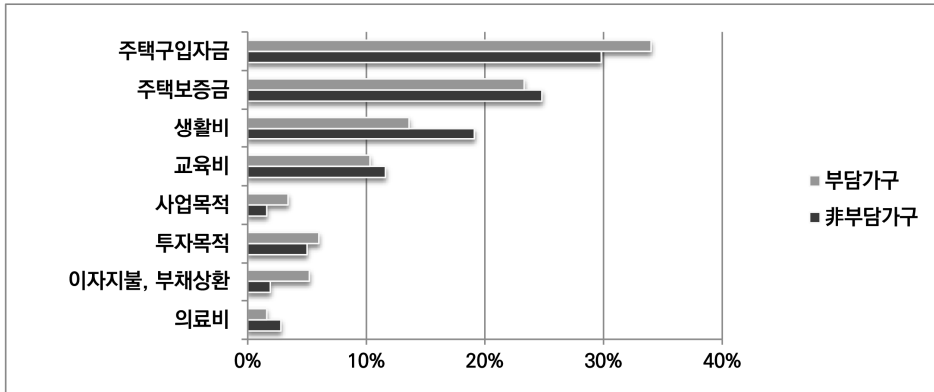
(단위: %)

		집단 내 부채부담 가구 비율	부채가구 중 부채부담 가구 비율
빈곤가구 유형	수급가구	14.3	100.0
	비수급 빈곤가구	25.0	94.4
	차상위가구	18.9	100.0
	근로빈곤가구	24.2	97.6

주1. 결측값을 제외한 비율임.

(5) 부채가 과다한 가구도 부채용도는 주거관련 비용이 주목적

- 부채부담이 과다한 가구는 주택구입, 사업목적, 투자목적 등 투자적 용도와 이자 지불/부채상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반면, 부채부담이 과다하지 않은 가구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초생활 비용 용도가 더 많음.
- 이는 앞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비율과 부채용도 차이와 유사한 경향임.
- 즉,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택구입이나 사업목적 등 투자 목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고 부채금액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산대비 부채액 비율이 큰 부채부담가구가 되는 것임.
- 반면, 생활비 등 기초생활 목적으로 빚을 지는 저소득 가구는 부채액이 크지 않지만 자산액 또한 적어 부채부담 과다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그림 4-기] 부채부담가구의 부채용도

(6) 부채부담가구는 이자부담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

- 부채액이 클수록 매월 지출하는 이자액도 커지기 때문에 부채부담가구의 이자지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부채부담가구의 월평균 이자액은 약 19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많음. 부채부담가구는 비교적 큰 규모의 부채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달 지출하는 이자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임.
- 또한 소득대비 이자지출액 비율도 평균 5%로 비부담가구보다 2배 높음. 이자가 소득의 10%가 넘는 비율도 10.7%로 높은 편임.

[표 4-28] 부채부담가구의 이자부담

(단위: 만 원, %)

		월평균 이자액 (만 원)	소득대비 이자지출 비중(%)					평균
			2.5% 미만	2.5~5%	5~7.5%	7.5~10%	10% 이상	
부채가구 전체		17.54	40.0	27.4	16.6	7.0	9.1	4.6
부담 정도	부채부담	19.10	35.1	27.4	18.8	7.9	10.7	5.0
	부채 非부담	10.33	60.7	27.2	6.8	3.3	1.8	2.6

주1. 부채부담가구: 객관적 기준 ② 적용

주2.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5) 요약 및 시사점

- 서울시 가구 중 36%만이 부채가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가 있는 비율과 부채금액이 모두 증가함.
 - 부채보유가구들은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 남성가구가 주가 많음.
- 부채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빚을 갖는 경우도 많음.
 -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 서 부채를 갖는 비율은 물론 부채금액이 큰 편임. 이들은 주거관련 용도 이외에 자녀의 교육비나 투자목적으로 부채를 갖는 경우도 많음.
 - 특히 소득 상위그룹, 자가거주 그룹에서 부채액이 많은데, 부채액이 많으면 이자액도 증가하여 부채상환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이들은 주택구입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채에 의존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 가구일 가능성도 높음.
 - 이들은 부채금액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채부담 과다가구인 경우가 많음. 부채부담가구는 보유한 자산에 비해 부채액이 과다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가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구 이슈에서 정책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집단은 저소득가구임.
 - 이들은 중·고소득 계층에 비해 부채를 갖는 비율이 적고 부채의 용도가 주로 생활비, 의료비 등 기초생활 목적이기 때문에 부채액도 상대적으로 적음.
 - 그러나 이들은 일단 부채를 갖게 되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채부담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음. 부채액은 작아도 수입과 자산 또한 적기 때문에 원금은 물론 이자지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부채부담가구는 80.5%인 데 반해,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100%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

하는 부채부담가구임.

- 하우스푸어 등 일반가구의 재정적 어려움도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복지 차원에서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저소득 가구의 부채임.
- 더구나 이들이 생활비나 의료비 등 기초생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진다는 것은 공적인 기초생활 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4_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중산층의 기준과 규모

(1) 가장 보편적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150% 집단

- 중산층은 한 사회의 경제상태와 사회 안정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위치의 집단임.
 - 중산층은 그 사회의 주된 ‘생산주체’이자 ‘소비주체’로 중산층의 생활이 탄탄할수록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임(현대경제연구원, 2013).
- 중산층을 구분 짓는 기준은 객관적 측정방식과 주관적 측정방식이 있음.
 - 객관적 측정방식은 소득·소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인데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이용하는 방식 등 다양함.⁵⁾ 반면 주관적 측정방식은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생활수준 인식에 따라 중산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임.
 -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분류 기준은 OECD 기준인 소득에 의한 객관적 측정방식임. OECD는 가구소득이 그 사회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빈곤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를 상류층으로 분류함.

⁵⁾ 절대적 기준방식은 “전체 인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5등분하여 중간의 3개 소득분위에 속하는 인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식이고, 상대적 기준방식은 “전체 인구의 개인별 소득을 최하위 소득부터 최상위 소득까지 소득 순위를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의 50~150% 사이에 속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식임(박소현 외, 2013: 7-8).

- 국내에도 중산층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대체로 OECD 기준을 적용함.
- 그러나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이라는 중산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 중산층 내에서 분화 현상이 나타남. 따라서 최근에는 중산층을 더 세분된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중산층의 실체를 더 상세히 보려는 시도도 있음.

[표 4-29] 중산층의 객관적 측정범위

출처	중산층 기준
OECD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통계청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이정우·이성림(2001)	다음의 4가지 범주를 적용하여 각각 분석 중위소득의 80~125% 미만, 중위소득의 66.7~133.3% 미만,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중위소득의 50~200% 미만
민승규 외(2006)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김용기 외(2010)	중위소득의 50~150% 미만뿐만 아니라, 중위소득의 50~75% 미만, 75~125% 미만, 125~150% 미만으로 세분화
강성진 외(2010)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박소현 외(2013)	중위소득의 50~150% 미만뿐만 아니라, 중위소득의 50~75% 미만, 75~125% 미만, 125~150% 미만으로 세분화

(2)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기준을 모두 적용

- OECD의 기준을 적용하여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가구의 중위소득 50~150% 미만에 속한 가구를 객관적 중산층으로 정의함.
- 단,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소득분석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총소득을 활용하였음. 또한 소득대비 지출비중이 상·하위 5%에 속한 가구는 이상치 값으로 분석 사례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설문조사에서 가구가 느끼는 주관적인 계층의식의 결과를 사용하여 주관적 중산층도 추정하였음.
- 즉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귀댁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6개 등급으로 조사한 결과 ‘중상’ 또는 ‘중하’로 응답한

경우를 주관적 중산층으로 간주하였음.

(3)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의 중산층은 73.7%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 가구 중 가구소득이 전 가구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즉 객관적 중산층은 73.7%임.
-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정도에 위치한다고 인식한 주관적 중산층은 60.4%로 객관적 중산층 규모보다 적음. 많은 서울시민이 실제 소득수준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
- 객관적인 소득기준에 의한 중산층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산층이 일치하는 집단은 전체의 44.4%임.
-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의 비교에서 특히 주목해볼 점은 소득기준은 중산층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인식하는 가구가 29.2%에 이른다는 점임.
- 이는 OECD 기준의 중산층과 체감중산층 가운데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체감중산층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표 4-30] 중산층 규모

(단위: %)

구분		객관적 중산층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전체
주관적 중산층	빈곤층	8.3	29.2	1.8	39.3
	중산층	2.0	44.4	14.0	60.4
	상류층	-	0.2	0.2	0.3
	전체	10.4	73.7	15.9	100.0

주1. 소득은 총소득 기준

주2. 소득대비 지출비중 상·하위 5%를 제외한 2,642가구로 분석한 결과임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전국의 객관적 중산층 비중은 67.4%이고,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72.6%임.
- 이 연구에서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객관적 중산층 비중이 73.7%로 분석되어 통계청 자료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4-31] 중위소득 50~150% 미만 가구 비율

(단위: %)

소득별	2014년			2015년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시장소득	60.2	65.7	66.0	60.6	67.2	67.3
처분가능소득	65.4	69.8	70.0	67.4	72.4	72.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가구 및 가구주 특성

(1) 중산층 가구는 고학력 남성가구주, 2세대 가구가 일반적

- 중산층 가구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으며, 가구원 수와 자녀 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많음.
- 빈곤층에 비해 중산층의 자녀 수가 약 두 배에 달하지만 상류층과 중산층은 거의 차이가 없음. 경제적 여유가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표 4-32] 중산층 가구 특성

(단위: %)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F(p)$ or $X^2(p)$
가구구성	1인 가구	48.3	21.5	21.1	136.751(.000)***
	부부 가구	21.0	15.7	17.7	
	2세대 가구	24.3	59.0	59.3	
	3세대 이상 가구	6.4	3.8	1.9	
가구규모	평균 가구원 수	2.03	2.77	2.72	40.158(.000)***
	평균 자녀 수	0.48	0.99	0.93	38.256(.000)***
가구주 성별	남자	58.8	75.2	83.3	53.689(.000)***
	여자	41.2	24.8	16.7	
가구주 연령	20~30대	22.7	32.4	27.3	232.884(.000)***
	40~50대	20.5	48.6	58.9	
	60대 이상	56.4	18.8	13.8	
	(평균 연령)	(56세)	(47세)	(48세)	
가구주 학력	중학교 이하	42.9	6.1	1.4	477.989(.000)***
	고등학교	33.8	41.1	28.0	
	대학 이상	23.3	52.8	70.5	

* $p < 0.05$, ** $p < 0.01$, *** $p < 0.001$

- 중산층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40~50대 남성이며 대학 이상의 학력이 가장 많음.
 - 빈곤층에 비해 젊고 고학력의 남성가구주가 많으나, 상류층과 비교하면 20~30대 가구주가 많고 학력도 상대적으로 낮음. 이러한 가구주의 특성이 가구의 경제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중산층 가구주는 상용직 사무직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

- 중산층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2.5%로 매우 높고, 63.6%가 상용직 임금 근로자임.
 - 중산층 가구의 경제활동상태는 상류층 가구주와 유사하나 빈곤층과는 차이를 보임.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가구 내 취업자 수가 가구의 경제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빈곤층 가구주의 44.9%가 비경제활동인구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임시 또는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많음. 또한 가구 내 취업자 수도 중산층은 1.46명인 반면 빈곤층은 0.7명으로 절반에 그침.
-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는 중산층과 상류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직종에서는 차이를 보임.
 - 중산층 가구주는 사무직이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블루칼라 직종 종사자도 17.5%에 달함. 그러나 고소득 직종인 관리직이나 전문직은 6.7%임.
 - 상류층 가구주도 사무직이 42.1%로 가장 많지만 관리직/전문직이 26.7%로 많은 반면 블루칼라 직종 종사자는 6%에 불과해 중산층과 차이를 보임.
 - 즉, 중산층은 경제활동 참여정도는 상류층과 유사하지만, 종사하는 직종에서 상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 종사자가 많아 이 부분에서 가구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표 4-33] 중산층 가구의 경제활동 특성

(단위: 명, %)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F(p)$ or $X^2(p)$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	16.1	63.6	70.3	654.874(.0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31.0	12.8	4.3	
	공공일자리	1.8	0.2	-	
	고용주	1.1	2.5	10.9	
	자영업자	4.0	12.5	9.7	
	무급가족종사자	-	0.2	0.7	
	실업자	1.1	0.8	-	
	비경제활동인구	44.9	7.5	4.0	
직종	관리직/전문직	0.7	6.7	26.7	386.354(.000)***
	사무직	15.6	38.9	42.1	
	서비스직	24.5	19.5	12.6	
	판매직	13.6	17.4	12.6	
	기능직	15.0	12.3	5.0	
	단순노무직	29.9	5.2	1.0	
가구 내 취업자 수(명)		0.70	1.46	1.70	173.369(.000)***

* $p < 0.05$, ** $p < 0.01$, *** $p < 0.001$

(3) 자산 보유액은 빈곤층과 상류층의 중간 수준

- 중산층 가구의 순자산은 2억 4천여만 원으로 빈곤층 가구 순자산의 2.1배에 달하지만, 상류층 가구 순자산의 절반 수준임.
- 중산층 가구도 자가 점유율은 37%로 상류층의 53.8%보다 낮고, 전세 거주자가 45.2%로 가장 많음. 대부분 지상층에 거주하지만 지하, 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비율도 5.7%임.

[표 4-34] 중산층 가구의 자산과 주거특성

(단위: 만 원, %, m²)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F(p)$ or $X^2(p)$
순자산(만 원)		11,780	24,893	49,628	121.998(.000)***
자산형태	부동산	90.2	85.4	83.8	
	금융자산	8.1	9.7	10.3	
	기타	1.7	4.9	5.9	
주거점유형태	자가	27.1	37.0	53.8	194.291(.000)***
	전세	27.1	45.2	39.0	
	월세	43.6	16.5	6.9	
	무상	2.2	1.1	0.2	
주택위치	지하	1.8	0.4	-	128.622(.000)***
	반지하	19.3	4.9	1.0	
	지상	78.5	94.4	99.0	
	옥탑	0.4	0.4	-	
주택규모(m ²)		49.75	74.31	92.60	149.073(.000)***

* $p < 0.05$, ** $p < 0.01$, *** $p < 0.001$

3) 의식과 행태

(1) 사회활동 참여도는 높지 않은 편

- 사회활동 참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중산층은 모든 항목에서 빈곤층과 상류층의 중간수준의 참여도를 보임.
 - 다만 반상회 등 지역사회 내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은 중산층에서 15.9%로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임.
 - 투표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빈곤층의 투표율이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비해 크게 낮고, 상류층의 투표율이 중산층보다 다소 높음.
-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많음.
 -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참여경험은 상류층에서 가장 많지만, 일단 참여한 경우 참여횟수는 빈곤층이 가장 높음.

[표 4-35] 중산층의 사회참여

(단위: %)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F(p)$ or $X^2(p)$
사회활동 참여율	지역사회 회의	8.4	15.9	13.6	11.103(.004)**
	지역봉사활동	1.8	4.4	3.8	4.079(.130)
	마을공동체사업	2.2	1.9	4.3	8.682(.013)*
	사회단체 활동	0.4	2.3	3.1	5.876(.053)
	선거투표	65.7	82.4	88.1	57.706(.000)***
향후 사회활동 참여의사	지역사회 회의	9.9	10.4	12.1	1.274(.529)
	지역봉사활동	5.1	6.2	6.2	.482(.786)
	마을공동체사업	8.4	5.1	7.1	6.354(.042)*
	사회단체 활동	2.9	5.1	6.4	4.205(.122)
	선거투표	65.7	68.9	75.5	9.388(.009)**
기부	최근 1년간 경험	6.2	15.9	29.7	72.252(.000)***
	연간 기부액	23.4만 원	41.9만 원	57.8만 원	3.778(.024)*
	향후 기부 의사	20.1	34.5	46.0	49.225(.000)***
자원봉사활동	최근 1년간 경험	2.9	8.2	17.6	50.677(.000)***
	연간 참여횟수	11.8회	8.9회	3.8회	5.919(.003)**
	향후 참여 의사	13.9	31.7	38.7	49.77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생활만족도는 보통수준, 가치관은 보수적 성향

- 중산층은 삶에 대한 만족도도 빈곤층과 상류층의 중간수준을 보임.
 - 기본적인 생활영역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건강과 보건으로 63%가 만족하고 있음. 반대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가계경제 상태로 43.8%만 만족함.
 - 행복도 점수도 10점 만점에 6.53점으로 상류층(6.91점)보다 낮지만 빈곤층(5.12점)보다 높음.

[표 4-36] 중산층의 생활만족도

(단위: %, 점)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chi^2(p)$
생활영역별 만족도	가계경제	17.8	43.8	66.5	160.798(.000)***
	고용과 노동	17.8	45.1	63.7	120.978(.000)***
	주거생활	34.1	55.2	72.1	97.381(.000)***
	요보호 가족돌봄	36.5	49.2	57.7	16.870(.000)***
	건강과 보건	34.3	63.0	72.3	106.849(.000)***
	교육	39.6	61.1	67.3	39.625(.000)***
	여가생활	33.3	62.1	73.8	117.677(.000)***
	전반적 만족률	23.7	58.8	75.0	182.099(.000)***
행복점수	(10점 만점 평균)	5.12	6.53	6.91	

주1.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주2.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의 응답 비율임.

* $p < 0.05$, ** $p < 0.01$, *** $p < 0.001$

- 중산층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지만 무상복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빈곤층과 상류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다만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도는 상류층에서 다소 높은 편임.
 - 중산층 가운데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더 선호하지만,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음.
 -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보이는 비율이 가장 많지만, 중산층에서 고세금/고복지보다는 저세금/저복지 선호도가 다소 높음. 소득이 높아질수록 고세금/고복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의미있는 결과임.
- 종합하면, 중산층은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지만 무상복지보다는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복지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지 않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선별적 복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에 대해 다소 보수적 태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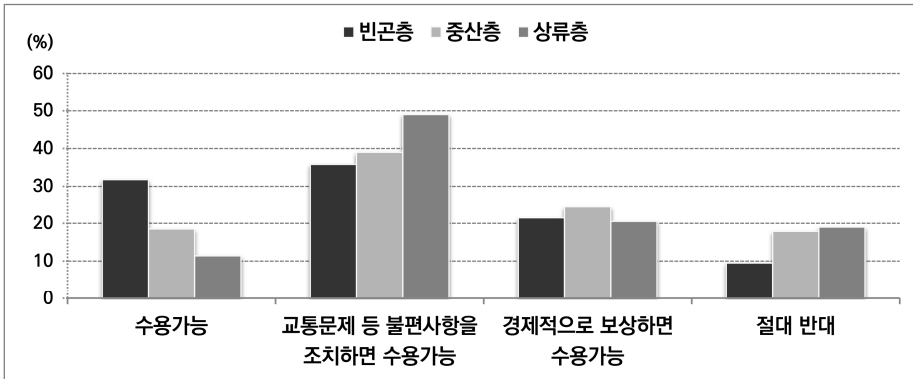
[표 4-37] 중산층의 복지인식

(단위: %)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chi^2(p)$
복지대상	빈곤층	27.0	33.6	24.7	16.857 (.002)**
	중립	33.2	27.4	31.4	
	모든 국민	39.8	39.1	43.9	
비용부담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	47.1	40.8	39.3	8.512 (.075)
	중립	26.6	35.1	35.2	
	무상제공	26.3	24.1	25.5	
복지수준	저세금/저복지	33.0	26.8	17.4	30.413 (.000)***
	중립	49.5	49.7	52.1	
	고세금/고복지	17.6	23.4	30.5	

* $p < 0.05$, ** $p < 0.01$, *** $p < 0.001$

- 쓰레기처리장이나 장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에 대한 태도는 빈곤층이 가장 포용적이고 상류층이 가장 배타적임. 중산층은 두 집단의 중간적 태도를 보이지만 상류층에 좀 더 가까움.
 - 빈곤층은 기피시설을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1.8%이나 중산층은 18.5%, 상류층은 11.4%임. 반면 절대 반대 비율은 중산층 17.9%, 상류층 19%로 빈곤층보다 높음.
 - 보상방법으로는 전반적으로 불편사항 해소, 경제적 보상 순으로 선호하지만, 경제적 보상을 선호하는 비율은 중산층에서 가장 높음. 중산층이 가장 현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4-8] 소득계층별 기피시설에 대한 태도

4) 중산층의 분화

(1) 서울시 가구 중 핵심중산층은 46.4%

-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에 속한 가구로 보는 기준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임.
 - 실제로 이 연구의 분석에서 서울시 중산층 가구가 73.7%에 달함.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산층 내에서도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남. 따라서 중산층을 하위집단별로 세분하여 특성을 비교하였음.
-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25% 내외에 있는 집단, 즉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5%~125% 미만에 해당하는 집단을 핵심중산층으로 규정함.
 - 그리고 핵심중산층의 아래에 있는 집단은 하위중산층(중위소득의 50%~75% 미만), 핵심중산층 위에 있는 집단을 상위중산층(중위소득의 125%~150% 미만)으로 구분하였음.
 - 이 분류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 중 핵심중산층은 46.4%임. 이는 광의적 중산층 분류기준에 의한 중산층 가운데 63%에 해당함.

[표 4-38] 중산층 내 하위집단별 구성

(단위: 가구, %)

	중산층			
		하위중산층	핵심중산층	상위중산층
가구수	1,948	366	1,227	355
전 가구 중 구성비	73.7	13.8	46.4	13.5
중산층 가구 중 구성비	100	18.8	63.0	18.2

주1. 소득은 총소득 기준이며, 소득대비 지출비중 상·하위 5%를 제외한 2,642가구로 분석한 결과임

(2) 하위집단별 가구구성은 유사하나 가구주 특성은 차이

- 가구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중산층 가구에서 여성, 고연령, 저학력 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빈곤층에 비해서는 남성, 저연령, 고학력 비율이 높아 빈곤층과는 구분됨.

[표 4-39] 중산층 하위집단별 가구 특성

(단위: 명, %)

		하위중산층	핵심중산층	상위중산층	$F(p)$ or $X^2(p)$
평균 자녀 수(명)		0.94	1.00	1.00	.835(.434)
가구구성	1인 가구	23.5	20.9	21.6	3.133(.792)
	부부 가구	16.9	15.4	14.9	
	2세대 가구	55.7	60.1	58.9	
	3세대 이상 가구	3.9	3.5	4.6	
가구주 성별	남자	70.2	75.7	78.6	7.234(.027)*
	여자	29.8	24.3	21.4	
가구주 연령	20~30대	25.1	33.8	34.9	66.988(.000)***
	40~50대	41.0	50.1	51.3	
	60대 이상	33.9	15.9	13.8	
가구주 학력	중학교 이하	15.6	4.2	2.5	107.494(.000)***
	고등학교	47.3	42.0	32.0	
	대학 이상	37.2	53.8	65.4	

* $p < 0.05$, ** $p < 0.01$, *** $p < 0.001$

- 가구주 경제활동참가율은 하위중산층에서 85.2%로 핵심 또는 상위중산층에 비해 낮음.
 -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핵심 및 상위중산층은 상용직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중산층은 45%만 상용직이고 25.3%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함. 이는 하위중산층 가구주의 연령, 학력과 관계가 있음.
 - 같은 이유에서 하위중산층 가구주의 근로 직종은 블루칼라 직종이 29.3%로 많은 편임. 그러나 여전히 빈곤층 가구주 중 블루칼라 종사자 비율 44.9% 보다는 낮음([표 4-33] 참조).

[표 4-40] 중산층 하위집단별 가구주의 특성

(단위: %, 명)

		하위중산층	핵심중산층	상위중산층	$X^2(p)$ or $F(p)$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	45.1	65.5	75.6	151.329(.0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25.3	11.8	3.6	
	공공일자리	0.3	0.2	0.3	
	고용주	2.2	2.5	2.8	
	자영업자	11.3	12.9	12.0	
	무급가족종사자	0.3	0.2	0.3	
	실업자	0.8	0.9	0.3	
	비경제활동인구	14.8	5.9	5.0	
직종	관리직/전문직	7.1	5.1	11.6	125.369(.000)***
	사무직	24.8	41.5	43.0	
	서비스직	19.9	20.0	17.0	
	판매직	18.9	17.7	15.2	
	기능직	14.3	11.8	11.7	
	단순노무직	15.0	3.8	1.2	
평균 취업자 수(명)		1.18명	1.49명	1.65명	44.356(.000)***

* $p < 0.05$, ** $p < 0.01$, *** $p < 0.001$

(3) 핵심중산층의 자산수준은 상위중산층과, 주거실태는 하위중산층과 유사

- 하위중산층의 순자산 규모는 상위중산층 자산의 53%, 핵심중산층 자산의 66% 수준임.
- 주거특성은 하위중산층과 핵심중산층이 거의 유사하고, 상위중산층은 이들과 차이를 보임. 자가 점유율에서 상위중산층이 50%로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으며, 주택의 위치도 지하나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거의 없음.

[표 4-41] 중산층 하위집단별 경제적 특성

(단위: 만 원, m^2 , %)

		하위중산층	핵심중산층	상위중산층	$F(p)$ or $X^2(p)$
순자산(만 원)		16,760	25,422	31,559	17.309(.000)***
자산구성	부동산	88.4	86.0	82.3	
	금융자산	8.1	9.5	10.9	
	기타	3.5	4.5	6.8	
주거 점유형태	자가	32.9	34.6	50.0	48.709(.000)***
	전세	45.2	48.8	32.9	
	월세	21.4	15.6	14.9	
	무상	0.5	0.9	2.2	
주택위치	지하	0.3	0.5	0.3	23.482(.001)**
	반지하	7.7	5.3	0.6	
	지상	91.8	93.7	99.2	
	옥탑	0.3	0.5	-	
평균 주택규모(m^2)		65.4	74.9	81.3	22.455(.000)***

* $p < 0.05$, ** $p < 0.01$, *** $p < 0.001$

(4) 사회활동 행태는 하위집단별 차이가 미미

- 중산층 집단 전체는 빈곤층이나 상류층과 사회공헌 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중산층 내 하위집단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상회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

는 비율이 핵심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투표참여율은 소득수준과 비례하여 높아진다는 것임. 다만 사회공헌 활동 참여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4-42] 중산층 하위집단별 사회참여활동

(단위: %)

		하위중산층	핵심중산층	상위중산층	$\chi^2(p)$ or $F(p)$
사회활동 참여율	지역사회 회의	11.2	17.3	15.8	7.702(.021)*
	지역봉사활동	4.4	4.4	3.9	.145(.930)
	마을공동체사업	.8	2.0	2.5	3.168(.205)
	사회단체 활동	1.1	2.4	2.8	2.917(.233)
	선거투표	74.6	83.2	87.6	22.664(.000)***
기부	최근 1년간 경험	14.0	15.6	18.6	2.999(.223)
	연간 기부액	30.6만 원	43.2만 원	46.7만 원	1.154(.317)
	향후 기부의사	27.7	35.9	37.1	9.575(.008)**
자원봉사 활동	최근 1년간 경험	8.2	6.8	13.0	14.055(.001)**
	연간 참여횟수	4.4회	9.2회	11.4회	2.580(.079)
	향후 참여의사	24.0	32.9	35.1%	12.683(.002)**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4-37]에서 계층별로 가치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중산층 내 하위집단 간에는 가치관 차이가 거의 없음.
 - 모든 집단에서 선별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더 선호하지만 무상복지보다는 수익자 비용부담을 선호함.
 -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복지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중산층 전체적으로는 고부담/고복지보다 저부담/저복지 선호율이 더 높았지만, 중산층을 세분화하면 상위중산층은 고부담/고복지 선호율이 더 높음. 즉 상위중산층은 중위소득 150% 이상 상류층과 유사한 복지의식을 갖고 있음.
 - 상위중산층에서 고부담/고복지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온 것은 가구주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됨. 상위중산층은 핵심 또는 하위중산층에 비해 가구주가 20~30대 젊은 층, 대학 이상 고학력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4-43] 중산층 하위집단별 가치관의 차이

(단위: %)

		하위중산층	핵심중산층	상위중산층	$X^2(p)$
복지대상	빈곤층	29.0	34.7	34.6	6.123 (.190)
	중립	31.7	26.2	27.2	
	모든 국민	39.3	39.1	38.2	
비용부담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	41.5	39.0	46.3	6.810 (.146)
	중립	35.8	35.8	31.7	
	무상제공	22.7	25.3	21.9	
복지수준	저세금/저복지	32.9	25.8	24.2	10.077 (.039)*
	중립	45.5	51.1	49.4	
	고세금/고복지	21.6	23.1	26.4	

* $p < 0.05$, ** $p < 0.01$, *** $p < 0.001$

5) 요약 및 시사점

- 소득계층별 차이는 가구주의 특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가 가구 경제 상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빈곤층은 고령, 여성, 저학력 비율이 높아 가구경제 상태가 열악한 원인으로 작용함. 반대로 상류층은 고학력 남성 가구주가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면서, 관리직이나 전문직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중산층은 모든 면에서 빈곤층과 상류층의 중간적 성격을 보임. 가구주의 특성, 자산 및 주거실태 등에서 중간수준의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산층 가구의 가구주는 사무직과 블루칼라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중산층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과제임.
 - 중산층 가구주는 남성의 고학력이 주류이고 상용임금근로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류층과 유사하나, 관리직이나 전문직 등 고임금 직종이 많은 상류층 가구주와 달리 사무직, 블루칼라 직종 종사자가 많음,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탈산업사회에서 중산층 가구주가 많은 금융권 등 사무직, 그리고 제조업 등 전통적 불

루칼라 직종의 고용이 불안한 상태임. 중산층 가구주가 많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군, 직업군의 고용안정이 중산층 정책의 핵심과제임.

- 서울시민은 소득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가 커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필요함.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중산층 비중은 73.7%인 반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60.4%임. 특히 29.2%는 소득기준은 중산층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체감중산층의 괴리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의 중산층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임.
 - 실제로 중산층을 더 세분화하면 현재의 중산층 중 63%만이 핵심중산층(중위소득의 75~125% 미만)이고, 18.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75% 미만 수준인 하위중산층임.
 - 하위중산층 가구는 빈곤층보다는 양호한 상태이지만, 여성의 고연령, 저학력 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취업직종도 핵심 또는 상위중산층보다 열악하다는 점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 한계중산층임.
- 따라서 중산층 정책은 세부 집단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 상위중산층(중위소득의 125~150% 미만)은 현재의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과 유사한 점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 반면 빈곤층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하위중산층(또는 한계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과 함께,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기초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줄 필요가 있음.
 - 앞에서 빈곤가구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부분에서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등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중산층은 그 규모와 특성 면에서 한 사회의 중심이 되는 집단으로,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함.

- 서울의 중산층은 지역활동이나 사회단체활동 등의 사회참여에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자원봉사나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임을 확인하였음.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임.
- 한편, 중산층은 보편적 복지를 더 선호하지만 무상복지보다는 수익자 부담방식을 더 선호하고, 저부담/저복지를 선호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임. 이러한 중산층의 의식은 앞으로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05

경제활동과 생활행태

- 1_근로빈곤층
- 2_청년 NEET의 경제활동
- 3_청년 캥거루족과 골드미스족

05 | 경제활동과 생활행태

1_근로빈곤층

1) 근로빈곤의 정의와 규모

(1)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 상태가 근로빈곤

- 근로빈곤은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를 의미함.
 - 근로빈곤은 ‘근로’와 ‘빈곤’의 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근로(고용)는 개인적 속성이고 빈곤(소득수준)은 가구적 속성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와 ‘근로능력이 있는 개인 혹은 취업상태에 있는 개인’을 결합한 자료로 근로빈곤층을 측정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준하여 근로빈곤층 규모를 산출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근로빈곤층의 범위는 다음 [표 5-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함.
 - 먼저 근로능력 상태를 ‘능력’과 ‘무능력’으로 구분하고, 노동력 상태는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함.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을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현재 ‘취업자’만 포함하거나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함.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현재 일할 수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모두 잠재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고려하여 근로빈곤층을 폭넓게 파악하기도 함.

[표 5-1] 근로빈곤층의 범위

근로능력상태	노동력상태		빈곤
근로능력	경제활동	취업자	취업빈곤층
		실업자	실업빈곤층
	비경제활동	근로능력 비경제활동인구	근로능력 비경제활동 빈곤층
근로무능력		연령 65세 이상 심신장애자 재학 및 군입대 대기	근로무능력 비경제활동 빈곤층

출처: 김혜련(2010: 269).

(2) 이 연구에서는 가구총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및 그 가구원으로 정의

○ 이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을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으나 빈곤한 가구, 즉 협의의 개념을 적용함.

-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로 근로능력 여부를 근로능력 상태나 취업상태가 아니라 ‘근로소득’의 존재 여부로 파악하였음.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가구원의 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는 조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가구소득은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조사하였음. 따라서 근로상태와 소득수준을 동일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 한편, 어떤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은 가구주나 가구원이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근로(또는 임금)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이유에서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존재 여부를 가구원 근로 여부로 판단하였음.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확인된 2014년 가구 총소득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는 동일한 시점에 가구원 중 누구라도 근로(임금)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함. 연간소득에 반영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존재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근로능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한편, 빈곤의 기준은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함.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가구 총소득이 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층으로 보았음.
 -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빈곤선 이하(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중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개인)'로 정의함.

(3) 서울의 근로빈곤층은 전 가구의 6.3%로 추정

-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산출한 서울의 근로빈곤가구는 전 가구 중 6.3%임.
 - 근로빈곤가구의 유형은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가구를 포함하여 절대빈곤가구가 33.9%이고, 그 외에 중위소득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가구가 66.1%를 차지함.
- 근로빈곤가구 내 가구원을 근로빈곤층이라고 보면, 개인 단위로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5.6%에 해당함.

[표 5-2] 근로빈곤층 규모

(단위: 가구, 명, %)

구분		사례수	구성비
근로빈곤층 비중	가구 기준	165	6.3
	인구 기준	399	5.6
근로빈곤가구 유형	수급가구	16	9.7
	비수급 빈곤	40	24.2
	상대빈곤	109	66.1
	계	165	100.0

2) 개인 및 가구 특성

(1) 근로빈곤층은 50~60대 장년층, 1인 또는 2세대 가구가 많은 편

-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하지 않은 비빈곤가구, 그리고 빈곤가구이지만 근로상태인 가구원이 없는 비근로 빈곤가구와 비교 분석함.
- 근로빈곤가구 내 가구원들의 개인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비근로 빈곤층과 비빈곤

층의 중간적 성격을 가짐.

-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50~6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음. 비근로 빈곤층에 비해서는 남성 비율이 높지만 비빈곤층보다는 적으며, 연령대도 두 집단의 중간수준을 보임.
- 교육수준도 비근로 빈곤층은 중학교 이하 학력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근로빈곤층은 고등학교 학력이 42.5%로 가장 많고, 비빈곤층은 대학 이상 고학력자가 가장 많아 이 또한 중간적 성격을 보임.
- 비근로 빈곤가구는 1인 가구가, 비빈곤가구는 2세대 가구가 많은 데 비해 근로빈곤가구는 1인 가구와 2세대 가구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표 5-2]에서 근로빈곤가구의 비중이 6.3%인 것에 비해 인구 단위 비중은 5.6%로 감소하는 것은 근로빈곤가구 중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임.

[표 5-3] 근로빈곤층 개인 및 가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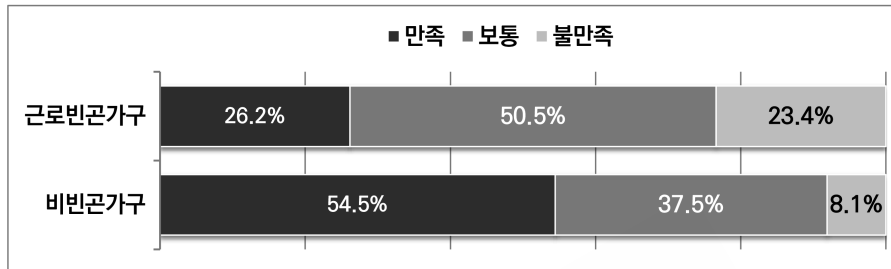
(단위: %)

		근로빈곤	비근로 빈곤	비빈곤	$X^2(p)$
성별	남자	63.1	52.0	76.6	46.318 (.000)***
	여자	36.9	48.0	23.4	
연령	20대 이하	8.2	21.1	5.4	521.060 (.000)***
	30~40대	29.9	8.2	52.6	
	50~60대	43.8	22.0	38.9	
	70대 이상	18.1	48.7	3.1	
학력	초등학교 이하	17.6	25.8	1.4	493.117 (.000)***
	중학교	19.8	25.5	3.8	
	고등학교	42.5	20.7	38.8	
	2년제 대학	3.2	6.9	13.4	
	4년제 대학 이상	16.8	21.2	42.5	
가구구성	1인 가구	36.3	67.0	21.4	176.784 (.000)***
	부부가구	18.3	25.8	16.0	
	2세대 가구	36.8	4.7	59.1	
	3세대 이상 가구	8.6	2.5	3.4	

* $p < 0.05$, ** $p < 0.01$, *** $p < 0.001$

(2) 근로빈곤가구는 가족생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근로빈곤가구의 26.2%가 가족생활에 만족하고 절반정도는 보통수준으로 응답함.
 - 비빈곤가구의 8.1%만 가족생활에 불만족한 것과 비교해 근로빈곤가구의 불만족 비율은 약 3배 많은 23.4%임.



[그림 5-1] 근로빈곤가구의 가족생활 만족도

- 비빈곤가구에 비해 가정 내 근심거리도 더 많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함.
 -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가정 내 근심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21.2%지만, 비빈곤가구의 34.7%가 근심거리가 없다는 것에 비해 낮은 비율임.
 - 근로빈곤가구의 절반 정도가 가계 경제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응답함. 여기에 부채 걱정, 주거비 걱정까지 합하면 약 60%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임.
 - 비빈곤가구에서 자녀양육이나 교육을 주요 걱정거리로 지정한 가구가 15.6%로 높은 데 비해 근로빈곤가구는 2.9%에 불과한 것은 근로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임.

[표 5-4] 근로빈곤가구의 최근 근심 및 갈등 초래 1순위

(단위: %)

	근로빈곤가구	비빈곤가구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1.2	34.7
수입이 적어 생활이 쪼들리는 문제	49.8	13.9
과다한 부채, 카드빚, 이자부담	6.0	4.7
주택 마련, 주거비 부담 등 주거관련 문제	3.4	10.7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2.1	3.0
가구원의 건강	5.6	5.1
자녀 양육, 교육문제	2.9	15.6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원의 돌봄 문제	2.5	1.5
가족 간의 불화(이혼, 별거, 가출 등)	.8	1.4
노후불안	5.9	8.9
가구원 결혼	-	0.4
계	100.0	100.0
$\chi^2(p)$	158.861(.000)***	

3) 근로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차이

(1) 근로빈곤층은 임시·일용직, 저임금 직종에 더 많이 종사

- 근로빈곤가구 내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는 일용직 또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음. 비빈곤가구 가구원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과 대비됨.
 - 근로빈곤층의 개인특성이 비빈곤층에 비해 고연령, 저학력이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시직 근로자와 소득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음.
 - 상용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근로빈곤가구의 근로소득이 연 1,584만 원으로 임시직 근로자 연소득 1,418만 원과 큰 차이가 없음. 전체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평균소득이 5,151만 원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이는 근로빈곤층은 상용직으로 일하더라도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임. 실제로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근로 직종은 단순노무직(31.7%)과 서

비스직(23.7%)이 많은 반면, 임금수준이 높은 관리직이나 전문직 비율은 각각 0.9%, 0.2%에 불과함.

[표 5-5]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근로빈곤		비빈곤	
	가구주	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상용직 임금근로	23.0	15.6	64.8	4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49.8	32.3	11.2	10.2
공공일자리	3.1	1.5	.2	0.1
고용주	1.9	1.9	4.0	2.1
자영자	6.5	3.8	12.0	6.7
무급가족종사자	0.0	0.0	.3	1.4
실업자	1.4	1.7	.6	0.7
비경제활동인구	14.3	43.2	6.8	35.3
계	100.0	100.0	100.0	100.0
$\chi^2(p)$	277.536(.000)***			

[표 5-6] 근로빈곤가구의 근로 특성

(단위: %)

	구분	근로빈곤	비빈곤	$\chi^2(p)$
가구주 근로직종	관리직	0.9	6.9	217.389(.000)***
	전문가 및 관련 직종	0.2	3.5	
	사무직	12.9	39.5	
	서비스직	23.7	18.2	
	판매직	14.7	16.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7	7.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0.9	3.1	
	단순노무직	31.7	4.4	
	농림어업	0.4	0.1	
가구 내 취업자 수	1명	87.2	54.8	64.590(.000)***
	2명	9.0	36.7	
	3명 이상	3.8	8.6	
	평균(명)	1.2명	1.6명	

* $p < 0.05$, ** $p < 0.01$, *** $p < 0.001$

(2)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적은 것도 근로빈곤층의 가구소득이 낮은 또 다른 이유

- 근로빈곤가구는 1인 가구가 많은 반면 비빈곤가구는 2세대 가구 이상이 많아 돈 벌이 하는 가구원 수도 많음.
 - 근로빈곤가구는 87.2%가 취업자 1명이 가구를 부양하는 반면, 비빈곤가구는 2명 이상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가구가 45.3%에 달함.
 - 물론 가구주 혹은 가구원이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수준이 가구의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구 내 취업활동을 하는 가구원 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종합하면, 근로빈곤가구는 근로소득이 가구의 주소득원이지만, 가구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나마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3) 근로빈곤가구의 고용지원서비스 이용은 상대적으로 저조

-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이러한 고용지원사업에 대하여 근로빈곤가구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음.
 -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인지율이 57.5%로 높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20% 내외의 인지율을 보였으며, 이용경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특히 서울시의 취업지원 기관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의 인지율은 9.2%로 낮고 이용경험은 2.7%에 불과함.
- 향후 이용희망률은 현재 인지도나 이용경험률보다 높아 그만큼 수요가 있음을 보여줌.
 - 근로 빈곤가구의 이용 욕구가 가장 높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자활지원사업 등으로 50% 이상 이용을 희망하고 있음.
 - 해당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사업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고 향후 이용희망률도 높음. 이는 근로빈곤가구의 고용지원서비스 이용기회를 높일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5-7] 고용지원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

(단위: %)

		인지율	이용경험률	사업에 대한 긍정 평가	향후 이용희망률
근로 빈곤 가구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57.5	14.6	47.9	55.6
	자활지원사업	24.7	3.2	38.5	52.4
	노인일자리 사업	30.2	5.2	36.5	45.9
	청년인턴제도	23.5	2.8	31.7	30.5
	직업훈련 지원	21.4	2.7	32.7	40.9
	창업지원	16.5	2.2	32.2	36.2
	근로장려세제	12.1	3.0	36.8	44.2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9.2	2.7	37.9	52.5
비빈곤 가구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38.8	3.5	23.6	28.2
	자활지원사업	19.3	1.9	18.0	24.7
	노인일자리 사업	33.2	2.7	23.8	28.7
	청년인턴제도	30.1	2.6	25.4	30.3
	직업훈련 지원	30.6	3.0	34.0	43.9
	창업지원	33.4	2.8	40.1	49.9
	근로장려세제	19.8	3.0	31.5	46.5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18.2	2.4	30.0	47.6

4) 근로빈곤가구와 비근로 빈곤가구의 차이

(1) 1인당 소득은 비근로 빈곤가구가 오히려 높은 편

- 근로빈곤가구는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88%를 차지하는 데 비해, 비근로 빈곤가구는 이전소득, 그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이 주수입원임.
 -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빈곤가구 가구원은 주로 저임금 임시/일용직에 종사하여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비근로 빈곤가구는 주로 고령자 가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고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표 5-8] 근로빈곤가구의 소득 구성

(단위: 만 원/연, %)

	근로빈곤가구		비근로 빈곤가구		$t(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근로소득	1,234	88.1	-	-	22.747(.000)***
사업소득	105	7.5	-	-	3.550(.001)**
금융소득	4	0.3	33	3.4	-2.121(.036)*
부동산소득	-	-	88	0.9	-3.521(.001)**
사적이전소득	20	1.4	455	46.6	-11.158(.000)***
공적이전소득	34	2.4	276	28.3	-7.140(.000)***
기타소득	3	0.2	124	12.7	-4.34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 근로빈곤가구는 비근로 빈곤가구에 비해 총소득은 많지만, 가구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적은 편임.
 - 가구원당 소득으로 환산하여 단순비교하면 근로빈곤가구의 1인당 소득은 약 584만 원이고 비근로 빈곤가구의 1인당 소득은 약 696만 원으로 근로빈곤가구가 더 열악함.
 - 근로빈곤가구는 비근로 빈곤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약간 높지만 가구원 수가 더 많아 1인당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임. 더구나 가구원 수가 많은 만큼 생활비 지출액 부담도 더 높은 상황임.

[표 5-9] 근로빈곤가구와 비근로 빈곤가구의 소득 및 지출 비교

(단위: 만 원, 명)

	근로빈곤가구	비근로 빈곤가구
평균 가구원 수	2.4	1.4
가구 총소득(연간)	1,401	975
1인당 소득	584	696
총지출	1,347	960

(2) 비근로 빈곤가구보다 부채는 더 많고 순자산은 적은 상황

- 근로빈곤가구는 비근로 빈곤가구에 비해 자산은 적고 부채는 많은 편임.
 - 총자산의 차이는 빈곤가구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소유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비근로 빈곤가구는 고령자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자가소유율이 33.9%로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근로빈곤가구의 자가율은 22.7%임. 자가주택의 평균가격도 3억 3,671만 원으로 비근로 빈곤가구의 주택가격이 더 높음.
- 총 자산은 각각 1억 2천여만 원과 1억 3천여만 원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차이가 더 벌어짐.
 - 근로빈곤가구 중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더 많고 부채액도 더 많기 때문에 순자산은 더 감소함.

[표 5-10]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실태

(단위: %, 만 원)

구분		근로빈곤가구	비근로 빈곤가구	$X^2(p)$ or $t(p)$
주거점유형태	자가	22.7	33.9	5.867(.118)
	전세	30.4	22.2	
	월세	43.9	43.1	
	무상	3.0	0.7	
자가주택 평균가격		29,537	33,671	-1.019(.312)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11] 근로빈곤가구의 자산과 부채

(단위: 만 원, %)

		근로빈곤가구	비근로 빈곤가구	$t(p)$
총자산		12,091	13,382	-0.553(.581)
부채	부채 없음 비율	75.4	92.7	1.023(.312)
	평균 부채액 ¹	4,918	3,165	
순자산		10,879	13,151	-1.046(.296)

주1. 부채가 있는 경우의 평균 부채액

* $p < 0.05$, ** $p < 0.01$, *** $p < 0.001$

(3) 비근로 빈곤가구보다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

- 근로빈곤가구는 비근로 빈곤가구에 비해 다양한 기초생활 영역에서 더 많은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
 - 빈곤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아 모든 기초생활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 그러나 [표 5-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근로 빈곤가구에 비해 근로빈곤가구의 결핍 경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물질적 자원의 결핍을 보여주는 6가지의 항목 중 근로빈곤가구는 난방중단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결핍경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5-12] 근로빈곤층의 결핍경험률

(단위: %)

구분	난방 중단	집세 연체	공과금 연체	공교육비 미납	결식 감식	의료서비스 미이용
전체가구	9.2	5.8	9.7	1.0	1.7	2.4
근로빈곤가구	20.0	14.6	25.0	4.8	5.6	16.0
비근로 빈곤가구	20.6	13.6	10.7	3.4	2.2	3.9
비빈곤가구	8.0	5.1	9.0	0.8	1.5	1.5

주1. 비해당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 근로빈곤가구가 비근로 빈곤가구에 비해 기초생활 결핍경험이 더 많은 것은 가구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근로 빈곤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명으로 근로빈곤가구의 2.4명보다 적음. 또한 비근로 빈곤가구는 연령대가 높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 반면 근로빈곤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은 만큼 생활비 지출액이 더 많고 아직 자녀교육비용 지출 부담이 남아 있을 연령대이며, 여기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 경비까지 부담이 될 것임.
 - [표 5-11]에서 근로빈곤가구가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것도 지출수요가 높은 가구특성 때문으로 추측됨.

5) 요약 및 시사점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가구 중 근로빈곤가구는 6.3%임. 이 중 33.9%는 절대빈곤가구이고 나머지 66.1%는 상대빈곤가구임.
 - 근로빈곤가구는 50~60대 중장년층 남성,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이들의 연령대와 학력을 고려할 때 고소득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근로빈곤가구는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지만 빈곤에서 벗어날 정도의 수입은 없으며, 반대로 지출 수요는 비근로 빈곤가구보다 높은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임.
 - 근로빈곤가구는 주로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상용직인 경우에도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총소득은 높지 않음. 더구나 아직 자녀교육비도 지출해야 하는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조사한 6가지 기초생활 항목에서 근로빈곤가구는 난방중단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결핍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는 빈곤집단 내에서도 근로빈곤가구가 물질적 자원이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의미함.
- 따라서 근로빈곤가구를 위한 정책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인 중장년 고등학교 학력자들에게 적합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고용정책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근로빈곤가구의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임. 주요 사업대상이 되어야 할 근로 빈곤가구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업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현재의 고용지원서비스가 실제로 '탈빈곤'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가구에서 기본적인 고용지원서비스에 대

한 인지도조차 낮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전체 빈곤가구 중 근로빈곤가구가 물질적인 결핍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 측면에서 대응도 필요함.
 - 근로빈곤가구는 수입이 적어 생활이 쪼들리는 문제를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응답하였지만, 그다음으로 부채, 노후불안, 건강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비근로 빈곤가구보다 부채를 가지는 비율이 높고 부채액도 큰 편임. 4장에서 저소득 가구에서 부채를 갖게 되면 상환능력이 없는 부채부담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서민금융제도와 같은 저소득 대상 금융 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근로빈곤가구는 공과금 연체, 집세 연체, 난방중단, 의료서비스 미이용 등 기초적인 생활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 그러나 근로빈곤가구 중 기초보장수급가구는 9.7%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근로빈곤가구는 모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임.
- 근로빈곤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고용불안, 부채문제, 기초생활 결핍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 근로빈곤가구를 포함한 빈곤층은 다차원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도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2_청년 NEET의 경제활동

1) 청년 NEET 개념과 규모

- (1) 청년 NEET는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 취직, 직업훈련 등 어떤 형태의 일도 하지 않는 청년층
 - 청년 고용(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 NEET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⁶⁾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⁶⁾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학력화와 더불어, 대학졸업 이후 취업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에서 청년 NEE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는 의무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지칭함.
- NEET족은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 NEET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非)구직 NEET로 구성됨.
 - 이 연구에서 청년층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였고, 이 중 실업자,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구직 NEET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비구직 NEET로 정의함.
 - 엄밀한 의미에서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고용상태로 봐야 하지만, 청년들이 일하는 임시·일용직종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취업상태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구직 NEET에 포함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생, 휴학생, 군복무 중인 청년은 청년 NEET에 포함하지 않음.

(2) 서울의 청년 NEET는 15~29세 청년의 약 11.8%

- 이러한 분류에 따라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8명의 청년 NEET가 확인됨. 이는 15~29세 청년의 11.8%에 해당함.
 - 이들 청년 NEET 중 6.3%는 구직 NEET, 나머지 5.5%는 비구직 NEET 상태임.
 - 15~29세 청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0%가 재학생, 휴학생, 군복무 등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청년층의 28.2%만이 안정적인 고용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휴학이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현상을 의미함(남재량·김세움, 2013).

[표 5-13] 청년 NEET 정의와 규모 추정

(단위: 명, %)

	청년층 (15-29세)	경제활동 청년			비경제활동 청년			청년 NEET (A+B)
		계	취업 중	구직 NEET (A)	계	비경제 활동	비구직 NEET (B)	
사례수	1,759	606	495	111	1,153	1,057	96	208
구성	100.0	34.5	28.2	6.3	65.5	60.0	5.5	11.8

주1. 비경제활동에는 재학생, 휴학생, 군복무 중인 청년

주2. 구직 NEET는 실업자,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청년

주3. 비구직 NEET는 재학생, 휴학생, 군복무를 제외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2) 개인 및 가구 특성

(1) 청년 NEET족은 취업 중인 동년배에 비해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특성

- 청년 NEET족은 비(非)NEET 청년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학력은 다소 낮은 편임.
 -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자가 40.6%로 많지만, 동시에 고등학교 학력자도 41.6%에 달함. 이는 취업 중인 청년의 19.2%, 비경제활동 청년의 29.9%만이 고등학교 학력자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
- 가구구성 형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가구소득 수준은 낮은 편임.
 - 청년 NEET족이 있는 가구 중 부부가구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고 1인 가구 비중도 청년 전체 평균보다 높음. 그러나 1인 가구는 취업 중인 청년층에서 20%로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 3천만 원 미만의 비중이 청년 NEET 가구 중 27.1%임. 이는 취업 중인 청년 18.7%, 비경제활동 청년 14.0%에 비해 높은 수치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년 NEET는 같은 연령대 다른 청년층에 비해 학력이 다소 낮아 NEET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미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생활하거나, 1인 가구인 비율도 약 20%에 달해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지만 아직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추측됨.

- 반면에 취업 중인 청년층은 다른 동년배 집단 중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 NEET와 다른 모습을 보임.

[표 5-14] 청년 NEET의 개인 및 가구특성

(단위: %)

		청년(계)				
		청년 NEET	취업 중	비경제활동	$X^2(p)$	
성별	남자	45.9	30.2	41.2	51.1	36.256 (.000)***
	여자	54.1	69.8	58.8	48.9	
학력	중학교	6.9	1.0	0.8	10.9	168.721 (.000)***
	고등학교	28.3	41.6	19.2	29.9	
	2년제 대학	15.2	16.8	27.5	9.2	
	4년제 대학 이상	49.6	40.6	52.5	50.0	
가구형태	1인 가구	8.9	9.2	20.0	3.7	226.066 (.000)***
	부부가구	3.7	10.7	8.6	0.0	
	2세대 가구	82.9	77.1	66.0	91.8	
	3세대 이상	4.5	3.0	5.3	4.5	
가구소득 (연간)	1천만 원 미만	5.3	5.8	3.9	6.0	93.646 (.000)***
	1~3천만 원 미만	11.5	21.3	14.8	8.0	
	3~5천만 원 미만	31.4	44.0	32.0	28.7	
	5~7천만 원 미만	27.7	17.6	22.5	32.1	
	7~1억 원 미만	18.1	10.1	17.3	20.1	
	1억 원 이상	5.9	1.3	9.5	5.1	

주1. 가구소득은 총소득으로,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수치임.

* $p < 0.05$, ** $p < 0.01$, *** $p < 0.001$

(2) 청년 NEET 중에서는 구직 NEET가 더 열악한 상황

- 구직 NEET는 비구직 NEET에 비해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비율도 더 높음.
- 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구형태임. 두 유형 모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대부분이지만, 구직 NEET 중 13%가 1인 가구임.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은 스스로가 가구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측됨.

[표 5-15] 청년 NEET 유형별 개인 및 가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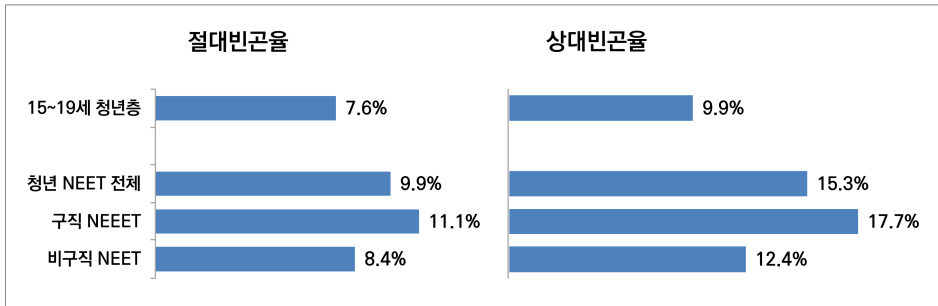
(단위: %)

		청년 NEET 계			$\chi^2(p)$
			구직 NEET	비구직 NEET	
성별	남자	30.2	36.9	22.4	4.983(.026)*
	여자	69.8	63.1	77.6	
학력	중학교	1.0	1.2	0.9	.792(.851)
	고등학교	41.6	39.7	43.7	
	2년제 대학	16.8	18.6	14.6	
	4년제 대학 이상	40.6	40.4	40.8	
가구형태	1인 가구	9.2	13.0	4.7	10.997(.012)*
	부부가구	10.7	7.8	14.1	
	2세대 가구	77.1	74.1	80.6	
	3세대 이상	3.0	5.1	0.5	
가구소득 (연간)	1천만 원 미만	5.8	6.5	4.9	15.868(.007)**
	1~3천만 원 미만	21.3	22.7	19.6	
	3~5천만 원 미만	44.0	51.1	35.2	
	5~7천만 원 미만	17.6	13.1	23.2	
	7~1억 원 미만	10.1	4.8	16.7	
	1억 원 이상	1.3	1.9	0.5	

주1. 가구소득은 총소득으로,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수치임.

* $p < 0.05$, ** $p < 0.01$, *** $p < 0.001$

- 구직 NEET는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가구경제 상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 구직 NEET 가구 중 29.2%가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이고 6.7%만이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임. 반면 비구직 NEET 가구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는 24.5%로 구직 NEET 가구보다 적고 7천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17.2%로 더 많음.
 - 이러한 가구특성으로 인해 구직 NEET 청년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음. 전체 15~29세의 청년층 중 절대빈곤 상태인 비율이 7.6%인 것에 비해 청년 NEET층의 빈곤율이 9.9%로 더 높고, 청년 NEET 중에서도 구직 NEET의 빈곤율이 11.1%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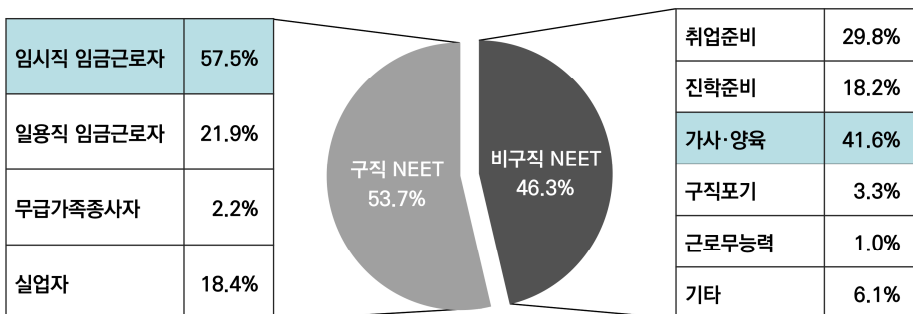


[그림 5-2] 청년 NEET층의 빈곤율

3) 청년 NEET의 활동 상태

(1) 구직 NEET 중 57.5%가 임시직 임금근로자

- 구직 NEET 중 현재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는 18.4%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형태가 임시직 57.5%, 일용직 21.9%로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임금의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비구직 NEET는 취업준비(29.8%)를 하거나 진학준비(18.2%)를 하는 등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비율이 많지만, 41.6%가 가사나 양육을 하고 있음.
 -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결혼한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 5-3] 청년 NEET의 활동상태

(2) 성별, 학력 등 개인특성에 따라 활동형태에 차이

- 모든 집단에서 현재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다음으로 많은 활동형태는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우선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은 임시직 종사자 다음으로 실업자(24.7%)가 많아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성은 27.6%가 결혼한 후 구직을 포기하고 가사나 양육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은 61.4%가 현재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구직포기자가 38.6%로 매우 높음.
 - 이들은 저소득 가정일 가능성이 큰데 자녀마저 구직을 포기한다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그러나 청년층에서 중학교 이하 학력 사례는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반면,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자는 임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준비자 비율이 높음. 고학력자는 당장 열악한 직장에 가기보다 구직을 연기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도로 보임.

(3) 가구소득과 구성 형태가 청년 NEET의 행태에 영향

- 가구소득이 높은 청년일수록 당장 열악한 조건의 일을 하기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진학이나 취업준비 상태인 사례가 많음.
 - 반면, 저소득 가정의 청년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구성 형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 NEET는 여성의 경우 결혼 후 비경제활동으로 전환되고, 남성은 취업준비생으로 남아있는 사례를 보임.

[표 5-16] 개인특성별 현재 활동 상태

(단위: %)

(단위: %)		구직				비구직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	실업	취업준비	진학준비	가사양육	구직포기	근로무능력기타
성별	남자	32.1	8.8	-	24.7	18.2	10.6	-	3.8	1.8
	여자	30.3	13.0	1.7	3.4	11.9	7.5	27.6	0.6	3.9
학력	중학교 이하	61.4	-	-	-	-	-	-	38.6	-
	고등학교	28.4	11.0	0.7	11.2	6.1	18.8	20.2	2.5	1.1
	2년제 대학	35.4	14.8	-	9.4	2.5	-	33.1	0.5	4.3
	4년제 대학 이상	30.7	11.5	2.2	8.9	26.7	1.5	13.1	-	5.2
가구 소득 (연간)	3천만 원 미만	20.2	20.1	0	19.3	16.7	4.8	10.0	5.6	3.3
	3-5천만 원	44.8	11.9	0	7.5	6.9	1.7	26.4	0	0.8
	5-7천만 원	25.0	3.4	6.7	6	11.7	26.8	17.1	0.5	2.9
	7천만 원 이상	17.6	8.5	0.5	5.8	27.3	9.4	16.1	0	14.7
가구 구성	단독가구	50.6	-	-	25.6	11.5	12.3	-	-	-
	부부가구	12.5	-	20.8	-	-	-	49.5	-	-
	부모+자녀	28.7	11.3	1.3	9.4	16.1	9.8	16.9	2.1	4.5

주1. 구성비는 가로 합이 100%임.

- 청년 NEET 중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10.8%이며, 이 중 41.9%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100%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21.2%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36.9%는 비경제활동상태인 비구직 NEET임.
 - 한편 단독가구의 경우 50.6%가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25.6%가 일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 상태임.

[표 5-17] 청년 NEET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와 경제활동 여부

(단위: %)

	청년 NEET	가구주 본인				그 외 ²
		계	경제활동	실업자	비경제활동	
청년 NEET 대비 %	100.0	10.8	4.5	2.3	4.0	89.2
가구주 본인 대비 %		100.0	41.9 ¹	21.2	36.9	

주1. 청년 NEET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모두 임시직 임금근로자로 나타남.

주2. 그 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가구주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으로 구성

4) 요약 및 시사점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15~29세 청년 중 11.8%가 NEET족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중 6.3%는 구직 NEET, 나머지 5.5%는 비구직 NEET임.
 - 구직 NEET 가운데 57.5%는 임시직으로, 21.9%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임금의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청년 NEET는 현재 취업 중인 동년배에 비해 학력이 다소 낮고 가구소득도 낮은 특성을 보임.
 - 이러한 특성이 NEET족으로 생활하게 만든 주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측됨.
 - 가구소득이 낮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저소득 가구의 청년은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더구나 청년 NEET 중 상당수가 가구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청년 NEET 집단 내에서도 구직 NEET가 가장 열악한 상태임.
 - 청년 NEET는 현재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가정경제 상태가 양호하고 학력이 높은 집단은 당장 열악한 직종에 취업하기보다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통해 더 나은 일거리를 찾는 사례가 많음. 반면, 저소득, 저학력 청년 NEET는 열악한 고용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장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따라서 비구직 NEET보다 구직 NEET가 더 열악함. 구직 NEET 중 1인 가구가 13%에 달하고 가구소득이 연 3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가 약 30%에 달함. 이들은 비구직 NEET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대상임.
- 그러나 청년 NEET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임.
 - 청년이 있는 가구의 고용지원서비스 인지율은 NEET족이 있는 가구보다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 인지도가 오히려 더 높음.⁷⁾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다양한 고용서비스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NEET족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청년이 있는 가구에서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는 창업지원,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훈련 순임.
 - 청년 NEET가 있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인 서비스는 직업훈련인 반면, 비(非)NEET 청년이 있는 가구는 희망플러스통장 이용욕구가 높음.
 - 청년들은 성별이나 학력 등 개인특성도 다르지만, 선호하는 활동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표 5-18] 청년 NEET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

(단위: %)

	인지율				이용희망			
	비청년 가구	청년가구			비청년 가구	청년가구		
		전체	NEET 있음	없음		전체	NEET 있음	없음
희망플러스 통장	14.5	17.4	22.9	16.3	47.0	43.6	40.0	44.3
공공근로·희망근로	40.0	40.7	30.2	42.7	32.4	27.5	30.3	27.0
청년인턴제도	26.4	32.5	25.5	33.8	24.5	38.4	37.6	38.5
직업훈련	27.6	31.8	27.0	32.8	39.3	46.9	54.2	45.4
창업지원	30.2	33.0	31.7	33.3	44.9	50.4	50.3	50.5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15.7	20.1	10.8	21.9	44.2	49.0	51.9	48.4

7)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가구단위 조사로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응답자임.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 NEET 본인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년 NEET족이 있는 가구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였음.

3_청년 켑거루족과 골드미스족

1) 청년 켑거루족 실태

(1)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켑거루족

- 최근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가 되었음에도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가
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들을 ‘켑거루족’이라고 함.
- 켑거루족은 취업을 시도하지 않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부모 집에서 함께 사
는 경우로 구분됨.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만혼화, 고학력화, 취업난, 주택난
등에 기인함.
- 이뿐만 아니라 결혼 후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다가 주거 또는 자녀양육 비용부담
때문에 다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증가하는데, 이들을 ‘부메랑족’ 혹은 ‘신켑거
루족’이라고 함(이삼식 외, 2015).
- 켑거루족의 정의는 다양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25세 이상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미혼인 경우’를 켑거루족으로 정의하여 이를 분
석한 바가 있음(이삼식 외, 2015).

(2)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켑거루족이 있는 가구는 14.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켑거루족 개념 정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서울복지실태조
사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켑거루족이 있는 가구는 14.9%인 451가구임.
- 이들 켑거루족 중 가구주가 베이비부머인 가구가 264가구로 58.5%임. 상당
수의 켑거루족이 베이비부머 부모와 살고 있는 것임. 이는 3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베이비부머 부모는 여전히 자녀부양 부담을 지고있는 낀 세대임
을 다시 한번 보여줌.
- 켑거루족이 있는 가구는 451가구 내 켑거루 청년은 총 518명이고, 이 중 부모가
베이비붐 세대인 켑거루족은 333명임.

[표 5-19] 켑거루족의 규모

(단위: 가구, 명, %)

구분		빈도	전체 구성비	켑거루 자녀 수
전체		3,019	100.0	
	켑거루족이 없는 가구	2,568	85.1	
	켑거루족이 있는 가구	451	14.9	518
	가구주가 베이비부머	264	8.7	333
	가구주가 비(非)베이비부머	187	6.2	185

주1. 베이비부머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를 베이비부머가구로 선정한 후, 그 가구의 자녀가 25세 이상이면서 미혼인 경우를 켑거루족으로 추출함.

2) 켑거루족 청년의 특성

(1) 같은 연령대 비(非)켑거루족보다 고학력

- 베이비부머 가구 내 켑거루족(이하 켑거루족)으로 확인된 자녀의 연령은 최소 25세에서 최대 36세임. 켑거루족 청년의 개인특성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연령대의 청년층과 비교하였음.
- 켑거루족은 같은 연령대 청년들에 비해 20대 비중이 더 많고 학력은 높은 편임.
 - 성별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켑거루족은 20대가 63.7%인 데 비해 비교집단 청년은 30대가 65%로 반대 양상을 보임. 이 연구에서 켑거루족을 미혼 청년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추측됨.
 - 켑거루족 가운데서도 베이비부머를 부모로 둔 켑거루족에서 20대 비중이 더 많고 학력도 더 높은 편임. 베이비부머 가구 내 켑거루족의 약 65%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집단 중 학력이 가장 높음.

[표 5-20] 켄거루족의 개인 특성

(단위: %)

		켄거루 전체	베이비부머 내 켄거루족	전체 청년층 (만 25~36세)	$\chi^2(p)$
성별	남자	48.2	45.1	44.4	4.278(.039)*
	여자	51.8	54.9	55.6	
연령	20대	63.7	75.0	35.0	268.605(.000)***
	30대	36.3	25.0	65.0	
	(평균 연령)	(29세)	(28세)	(31세)	
학력	중학교 이하	0.8	1.0	0.9	29.941(.000)***
	고등학교	14.9	13.1	21.6	
	2년제 대학	25.8	21.0	21.0	
	4년제 대학	55.4	61.6	51.8	
	대학원 이상	3.0	3.3	4.7	

주1. 통계적 검증은 켄거루족과 전체 청년층을 비교한 것임.

* $p < 0.05$, ** $p < 0.01$, *** $p < 0.001$

(2)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 켄거루족의 고용상태가 더 안정적

- 켄거루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소 높은 편이고, 상용 임금근로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에 실업자 비중은 켄거루족 청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켄거루족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실업상태인 것으로 추측됨.
 - 특히 베이비부머 가구 내 켄거루족의 74.5%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활동하여 가장 양호한 반면, 실업상태도 2.4%로 가장 높음.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켄거루족은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중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켄거루족의 8.7%가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반면, 비교집단 청년은 12.6%가 가사나 양육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형태에 차이를 보임.

- 이는 두 집단의 연령 및 성별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임. 앞에서 켄거루족의 연령대가 20%가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학업 중인 청년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반면 전체 청년층은 30대가 많아 결혼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여성 청년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됨.

[표 5-21] 켄거루족의 경제활동 특성

(단위: %)

	켄거루 전체		전체 청년층 (만 25~36세)	$\chi^2(p)$
		베이비부머 내 켄거루족		
경제활동(소계)	83.9	82.8	80.1	28.709 (.000)***
상용직 임금근로	73.5	74.5	67.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7.9	5.2	9.6	
공공일자리	-	-	0.2	
고용주	0.1	0.2	0.4	
자영업자	0.2	0.1	1.2	
무급가족종사자	0.4	0.6	0.3	
실업자	1.9	2.4	0.9	
비경제활동(소계)	16.1	17.2	19.9	188.436 (.000)***
근로무능력	0.8	0.9	0.5	
정규교육기관 학업	8.7	9.6	4.2	
진학준비	1.1	1.5	0.4	
취업준비	3.9	4.0	1.7	
가사/양육	0.1	-	12.6	
군복무	0.2	0.3	0.1	
구직활동 포기	0.3	0.3	0.1	

주1. 통계적 검증은 켄거루족과 전체 청년층을 비교한 것임.

* $p < 0.05$, ** $p < 0.01$, *** $p < 0.001$

(3) 켄거루족 청년이 있는 가구의 경제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

- 켄거루족 청년이 있는 가구는 2세대 가구 형태가 대부분임. 이는 켄거루족과 같은 연령대 청년의 1/3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임.
- 켄거루족 청년이 있는 가구는 경제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구임.

- 동년배 청년이 있는 가구 전체에서 가구소득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17.7%인 반면, 캥거루 청년이 있는 가구는 26.7%가 고소득 가구임. 즉,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캥거루족으로 생활하는 것임.
- 소득이 높으니까 자녀에 대한 지원이 많고, 그래서 학력도 높고, 고용상태도 양호함.

[표 5-22] 캥거루족의 가구특성

(단위: %)

		캥거루족 청년이 있는 가구	청년이 있는 가구 전체
가구구성	1인 가구	-	32.9
	부부가구	-	-
	2세대 가구	95.1	62.0
	3세대 이상 가구	4.9	5.1
가구소득 (연간)	1천만 원 미만	5.8	5.2
	1~3천만 원 미만	7.6	19.8
	3~5천만 원 미만	31.2	35.8
	5~7천만 원 미만	28.7	21.4
	7~1억 원 미만	18.9	12.4
	1억 원 이상	7.8	5.3

2) 1인 미혼여성 가구

(1) 여성가구주 가구 중 29.1%가 1인 미혼여성 가구

- 최근 만혼 현상이 늘어나면서 학력이나 소득이 높지만 결혼하지 않는 골드미스가 새로운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골드미스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으나, 주로 고소득의 사무직이나 전문직, 프리랜서로 일하며 독신생활을 즐기고 자기 성취욕이 높은 30~40대 미혼여성을 의미함.
 - 가구주 연령이 20대 이상 40대 이하인 1인 여성가구주 가구를 확인한 결과, 이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217가구임. 이 중 20대가 38.3%, 30대 42.4%, 40대 19.4%로 구성됨.

[표 5-23] 1인 미혼여성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여성가구주 전체	1인 미혼 여성가구주	20~40대 여성가구주			
				20대	30대	40대
사례수	774	225	217	83	92	42
구성비	100.0	29.1	28.0	10.7	11.9	5.4
	-	100.0	96.4	36.9	40.9	18.7
	-	-	100.0	38.3	42.4	19.4

(2)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20~30대 1인 여성가구는 대체로 고학력으로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젊은 여성층이라고 할 수 있음.
 - 20~30대는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이 80%가 넘어 학력이 매우 높음. 20대의 56%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일하는 직종은 대부분 사무직임.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임.
 - 30대는 20대보다 학력이 다소 낮지만, 여전히 82.6%가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고 97.8%가 유급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20대와 마찬가지로 사무직이 가장 많지만, 서비스직도 많은 편이며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취업준비 중임.
- 40대 미혼여성은 20~30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학 이상 학력이 전체 여성가구주 평균보다 낮고 고등학교 학력이 많음.
 -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직종은 서비스와 판매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단순노무직도 18.6%에 달해 20~30대 여성에 비해 저임금 직종에 많이 종사함.

[표 5-24] 1인 미혼여성 가구주의 개인특성

(단위: %)

		여성가구주 전체	1인 미혼여성 가구주			
			20대	30대	40대	$\chi^2(p)$
학력	중학교 이하	16.9	-	-	-	49,640 (.000)***
	고등학교	42.6	9.6	17.4	64.3	
	대학 이상	40.5	90.4	82.6	35.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1.0	56.1	89.1	38.1	114,147 (.000)***
	임시직/일용직	19.4	9.7	4.3	45.2	
	고용주	0.9	-	1.1	-	
	자영업자	3.1	-	3.3	16.7	
	실업자	10.7	-	-	-	
	비경제활동인구	0.4	34.1	2.2	-	
직종	관리직, 전문직	4.8	5.4	6.6	7.0	54,750 (.000)***
	사무직	27.6	67.3	57.1	18.6	
	서비스직	33.0	18.2	30.8	30.2	
	판매직	22.9	9.1	5.5	25.6	
	기능직	2.7	-	-	-	
	단순노무직	8.7	-	-	18.6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가구 경제상태는 좋지 않은 편

- 1인 미혼여성 가구주는 여성가구주 전체 평균보다 주거상황이 열악함.
 - 모든 연령대에서 자가 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이고, 30~40대는 전세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20대는 월세 거주가 가장 많음.
 - 20대는 취업 중이라도 아직 연봉수준이 높지 않고, 상당수의 20대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기 때문에 월세거주가 많은 것으로 보임. 같은 이유에서 지하나 반지하 거주 비율도 높음. 주택규모가 평균 29.5m라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측됨.

- 40대 미혼여성의 거주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함. 9.5%가 자가로 가지고 있고 거주면적도 55.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양호함.

[표 5-25] 1인 미혼여성 주거실태

(단위: %, m²)

		여성가구주 전체	1인 미혼여성 가구주			
			20대	30대	40대	$X^2(p)$ or $F(p)$
주거점유 형태	자가	27.5	3.6	1.1	9.5	51.271(.000)***
	전세	41.1	14.5	57.1	59.5	
	월세	30.5	81.9	39.6	31.0	
	무상	0.9	-	2.2	-	
주택위치	지상	88.9	78.0	82.6	90.5	9.679(.086)
	지하	0.9	-	-	2.4	
	반지하	9.7	22.0	16.3	7.1	
	옥탑	0.5	-	1.1	-	
평균 주택규모(m ²)		60.1	29.5	49.1	55.9	26.24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 소득과 자산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골드미스의 구체적 조건에는 대출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연봉 4천만 원 이상, 부동산이나 전체 자산 규모가 8천만 원 이상 등이 있음(네이버 대중문화사전).
 - 그러나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확인된 20~40대 1인 미혼여성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 40대 미혼여성 가구주 집단에서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 또한 여성가구주 전체 평균보다 적음.
- 30대 미혼여성 가구주의 연간 소득이 3,186만 원으로 여성가구주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평균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미혼여성 가구주 소득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님.
 -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중 소득 2분위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68.1%인 데 비해 1인 미혼여성 가구주 중 20대는 88.3%, 30대는 81.7%, 40대는 76.9%

가 2분위 이하에 속함.

- 반대로 소득 4분위 이상은 20대에서는 전혀 없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3.4%, 10.2%로 전체 여성가구주 평균 20.2%보다 낮음.

[표 5-26] 1인 미혼여성 가구경제 특성

(단위: 만 원, %)

		여성가구주 전체	1인 미혼여성 가구주			
			20대	30대	40대	$X^2(p)$ or $F(p)$
순자산(만 원)		18,195	3,381	11,600	14,589	9,504(.000)***
부채(만 원)		1,346	153	524	753	4.115(.018)*
총소득(만 원/연)		3,133	2,277	3,186	2,704	2.778(.064)
소 득 분 위	소득 1분위	39.9	60.0	13.4	35.9	48,867(.000)***
	소득 2분위	28.2	28.3	68.3	41.0	
	소득 3분위	11.7	11.7	4.9	12.8	
	소득 4분위	13.7	-	12.2	5.1	
	소득 5분위	6.5	-	1.2	5.1	

주1.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 $p < 0.05$, ** $p < 0.01$, *** $p < 0.001$

(4) 생활실태에서 일부 골드미스적 특성을 확인

- 골드미스는 결혼보다 개인생활을 중시하고, 자기 성취욕이 높은 만큼 자기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며 명품 쇼핑이나 우아한 해외여행 등 멋진 삶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임.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의 여가활동 실태에서 이러한 특성을 다소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시민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1인 미혼여성들은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활발하고 관광이나 여행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0대인 1인 미혼여성 집단에서 문화예술 관람뿐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여행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남. 20대 미혼여성들은 스포츠를 직접 하는 활동에, 40대 미혼여성들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표 5-27] 1인 미혼여성 가구주의 여가활동

(단위: %)

	전체 응답자	1인 미혼여성 가구주		
		20대	30대	40대
휴식활동	38.4	31.9	26.1	40.5
문화예술 관람 활동	11.4	19.3	17.4	12.2
문화예술 참여 활동	3.4	4.2	8.2	1.4
스포츠 관람 활동	5.8	5.4	3.8	5.4
스포츠 참여 활동	7.0	12.0	4.9	6.8
관광 여행	8.2	9.0	9.2	8.1
취미·오락 활동	13.6	12.0	17.4	8.1
사회활동	11.8	6.0	13.0	17.6
계	100.0	100.0	100.0	100.0

주1. 여가활동은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값임.

3) 요약 및 시사점

- 켄거루족과 골드미스족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청년들로 하여금 켄거루나 골드미스적 생활을 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
 -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켄거루가 일정 정도 발견되었고, 부모가 베이비붐 세대인 경우가 많았음.
 - 서울의 청년 여성 중 골드미스적 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인 미혼여성 가구주를 분석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골드미스적 특성을 충족하는 여성은 많지 않음. 서울의 1인 미혼여성 가구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등 여가문화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골드미스적 특성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열악한 상태여서 골드미스의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독신여성은 많지 않음.
- 청년 켄거루족과 혼자 사는 미혼여성은 유사한 측면이 많으면서 동시에 차이점도

보이고 있음.

-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았음. 캥거루족은 비캥거루 청년들에 비해 고용조건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두 집단 모두 결혼을 미루고 독신생활을 즐긴다는 점도 유사점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캥거루족이 독거 미혼여성보다 양호한 상태를 보임. 학력도 더 높고 상용직의 사무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도 더 많은 편임. 가구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반면, 독거 미혼여성 중 20대의 88%, 30대의 81.7%는 가구소득이 소득 하위 2분위 집단에 속하고 반 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여성도 많음.
-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캥거루족은 결혼은 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독거 미혼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한다는 점임.
 -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함께 사는 캥거루족도 있겠지만, 이들이 아직 20, 30대 청년이고 부모의 연령은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에서 주부양자는 부모세대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의 캥거루족은 고학력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할 여력이 없어서 부모와 산다기보다 편의성 차원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추측됨.
 - 한편 독거 미혼여성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것은 이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임. 실제로 독거 미혼여성의 상당수는 20대인데, 이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임. 따라서 이들의 소득이 적다고 저소득 가구로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음. 캥거루족의 가구소득이 더 높은 것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전 가구원의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음.
- 같은 연령대 청년의 상당수가 이미 결혼한 상태인 것과 비교해 캥거루족과 골드미스족은 결혼을 미루고 독신생활을 즐기는 것도 두 집단의 또 다른 공통점임.
 - 분석에서 나타난 서울의 캥거루족은 독립할 여력이 없는 집단으로 보기 어

려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을 미루고 독신생활을 즐기는 청년층으로 보임. 독신생활을 즐긴다는 점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도 다르지 않음.

- 그러나 이들 중 자발적인 만혼도 있겠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결혼과 양육의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 청년들의 삶의 양식은 다양해지고 있음. 취업난이 심해지고 결혼과 육아의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감소, 고령화라는 사회 전반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 이는 전 사회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



06

결론 및 제언

1_종합 및 시사점

2_분석의 한계와 향후 과제

06 결론 및 제언

1_종합 및 시사점

- 이 연구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집단별, 주제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분석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내용과 동일한 결론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도 있고, 일부 내용은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음.
- 서울노인의 상당수가 독립적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는 노인도 상당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발견임.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염려와 달리 가족과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는 노인은 16.5%에 불과한 반면, 절반 이상의 노인이 혼자 또는 부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음. 서울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오히려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음도 확인하였음.
- 그러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임. 독거노인의 90.9%, 노인부부가구의 59.7%가 소득 하위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가구임. 이들은 자녀로부터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지원은 더 필요한 집단임. 고령화가 진행되면 독거노인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분석한 부분에서 미래 노인세대는 현세대 노인에 비해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음.
- 베이비부머는 현세대 노인들보다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노후 준비 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함. 따라서 이들이 노인세대에 접어들었을 때

-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현세대 노인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여전히 7.8%의 베이비부머는 어떤 형태의 노후 경제생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자녀를 부양하는 긴 세대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임.
 -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원임. 이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 문제를 비재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서울의 인구와 가구 부문에서 다루어진 마지막 주제인 여성가구주 가구 분석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 여성가구주 가구는 전반적으로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특히 어려운 집단은 1인 여성가구임. 1인 여성가구는 주로 20대 이하 젊은 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는데, 두 집단 모두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함.
 - 여성이 가구주인 맞벌이 가구는 경제적으로는 다른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양호하지만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장 열악한 상태이고, 모자가구는 자녀양육과 취업 및 실업,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맞벌이가구와 모자가구의 여성가구의 공통관심사는 자녀양육 문제임. 이들은 가구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집단임. 보육비/교육비 지원(20.8%)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 강화(20.1%), 그리고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 등 보육환경 개선(18.4%)을 가장 많이 희망함.
- 서울시민의 경제 상태 분석에서의 주요 발견은 서울의 빈곤과 불평등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임.
- 서울시민의 빈곤과 불평등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도시가구와 비교하

면 서울시가 더 열악함. 특히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평균의 세 배를 넘고 소득보다 자산불평등도가 심함.

-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계층이 광범위하다는 것임. 특히 절대빈곤상태이지만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그리고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가장 취약한 집단임.
 - 비수급 빈곤가구가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한 자가평가액이 자산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으로 추측됨. 비수급 빈곤가구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현금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집과 부양자 기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근로빈곤가구는 비근로 빈곤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임. 이들은 모든 빈곤가구 중에서 물질적 결핍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음.
 - 빈곤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기에 가족관계, 정신건강 등 비경제적 문제를 동반함. 빈곤가구는 다양한 분야의 위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대책도 경제, 사회, 공간적으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고, 삶의 방식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서울의 15~29세 청년 중 11.8%가 NEET족 상태임. 구직 NEET 중 약 80%가 임시직/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임금의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됨. 저학력, 저소득 가구의 청년일수록 열악한 고용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장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직 NEET에 속함.
 - 한편 새로운 생활방식의 하나로 켄거루족이나 골드미스족도 발견됨.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나 켄거루족은 결혼은 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독거 미혼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캥거루족과 골드미스족은 결혼을 미루고 독신생활을 즐기는 것도 두 집단의 또 다른 공통점임. 이들 중 자발적인 만혼도 있겠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결혼과 양육의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데이터의 심층 분석을 통해 주요 복지대상 집단의 기본특성과 생활실태, 그리고 의식과 가치관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비록 기본적인 가구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들 가구주와 가구 특성, 그리고 가구 경제상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2_분석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분석의 한계

- 이 연구는 주요 집단과 주제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하기 위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먼저 일부 하위 집단은 사례수가 적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표본 내에 기초보장수급가구는 35가구로 전체 표본의 1.3%임. 그러나 서울시 전체의 기초보장 수급률이 1.9%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적은 규모이지만 분석을 실시하였음.
 - 데이터 분석결과와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다른 데이터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함.
- 두 번째로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조사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파악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서울복지실태조사는 각 가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모든 문항을 응답하였음. 따라서 조사내용에 개인적인 인식이나 욕구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지만, 각 가구원의 의견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내용 중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을 분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 개인특성으로 재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일부 문항은 가구특성을 토대로 개인적 인지도를 확인하였음.
- 청년 NEET의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욕구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청년 NEET 당사자가 아닌 청년 NEET가 있는 가구의 응답자 의견으로 대체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 마지막으로 서울복지실태조사가 모든 생활과 복지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포괄적이지만 한 주제를 심도 있게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임.
-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은 가구주 특성, 가구특성, 가구원의 경제활동, 가구경제상태와 주거실태 등 기본적인 항목에 제한되어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각 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살펴본 항목들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2) 향후 과제

- 서울복지실태조사는 2013년에 이어 2015년까지 2회 진행되었음. 아직까지는 학계와 정책개발 과정에 활용도가 높지 않음.
- 이번 연구에서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울복지실태조사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다음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조사설계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임.
- 앞으로 서울복지실태조사가 현장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 조사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층 분석을 하기에는 조사내용이 기초항목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고, 개인의 의견을 조사하기에는 현재의 조사방법이 적절치 않은 문제도 있음.
- 현실적으로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모든 실태와 욕구를 동시에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를 세부 복지대상 집단별로 구분하여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움.
- 실제로 2015년 조사에서 하위집단별 표본수가 적어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 분야임. 이번 조사에서 총 3,019가구를 조사하였지만 이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 표본의 2.5%인 75가구밖에 추출되지 못하였음.
- 자치구별 인구 및 가구구성에 따라 비례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지만, 장애인과 같이 인구 구성비가 적고 가구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하위 집단의 경우 이러한 표본설계로는 충분한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서울시 복지관련 조사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종합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서울시의 복지통계 데이터는 빈약함. 실태 또는 욕구조사를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음.
 -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서울복지실태조사가 있고, 4년마다 자치구의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가 있으며, 또한 노인, 아동 등 각 인구집단별 조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개별 조사 간의 위계도 설정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일부 조사내용은 중복되는 점도 있음.
 -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조사데이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를 단위로 하는 복지데이터체계 구축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성진 외 9인, 2010,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25-05.
- 곽민주·이희숙·김민정, 2012, “주관적 부채부담에 따른 부채증가 가구의 특성과 영향요인”, 「소비자문제연구」, 제43호, pp.157-175.
- 김명규·임병인, 2014, “우리나라의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분석”, 「1~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발표자료, pp.402-425.
- 김용기 외 5인, 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 김윤탈·서재욱, 2015, “빈곤의 다차원성: 이론적 논쟁의 검토”, 「비판사회정책」, 48호, pp.146-186.
- 김혜련, 2010, “근로빈곤의 동태적 분석”,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3권」, 통계개발원.
- 남상호, 2009, 「저소득층의 자산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상호·권순현,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p.3-32.
- 남재량·김세움, 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민승규 외 4인,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박소현·안영민·정규승, 2013,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소득중심으로」,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노인실태조사」
-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노인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연구」.
-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5,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성영애, 2006, “가계신용관련정책 기초자료를 위한 가계부채의 지역 간 비교분석”, 「소비자정책 교육연구」, 제2권 제1호, pp.83-99.
- 손상희, 1995, “부채능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33-143.

신진옥, 2013,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민중사회와 정책연구』, 상반기 통권 23호, pp.41-70.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오만숙·현승미, 2009, “한국국민의 가계 금융부채에 대한 체감도 분석”, 『응용통계연구』, 제22권 제2호, pp.297-307.

이삼식·최효진·윤홍식, 2015,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은·이은혜·정찬미, 2011, “한국에서 자산빈곤의 변화추이와 요인분해”,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3호, pp.3-37.

이정우·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이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학연구』, 제7권 제2호, pp.79-109.

이태진·신영석·김미곤·노대명, 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성은·김용하,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2호, pp.36-59.

정은희·이주미, 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자·이희숙·양제정·성영애, 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pp.99-121.

현대경제연구원, 2013,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13-41).

Brandolini, A., Magri, S., and Smeeding, T.M., 2010, “Asset-Base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Special Issue on Poverty Measurement (SPRING 2010), pp.267-284.

Haveman and Wolff, 2001,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1998”,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1227-01, pp.1-35.

Oliver, M.L., and Shapiro, T.M., 1990, “Wealth of a Nation: A Reassessment of Asset Inequality in America Shows At Least One Third of Households Are Asset-poor”,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9(2), pp.129-151.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09000239&md=20151109094229_BL (헤럴드경제, 2015-11-9일자)

<http://www.census.go.kr/mainView.do>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

Abstract

The 2015 Seoul Welfare Survey: An In-depth Analysis Report

Kyung-Hye Kim · Dong-Yeol Ja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conducting the Seoul Welfare Survey since 2013. This report provides results of an in-depth analysis of the 2015 Seoul Welfare Survey. The data comprises 3,019 sample households living in Seoul and covers parameters ranging from basic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nd their family life to the needs of various welfare populations.

The analysis provides profiles of the major subgroups of interest in Seoul. The analysis consist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population and household of Seoul, which covers household living arrangement, elderly households, households headed by females, and baby boomers. The second part deals with economic issues. Poverty and inequality,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poor households, assets and debt, and the middle class of Seoul are the issues analyzed in this part. The final part discusses work and lifestyle. The economic activities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working poor persons are reviewed, followed by profiles of Seoul's young people such as the young NEET and kangaroo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welfare policies because investigating profiles of the target population is the top priority in policy making. However, the Seoul Welfare Survey has some limitations. Establishing more reliable data is a challenge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order to create evidence-based welfare policies.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02 Introduction to the Seoul Welfare Survey

- 1_Background and Purpose
- 2_Outlines of the Survey
- 3_Review of Data

03 Population and Household of Seoul

- 1_Household Living Arrangement
- 2_Elderly Persons in Seoul
- 3_Baby Boomers
- 4_Female-headed Households

04 Income and Poverty

- 1_Poverty and Inequality
- 2_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come Poor
- 3_Households with Burden of Liabilities
- 4_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Class

05 Work and Lifestyle

1_The Working Poor

2_Young People of the NEET Status

3_Kangaroo and Single Ladies Living Alone

06 Conclusion



서울연 2016-BR-10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12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195-8 93330 1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